

DJDI

대전형 행복지수 구축 방안

박노동 · 박재묵 · 류진석 · 김정은

연구진

- | | |
|------|-----------------------|
| 연구책임 | • 박노동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 공동연구 | • 박재묵 /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
| 공동연구 | • 류진석 /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공동연구 | • 김정은 /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연구보조 | • 박으뜸 /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 |

요 약 문

□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 시민의 행복 여건과 주관적 행복도,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행복지표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대전광역시 행복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의 성과를 진단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한 지표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행복의 개념과 이론

○ 행복 지표와 행복 지수

행복지수는 특정 시점에서 한 사회 또는 지역사회의 행복 상태, 또는 행복의 수준을 요약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측정 도구 또는 측정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행복지수는 대체로 하나의 수식 또는 수치로 표현되며,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의 값을 종합한 것이다. 이 때 영역별로 또는 지표별로 가중치를 달리 부여하여 종합하는 경우도 있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 또는 그 값을 행복 지표(happiness indicators)라 할 수 있다.

○ 대전형 행복 지수

대전형 행복지수는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행복지수라고 할 수 있다. 대전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은 결국 대전 시민의 행복관(幸福觀)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행복지수의 기능과 활용

행복지수의 기능은 첫째로, 특정 시점에서 특정 사회의 행복 상태(삶에 대한 만족의 수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둘째로, 행복지수는 국가 간 또는 지역 간(도시 간) 비교를 가능케 해줌으로써 각 정부 또는 지자체가 행복도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로 행복지수는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종단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국민 또는 시민 행복수준의 변화와 그 추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넷째로, 행복지수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해 준다. 마지막으로 행복지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또는 지역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사회 변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행복지수의 국내외 사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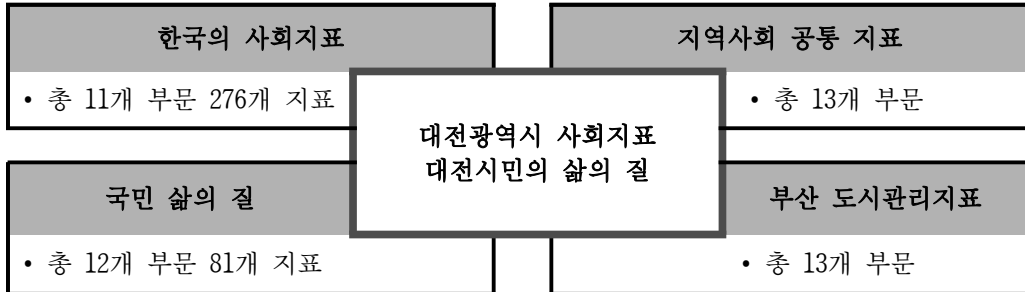
○ 행복 중심 개발 지수

[그림] 행복 중심 개발 지수(국제)

부탄(2015)의 Gross National Happiness • 총 9개 영역, 33개 지표	일본(2010)의 Commission on Measuring Well-being • 총 3개 영역, 12개 요소, 132개 지표	프랑스(2009)의 Gross National Happiness • 삶의 질 총 9개 영역
캐나다(2011)의 Canadian Index of Wellbeing • 총 8개 영역, 64개 지표	태국(2006)의 Green and Happiness Indx • 6개 분야, 18개 하위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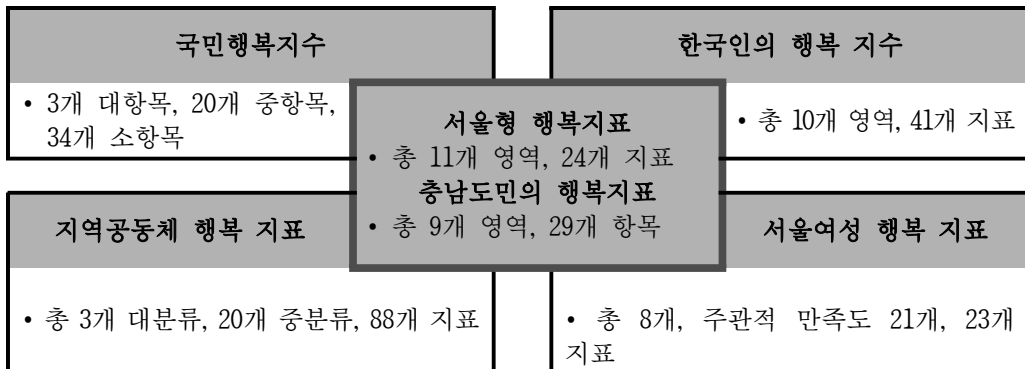
○ 행복 관련 기초 지수

[그림] 행복 관련 기초 지수(국내)



○ 행복 중심 개발 지수

[그림] 행복 중심 개발 지수(국내)



○ 사례검토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행복지수 관련 국내외 기초 및 중심의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첫째, 행복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측정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개념과 지표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주관적 웰빙이나 행복’, ‘삶에 대한 만족도 또는 삶의 질’, ‘정서 경험’ 등과 같이 행복 관련 직·간접 질문과 주관적 만족이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행복의 보편성은 객관적 혹은 물질적 조건이나 환경을 일정 부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행복 지표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즉, 많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볼 때, 행복지수의 공통 영역으로는 객관적/외부적 요인, 주관적/내부적 요인과 같은 기준들로 경제적 수준, 교육 수준, 주거, 일자리와 공용, 건강, 여가와 문화, 지역사회 공동체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조사 결과와 개인과 지역사회 체감의 행복 수준은 늘 격차가 존재한다.

□ 행복지수 개발의 기본방향

행복개념에 따라 개인 체감형 행복지표 선정과 함께 정책과 연계가능한 성과지표로서 객관적 지표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 행복지수의 구조

대전의 행복지표는 기존 지표의 구조를 준용하되, 개인적 특성 중 여성, 연령(생애주기)을 고려하여 세부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지표의 구조는 기본지표-특성지표로 구조화할 수 있다.

○ 대전형 행복지수의 특성

대전형 행복지표의 특성을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 행복의 개념적 요소 중 주관적 측면에 보다 중점을 둘 것이다.

둘째, 미래가치(예, 공유 및 소통, 공동체 활력, 네트워크 등)를 반영하여 정책지향점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대전의 미래비전과 연동되거나 정책성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표로 구축되어야한다.

셋째, 시민의 구성적 특성(성, 연령 등)을 고려한 세부지표를 설정한다.

○ 대전형 행복지수 개발의 기본방향

대전형 행복지수 개발의 기본 방향은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을 준용하고자 한다.

첫째, 지표의 타당성 제고이다. 지표선정 시 행복수준과의 관계정도를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즉 지표의 증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구체화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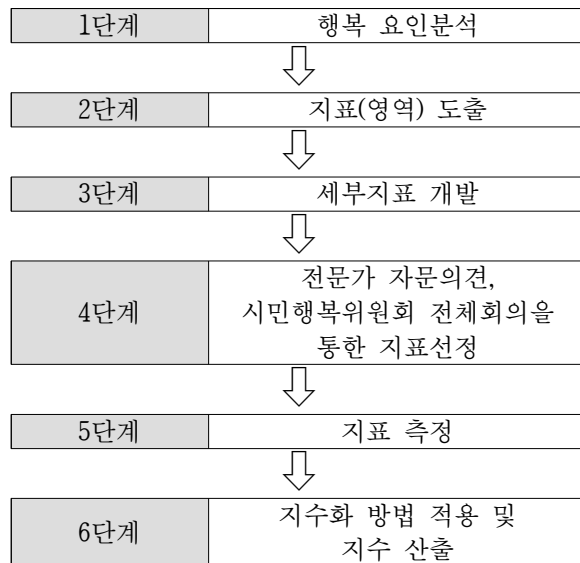
둘째, 지표의 신뢰성 확보이다. 행복에 관한 측정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이어야 하며, 시계열적인 비교가 가능해야한다.

셋째, 지표선정 시 대전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대전광역시 민선6기의 시정방향 및 대전 2030 글랜드플랜에서 제시한 비전을 반영하는 한편, 지역간 비교가능성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넷째, 지표선정 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혼용방식을 적용해야할 것이다 행복개념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표구성 역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적절히 혼용하여 측정되어야할 것이다.

다섯째, 정책과 연관된 지표선정 및 지표체계의 간결성이다. 대전형 행복지수의 개발은 이와 같은 총망라적인 지표제시보다는 주관적 측면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정책목표와 방향과 연관된 지표중심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 대전형 행복지수 개발의 절차



□ 행복지수의 지표 선정

○ 세부지표의 선정

구분	영역	지표	
		객관지표	주관지표
기본 지표	경제적 안정	가처분소득 고용률	소득만족도 일자리만족도
	건강과 주거	기대여명 주거비	주관적 건강만족도 스트레스인식도 주거환경만족도
	문화와 여가	문화여가시간 문화여가지출비율	문화여가활동만족도
	공동체 활력	가족관계접촉빈도 사회단체참여율 자원봉사참여율	가족관계만족도 사회적 유대정도 지역사회소속감 기부정도 사회적 신뢰도
	주관적 웰빙	-	전반적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경험 부정적 정서경험
	삶의 질의 도시기반 (안전, 환경, 교통)	범죄율 교통사고발생율 미세먼지농도 온실가스배출량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교통시설이용편리성 수질만족도 체감환경만족도
특성 지표	아동기	아동학대피해경험률 학교폭력발생률 학업성취도	교우관계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성인기	사교육비지출비율 평생교육접근성	
	노년기	연금수급률 장기요양보호율	

□ 대전형 행복지수의 활용방안

○ (가칭) 대전행복지표집 발간

대전행복지표집은 대표적 소수 지표를 이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지표의 독립변수명까지 밝혔으나, 실제 작업을 할 때는 가능한 독립변수를 모두 적용하여 본 뒤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독립변수를 중심으로 자료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 지역내 비교측정과 지역내 균형발전 전략 추진시 활용

지역간 비교가 어려운 대신 대전시와 대전시 자치구별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대전시의 시민 행복증진 정책 실적의 평가나 매년 대전광역시 정책시행 계획에 시민 행복 증진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통계생산 기반 구축

지역사회지표조사 결과를 활용한 행복지표 개발 및 활용이 적극 필요하다.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타시도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 통계청이나 통계개발원이 대전에 입지해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대전시 자체의 통계생산 기반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 행정통계의 이용 제도화

국가의 정책실행 수준이 높아질수록 행정통계가 많이 생겨나고, 정확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향후 조사의 고비용을 감안할 때 행정통계의 이용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 지속적인 정기적 조사 실시 및 지표체계 개선

본 연구의 지표개발을 수행하면서 기본적인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계자료가 없어 생산이 불가능한 지표들이 다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속적인 변화 과정에 대한 시계열분석이나 지역간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위주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정기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행복지표 조사 분석 전담 부서 운영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나, 이들 부서는 보통 조사통계에 한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대전시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대부분의 행정통계는 각 생산부서에 산재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전광역시는 기존 행정통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지역통계의 효율적 활용과 행복지표의 체계적 생산을 위해서는 대전광역시 내에 지역통계를 통합 관리하는 부서를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본다.

○ 국제도시 간 지표 비교 체계 구축

대전시 행복지표는 대전시의 현황만을 측정,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전시의 삶의 질이나 행복 수준을 국제도시의 수준과 비교하여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교하여야 하는 외국 도시를 선정하고 그 각각의 도시들과 행복의 정도를 측정하고 비교분석하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이 먼저 합의되어야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국제적 수준에서 합의 가능한 의의와 목적, 성과를 수립하고 긴밀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목 차>

제 1 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6
제 2 장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	11
제1절 행복의 개념과 이론	11
제2절 행복지수의 기능과 활용	22
제 3 장 행복지수의 국내외 사례 동향	27
제1절 국외 연구 및 활용 동향	27
제2절 국내 연구 및 활용 동향	56
제3절 시사점	104
제 4 장 대전형 행복지수의 개발	109
제1절 행복지수 개발의 기본방향	109
제2절 행복지수 개발의 절차	113
제3절 행복지수의 지표 선정	117
제 5 장 대전형 행복지수의 활용방안	133
제1절 기본방향	133
제2절 행복지표의 활용방안	141
참고문헌	151

<표 목 차>

<표 2-1> 네 가지 삶의 질	12
<표 2-2> 부탄의 GNH의 영역별 지표와 그 가중치	19
<표 3-1> World Value Survey의 지표	31
<표 3-2> OECD(2016)의 How's Life?의 지표와 우리나라 수준(물질적 삶의조건)	34
<표 3-3> 최근 3년간 우리나라 UNDP(2015) Human Development Index 현황	40
<표 3-4> Mercer의 Worldwide Quality of Living Surveys	42
<표 3-5> EIU의 Liveability Ranking	43
<표 3-6> UN(2016)의 World Happiness Report 지표	45
<표 3-7> 부탄의 Gross National Happiness 지표	48
<표 3-8> 프랑스의 Gross National Happiness 지표	49
<표 3-9> 캐나다의 Canadian Index of Wellbeing	51
<표 3-10> 태국의 Green and Happiness Index	52
<표 3-11> 한국의 사회지표와 지역사회 공동 지표	53
<표 3-12> 지역사회 공동 지표 현황	61
<표 3-13> 국민 삶의 질 지표	62
<표 3-14> 부산 도시관리지표	65
<표 3-15> 대전광역시 사회지표	78
<표 3-16> 대전시민의 삶의 질	81
<표 3-17> 국민행복지수 지표	84
<표 3-18> 한국인의 행복 지수(안)	86
<표 3-19> 한국인의 행복 지수 결정 요인과 수준	88
<표 3-20> 지역공동체 행복 지표	89
<표 3-21> 서울여성행복지표 삶의 질 결정 요인(2012)	93
<표 3-22> 서울여성행복지표 신규 영역별 선정 사유(2012)	94

<표 3-23> 서울여성행복지표의 영역별 키워드 구성과 지표(2012)	95
<표 3-24> 서울형 행복지표 체계	98
<표 3-25>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	99
<표 3-26> 경제행복지수	102
<표 3-27> 가계의 경제행복 지수	103
<표 4-1> 잭슨빌의 삶의 질 지표 개발과정	114
<표 4-2> 통계청 삶의 질에 관한 개념적 틀의 목표 및 내용	122
<표 4-3> 대전의 시정방향 및 미래지향	123
<표 4-4> 대전형 행복지수의 지표선정에 관한 개념적 틀	124
<표 4-5> 행복지수 관련 선행연구의 영역 비교	126
<표 4-6> 영역 구분	127
<표 4-7> 대전형 행복지표 구성안	128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절차 흐름도	8
[그림 3-1] 행복, 삶의 질, 웰빙 개념 측정의 발전 과정	28
[그림 3-2] OECD의 Wellbeing Framework	30
[그림 3-3] 행복 관련 기초 지수(국제)	32
[그림 3-4] 우리나라의 OECD(2016) Better Life Index 영역별 수준	36
[그림 3-5] OECD(2016) Better Life Index, 욕구 수준과 지역별 안녕 차이	38
[그림 3-6] UNDP의 Human Development Index	39
[그림 3-7] 최근 3년간 우리나라 UNDP의 Human Development Index 추이	41
[그림 3-8] 행복 중심 개발 지수(국제)	46
[그림 3-9] 부탄의 Gross National Happiness	47
[그림 3-10] 캐나다의 Canadian Index of Wellbeing	50
[그림 3-11] 일본의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54
[그림 3-12] 일본의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12Factors	55
[그림 3-13] 행복 관련 기초 지수(국내)	56
[그림 3-14] 행복 중심 개발 지수(국내)	82
[그림 3-15] 서울여성 행복지표의 행복 구성 요소(2012)	92
[그림 4-1] 행복의 의미 및 초점	109
[그림 4-2] 지표작성 과정 10단계	115
[그림 4-3] 대전형 행복지수의 개발과정	116
[그림 4-4] OECD How's Life?의 개념적 프레임	118
[그림 4-5] 영국의 국민웰빙의 개념적 틀	119
[그림 4-6] 네덜란드의 삶의 상황에 관한 개념적 틀(수정틀 2010)	120
[그림 4-7] 캐나다의 웰빙 만다라	121
[그림 4-7] 통계청의 삶의 질에 관한 개념적 틀	122
[그림 5-1] 행복지표 개발 및 개선 절차도	130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최근 사회적 목표는 전반적으로 경제발전에서 웰빙, 삶의 질, 행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이다. 경제성장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수단이자,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의 목적이 국민의 웰빙(행복)을 개선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웰빙 측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의 고도성장이 한계에 직면하고 경제성장이 사람들의 실질적인 웰빙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른바 이스털린 파라독스¹⁾ 현상이 목격되면서 실제 경험하고, 느끼는 행복감이 중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1C 전후 하여 GDP를 넘어선 시민의 삶의 영역, 웰빙을 측정하는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지역 차원에서도 웰빙 측정은 1990년대 전세계적으로 지역사회지표 운동으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삶의 중요한 조건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OECD 지역웰빙 측정에서 개인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이 결합되어 실제 웰빙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으로

1)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미국 경제사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이 1974년 주장한 개념이다. 그는 1946년부터 빈곤국과 부유한 국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국가 등 30개 국가의 행복도를 연구했는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도와 소득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현상을 발견했다. 그는 당시 논문을 통해 비누아투, 방글라데시와 같은 가난한 국가에서 오히려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행복지수가 낮다는 연구 결과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스털린의 역설 [Easterlin paradox]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프레임워크가 작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OECD 지역웰빙 측정에서 개인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이 결합되어 실제 웰빙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으로 프레임워크가 작성되어 있다. 또한 주민참여에 기반한 Bottom-Up 방식의 지표작성 및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전문가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닌 주민이 참여하는 지표 설정이 중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역사회지표 작성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이며, 이러한 경향에 힘입어 행복지표 개발 및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실제 행복지표를 개발하는 지자체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지역민의 행복증진을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설정하면서 지역민이 체감하는 행복의 여건 및 태도와 관련한 정보체계구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시민 행복에 관련된 적합한 자료와 정보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 진척사항을 평가하는데 필수적이므로 행복의 여건 및 태도에 대한 제반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지역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체계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와 통계를 수집하고 축적하며, 지표를 개발하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대전지역 또한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 라는 시정구호에서 나타나듯, 시민 행복 증진이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 행복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정의와 목표 설정 등을 위하여 행복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사회지표 통계치들을 집약하여 시민 행복의 상황과 실태를 보여주기 위한 자료집이 생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 행복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거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표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따라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행복 증진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표설정 및 관련통계자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지원체계가 먼저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정책 수립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관련지표 및 기초통계자료의 적시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환류 체계를 갖추기 위한 기초자료를 년도별로 제공할 필요성이 간절해지고 있다. 지역 내에 산재되거나 비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료와 통계를 체계적으로 축적, 대전 시민의 삶, 행복과 관련된 각 부문별 지표를 설정하여 관련 자료 및 통계가 정책에 환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차적으로 행복지표체계의 개발, 개발된 지표체계를 적용한 통계자료와 실태조사결과 분석, 정책환류체계의 개발 등의 논리적인 순서로 행복지표체계를 구축, 활용해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좀더 축약되고 명료한 지수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향으로 지표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 시민의 행복 여건과 주관적 행복도,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행복지표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대전 지역 시민의 행복과 관련된 사회통계 및 지표를 검토·분석하여 대전광역시민의 행복 여건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행복과 관련된 기존 통계 및 지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개선·보완하며 대전지역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로 대전시 행복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대전광역시 시민의 삶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삶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대전광역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정책적으로는 대전광역시 행복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의 성과를 진단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한 지표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적합한 대전형행복지표 개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행복지표의 정책적용과 개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행복지표 정의 및 연구범위가 설정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지표, 관련통계, 핵심지표, 행복지표, 행복지수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조사 및 자료 분석 범위를 설정하였다.

다음으로는 행복지표연구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선진사회 지표연구 및 활용 사례, 국내 및 활용사례를 검토하였다.

또한 지표체계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지표 개발모형을 탐색하여 제시하였으며, 연구방법 및 절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결국 대전시 행복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전 과정에 해당된다. 대전시 행복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지역단위 행복지표 개발 및 활용의 필요성을 제안한 후, 지표개발 연구절차 및 방법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한편, 전문가 조사결과에 따른 영역 및 구성체계를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대전시 행복지표의 선정기준을 확정하여 선정기준 및 과제를 제안하기로 한다.

분석의 범위는 행복 지표의 관련부문을 세분화한 후 등 개 부문으로 영역화 하였으며, 각 부문은 다시 하위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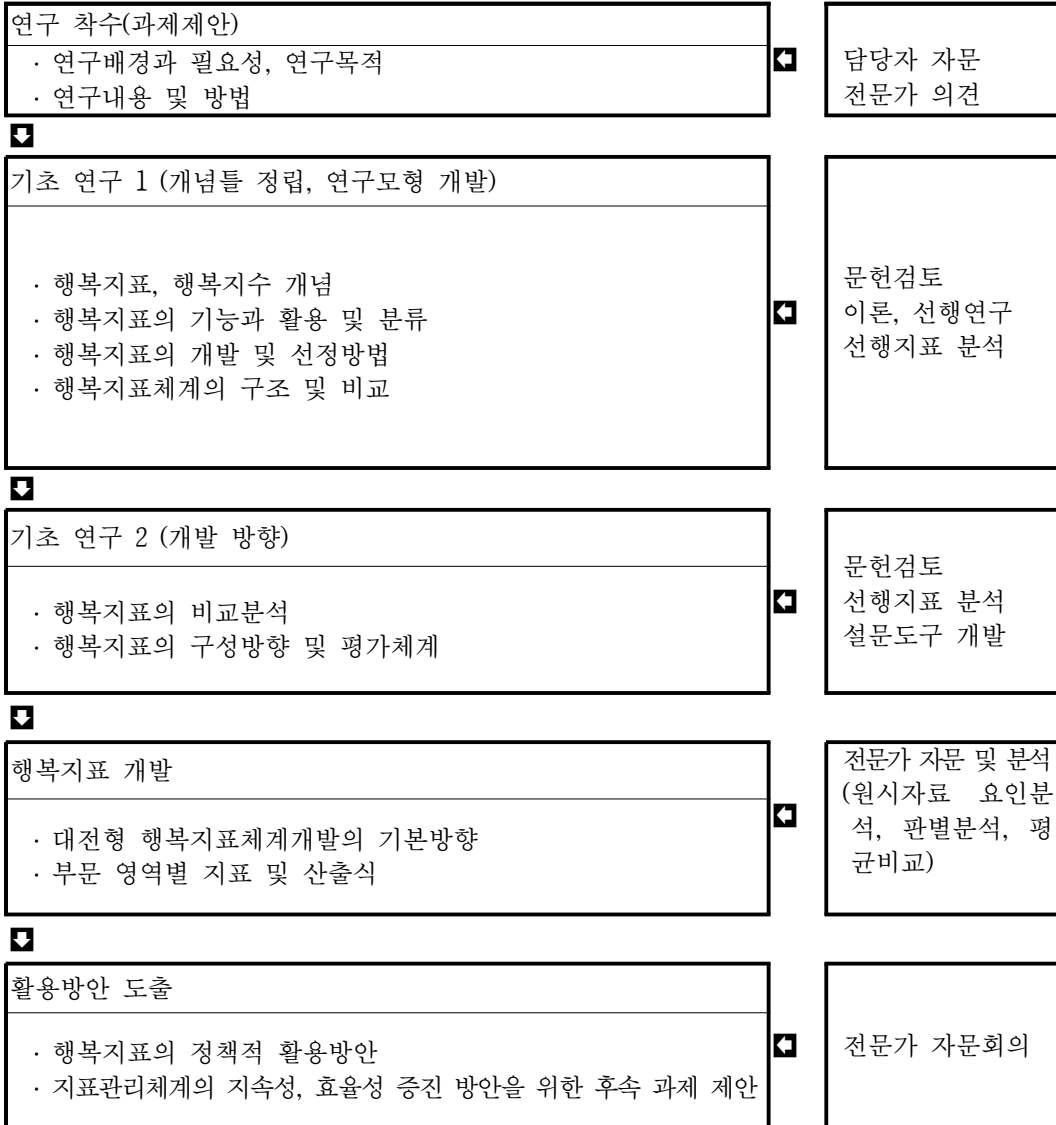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하여 관련이론을 검토하고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연구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국내 및 국외에서 제시된 지표체계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기초가 되는 통계와 부문별 기초지표를 나열한 후 이들 중 지역 행복지위와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요한 통계를 대상 지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행복지표 설정 기준의 구체화, 모형의 과학적 개발, 활용방법의 제안, 관리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기존 관련지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현재의 자료와 기존 통계자료와의 상호 비교 분석 및 종단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추세를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에는 각 분야의 연구자 대상 E-mail을 통한 전문가 조사(Delphi)를 수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제시된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림 1-1] 연구절차 흐름도

제 2 장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

.....

제1절 행복지수의 개념과 이론

제2절 행복지수의 기능과 활용

.....

제2장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

제1절 행복의 개념과 이론

1. 행복의 개념

행복이라는 말은 우리말의 고유 어휘가 아니라 영어 단어 ‘happiness’를 일본인들이 번역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전해진다(김미곤·여유진·김태완·정해식·우선희·김성아, 2014). 따라서 먼저 영어에서 ‘happiness’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어에서 “happy”라는 말은 스칸디나비아 말 “happ”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 말은 행운을 의미한다(고승희·홍성효 외, 2012: 5).

이처럼 행복을 행운, 즉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외적 조건에 의해 주어지는 좋은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용법은 비단 스칸디나비아에서뿐만 아니라 전통시대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널리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자 문화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복(福)도 행운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행복의 용법은 오늘날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고, 그 대신 행복은 인간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인간사회 내부의 좋은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행복이 “복된 좋은 운수” 및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대에 와서 행운의 의미로서의 행복은 자주 쓰이지 않게 되었지만, 여전히 행복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빈호벤(Paul Veenhoven)은 삶의 질(quality of life) 또는 행복을 ‘삶의 환경적 조건’ (livability of environment), ‘삶의 효용’ (utility of life), ‘개인의 생활능력’ (life-ability of the person), ‘삶에 대한 만

족’ (satisfaction with life)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 모두가 행복이라고 지칭되지만, 내적 삶의 결과에 해당하는 ‘삶에 대한 만족’을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이라 할 수 있다고 보았다(<그림 2-1> 참조). 또한 그는 만족을 일시적인 기쁨 (pleasure), 순간적인 황홀(top-experiences), 부분적 삶에 대한 만족 (part-satisfaction), 일생 전체에 대한 지속적 만족(life-satisfaction) 등으로 구분하고, 네 번째 마지막 유형, 즉 일생 전체에 대한 지속적 만족이 행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았다(Veenhoven, 2006: 3-5).

빈호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행복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행복이 ‘주관적 안녕’ (subjective well-being)과 관련된 것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Wikipedia에서도 행복을 만족감에서부터 강렬한 기쁨에 이르는 긍정적이거나 즐거운 감정으로 정의될 수 있는, 정신적·정서적 안녕 상태(mental and emotional state of well-being)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과학자들의 행복 논의에서 일관성 있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의 중요성이라 할 수 있다. 빈호벤에 따르면, “행복은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을 그가 얼마나 좋아하는가, 보다 형식적으로 표현한다면 행복은 한 사람이 전체로서의 자신의 삶(one’s life as-a-whole)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이다” (Veenhoven, 2006). 최인철(2013)은 행복의 개념에 준하는 것으로서 정신의 맑은 상태와 물질적 만족 상태를 종합하여 ‘쾌족(快足)’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서도 주관적인 만족의 요소는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특별한 단서가 없는 한 행복은 ‘주관적 안녕’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표 2-1> 네 가지 삶의 질

	외적 질(Outer Qualities)	내적 질(Inner Qualities)
삶의 기회(Life-Chances)	삶의 환경적 조건 (Livability of Environment)	개인의 생활 능력 (Life-ability of the Person)
삶의 결과(Life-Results)	삶의 효용 (Utility of Life)	삶에 대한 만족 (Satisfaction with Life)

출처: Veenhoven(2006): 3

이러한 주관적 만족의 강조는 개인의 삶의 기회(life chances)와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주로 객관적인 조건 그 중에서도 주로 물질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온 종래의 이론적 관점과는 대립된다. 결국 새로운 관점은 국내총생산(GDP)의 성장으로 표상되는 물질적 조건의 향상이 반드시 삶에 대한 만족감의 증가를 가져 오지 않으며, 같은 수준의 물질적 조건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감은 상당히 다를 수 있음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종전의 연구에서는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은 객관적인 물질적 조건의 단순한 ‘반영’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의 물질적 조건에 대한 탐구만으로도 삶에 대한 만족감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새로운 행복 논의에서는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은 객관적인 물질적 조건과는 다른, 또는 그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적인 연구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사회과학자들 다수가 행복을 주관적 안녕의 문맥에서 보고자 하지만, 주관적 만족과 함께 객관적인 조건을 함께 보고자 하는 시도들도 없지는 않다. 행복 정의에 있어서 주관적 요소를 강조하는 이들은 객관적 조건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행복 그 자체가 아님을 강조하는 반면에 객관적 요소를 결들이고자 하는 이들은 주관적인 느낌과 평가가 갖고 있는 일시성, 가변성, 무상성 등에 주목을 하고 있다. 주관적 만족과 함께 객관적 조건을 행복의 요소로서 강조하는 입장은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의 구성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2. 행복의 이론

1) 행복의 본질에 관한 이론

(1) 쾌락이론(hedonism theory)²⁾

쾌락이론은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의 공리주의(utilitarianism) 철학에 뿌리

2) 쾌락이론, 욕구이론, 객관적 목록이론의 구분과 그에 대한 설명은 Seligman과 Royzman의 논문(2003)을 참조하였음. 이들은 이 세 이론을 전통적 행복이론이라 불렀다.

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행복은 무엇보다도 주관적인 느낌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또한 즐거움은 모든 선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행복한 삶은 즐거움이 극대화되고 고통이 최소화된 삶이라고 본다. 2002년 전망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카네만(Danny Kahneman)이 바로 쾌락이론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쾌락이론이 갖고 있는 한계는 한 개인이 순간순간 경험하는 쾌락의 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 개인의 일생에 대한 회고적 평가로서의 행복한 삶은 이러한 쾌락의 합과는 별개라는 점이다.

(2)욕구이론(desire theory)

이 이론은 행복이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본다. 물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 대체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보다는 즐거움을 준다는 점에서 욕구이론은 쾌락이론을 포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이론도 욕구의 충족이 반드시 행복의 증진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수집광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많이 모았다고 할 때, 욕구는 충족되지만, 이것이 반드시 그의 생활을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3)객관적 목록 이론(objective list theory)

이 이론은 행복을 개인의 주관적 느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의 성취로 설명하고자 한다. 대체로 가치 있는 것들을 목록화하고 그것들을 많이 성취할수록 행복은 증진된다고 본다. 예컨대, 목록에는 직업 영역에서의 성공, 우정, 질병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물질적 안락, 시민 정신, 외모, 교육, 사랑, 지식, 양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이론은 한편으로 쾌락이론과 욕구이론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주관적 욕구와 느낌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4)진정한 행복 이론(authentic happiness)과 안녕 이론(well-being theory)

미국심리학회 회장을 지냈고 긍정 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의 아버지라 지칭되

는 마틴 셀리그먼(Martin Seligman)은 행복에 관한 이론 구성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2002년에 출판된 『진정한 행복』(Authentic Happiness)에서 행복의 세 가지 지향 또는 행복의 세 가지 종류를 말했다. 그것은 긍정적 감정의 극대화과 부정적 감정의 극소화를 뜻하는 즐거움(pleasure), 자신을 무아경의 몰입상태에 있게 만드는 활동에 대한 참여(engagement), 자아보다 큰 어떤 것(가족, 공동체, 국가 등의 집단이나 이념)에 봉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의미(meaning)이다. 이것을 진정한 행복 이론 또는 세 가지 행복 지향 이론이라 할 수 있다.

2011년에 이르러 셀리그먼은 자신의 이론, 즉 행복에 대한 세 가지 지향에 대한 이론을 스스로 비판하면서 새로운 행복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였다(Seligman, 2011). 그가 자신의 종전 이론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지나치게 삶에 대한 만족(life satisfaction)을 중심으로 행복을 바라본다는 점이었다. 삶에 대한 만족은 상당 수준 기분에 의존할 수도 있는데, 진정한 행복은 이러한 감정적 요소를 넘어서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맥락에서 셀리그먼이 대안으로 새롭게 제안한 것이 FERMA이론 또는 안녕 이론(well-being theory)이다. 이 이론은 초기 이론에서 자신이 강조했던 행복의 요인 세 가지에 두 가지 요인을 추가하여 5개 요인을 강조한다. 그 다섯 가지는 즐거움(Pleasure), 참여(Engagement), 관계(Relationships), 의미(Meaning) 및 성취(Accomplishment)이다. 이를 줄여서 PERMA라고 한다.

2) 행복의 결정 요소에 관한 이론

(1)고정 이론³⁾

고정이론(Set-point Theory of Happiness)은 인간은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와 무관하게 미리 정해진 일정 수준의 행복을 경험하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이론적 입장과 가장 유사한 주장을 종교에서 찾는다면, 기독교의 예정설(Divine predestination)을 들 수 있다. 행복의 결정과 관련해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의

3) 고정이론, 인지 이론 및 정서이론의 구분과 그에 대한 설명은 Veenhoven(2006)을 참조하였음

일부는 유전적 성향에 주목한다. 인생을 즐길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타고난 성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행복의 결정 요소로서 인성의 특성(personality trait)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결국 이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적 관점이 사람들의 행복 추구의 수준과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이 부류에 속한다.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비슷한 인생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의 정도도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2)인지 이론

인지 이론(Cognitive Theory of Happiness)은 행복 여부가 인간이 갖고 있는 인지 과정, 즉 사고 과정의 산물이라고 본다. 이러한 인지 과정의 예로는 비교, 사회적 구성, 성찰적 평가 등이 있다.

비교를 강조하는 이론은 인간은 대체로 바람직한 삶에 대한 일종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삶을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평가한다고 본다. 이론가에 따라 강조하는 기준은 서로 다르다. ‘생애 비교’ (life-time comparison)를 강조하는 이론가들은 사람들이 주로 자기의 과거 삶과 비교해서 현재의 삶을 평가한다고 본다. 이들과 달리 ‘사회적 비교’ (social comparison)를 강조하는 이론가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평가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양한 평가 기준을 결합시킨 이론이 ‘행복에 관한 다중괴리이론’ (Multiple Discrepancies Theory of Happiness)이다(Michalos, 1985).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을 강조하는 이론가들은 앞에서 언급한 비교의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집합적으로 어떤 생활이 행복한 삶인가를 규정하는 과정이 곧 사회적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구성 과정에는 문화와 역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성찰적 평가(Reflected appraisal)는 타인의 관점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3) 정서 이론

정서 이론(Affective Theory of Happiness)은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다고 느끼는가를 반영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 부류에 속하는 이론가들은 정서의 빈도, 정보제공자로서의 기분, 욕구의 충족, 행동 동기 등의 요소를 강조한다. 정서의 빈도(Frequency of Affect)를 중시하는 이론가들은 부정적 정서에 대비한 긍정적 정서의 빈도가 삶에 대한 평가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평생 동안 가장 강하게 느낌을 준 사건도 삶의 평가에서 중요하지만, 이러한 빈도의 상대적 비교도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본다.

정보제공자로서의 기분(Mood as Informant)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행복을 알아보는 데는 위에서 살펴본 빈도를 통해서 정서적 균형을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정서 상태, 즉 분위기를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 간의 균형은 이미 자동적으로 분위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분위기만 관찰하더라도 행복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분위기는 특정 사안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정서 상태를 알려주는 메타-신호(Meta signal)의 구실을 할 수 있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욕구의 충족을 중시하는 이론가들도 있다. 욕구는 생존에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에 욕구 충족과 정서의 상태는 상호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욕구의 충족이 적정 수준으로 이루어지면 긍정적 정서가 나타나고 그렇지 못하면, 거꾸로 부정적인 정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행동 동기(Motivation to Act)를 강조하는 이론가들은 긍정적인 기분과 부정적인 분위기가 행동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긍정적인 기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하도록 추켜세워지는 반면에 부정적인 기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행동을 조심하게 만든다.

3. 행복 지수와 행복 지표

오늘날 많은 국제기구, 개별 국가 및 지방정부가 행복을 사회발전의 목표로 설정함에 따라, 국민 또는 주민의 행복 상태를 횡적으로 비교하고 시계열적으로 고찰하

기 위해 행복의 수준을 수치적으로 표현한 행복지수(happiness index)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행복지수는 특정 시점에서 한 사회 또는 지역사회의 행복 상태, 또는 행복의 수준을 요약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측정 도구 또는 측정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행복지수는 대체로 하나의 수식 또는 수치로 표현되며,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의 값을 종합한 것이다. 이 때 영역별로 또는 지표별로 가중치를 달리 부여하여 종합하는 경우도 있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 또는 그 값을 행복 지표(happiness indicators)라 할 수 있다.

행복지수의 구성 방식은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영역 또는 지표 간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전자의 사례로 캐나다의 웰빙지수(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지역사회 활력(Community vitality), 민주적 참여, 교육, 환경, 건강한 인구, 여가와 문화, 생활수준, 시간 이용 등 8개로 구분된 영역(domains)을 설정하고, 각각의 영역마다 다시 8개씩의 지표를 설정하였다. 예컨대, 지역사회 활력의 영역에는 조직화된 활동 참여 비율, 6명 또는 그 이상의 가까운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인구 100,000명당 재산 범죄 비율, 인구 100,000명당 폭력 범죄 비율, 야간 보행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비율,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타인에게 무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의 비율, 지역사회에 대한 다소 강하거나 아주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 등의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캐나다 웰빙지수는 8개 영역에 걸친 6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된 64개 지표 값의 평균치가 웰빙지수가 된다.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는 가중치를 부여한 사례이다. 부탄(Bhutan)의 국민총행복지수의 경우에도 지수는 단일 수치로 산출된다. 부탄의 경우에는 먼저 생활수준, 교육, 건강, 환경, 활력 있는 공동체(community Vitality), 시간 이용,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 좋은 통치, 문화적 다양성과 복원력 등 9개 영역을 설정한 후, 각 영역별로 2~4개의 지표를 할당하여 지표의 총수는 33개가 된다. 캐나다의 경우와 다른 점은 부탄에서는 지표별로 가중치를 달리한다는 점이다. 부탄에서는 영역별 가중치는 설정하지 않지만, 각 영역 내에서

지표 간에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고 있다(<표 2-2> 참조).

<표 2-2> 부탄의 GNH의 영역별 지표와 그 가중치

영역	지표	지표별 가중치
심리적 안녕	삶에 대한 만족	1/3
	긍정적 감정	1/6
	부정적 감정	1/6
	영성	1/3
건강	스스로 보고한 건강 상태	1/10
	건강한 날의 수	3/10
	장애	3/10
	정신 건강	3/10
시간 사용	일	1/2
	수면	1/2
교육	문자해득	3/10
	학교 교육	3/10
	지식	1/5
	가치	1/5
문화적 다양성과 복원력	예술적 기능	3/10
	문화 참여	3/10
	모국어 사용	1/5
	행동 방식 숙지	1/5
좋은 통치	정치 참여	2/5
	서비스	2/5
	통치 실적	1/10
	기본권	1/10
지역사회 활력	기부(시간과 돈)	3/10
	안전	3/10

영역	지표	지표별 가중치
	지역사회 관계	1/5
	가족	1/5
생태적 다양성과 복원력	야생생물 훼손	2/5
	도시 문제	2/5
	환경에 대한 책임	1/10
	가족	1/10
생활 수준	소득	1/3
	자산	1/3
	주택	1/3

출처: file:///C:/Users/jmpa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Y5TD7LIX/Summaryof2015GNHIndex.pdf

4. 대전형 행복 지수

최근 대전을 비롯한 많은 광역자치단체들과 기초자치단체들이 ‘행복’을 지역의 발전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민선 6기에 와서 대전광역시도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를 시정(施政) 구호로 내걸면서 ‘행복의 정치’를 펴고 있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행복을 지역사회 발전의 최고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한 지자체는 아직 많지 않다. 특히 주민의 행복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수 구축을 위한 연구는 서울, 충남, 경남 등 소수의 시도연구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고승희·홍성효 외, 2012; 고승희 외, 2013; 이수철·고승희·최병학, 2014; 변미리, 2013; 2015; 2015; 김동영·이중섭·이지훈, 2016; 김영순, 2010).

지자체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행복지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행복은 보편적으로 추구되는 삶의 목표이지만, 행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발전의 단계, 문화적·종교적 맥락, 지역사회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형 행복지수는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행복지수라고 할 수 있다. 대전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은

결국 대전 시민의 행복관(幸福觀)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전형 행복 지수의 개발 과정에는 주민들이 무엇을 행복이라고 규정하는가, 무엇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 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매기고 있는가를 파악해내는 일이 중요하다.

제2절 행복지수의 기능과 활용

1. 행복지수의 기능

1) 행복 상태의 기술

행복지수의 첫 번째 기능은 특정 시점에서 특정 사회의 행복 상태(삶에 대한 만족의 수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UN에서 2012년 이후 발표하고 있는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는 전 지구적 수준, 지역(세계를 10개 지역으로 구분한 지역) 및 각 국가의 행복 상태를 볼 수 있게 해준다. 특히 각 국가의 행복 상태는 10점 만점 척도 상의 점수로 나타내주고 있다.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측정된 행복지수는 곧 한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행복에 대한 진단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진단은 자연스럽게 정부 또는 지자체로 하여금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촉진한다.

2) 행복 상태의 비교

행복지수는 한 국가 또는 지역의 행복 상태를 하나의 지수로 요약하여 표현함으로써 행복의 상태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전 세계 수준의 행복지수 측정은 국가 간 비교를 가능케 하고, 전국 수준의 측정은 지역 간(도시 간) 비교를 가능케 해줌으로써 각 정부 또는 지자체가 행복도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세계행복보고서 2016』(World Happiness Report 2016)은 세계 157개국의 지수와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OECD의 “보다 나은 삶 지표”(Better Life Index) 역시 주택, 소득, 일자리,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 참여, 건강, 생활 만족, 안전, 일-생활 균형 등 11개 부문에서 회원국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3) 행복의 추세의 파악: 시계열 비교

행복지수는 다년간에 걸쳐 축적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종단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국가 또는 지역 수준에서 행복의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2. 행복지수의 활용

최근 중앙정부는 물론 많은 지자체들이 행복을 정책의 키워드로 활용하고 있다. 민선 6기에 와서 시정 구호를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 로 정한 대전광역시도 물론 시 소속 일부 자치구에서도 행복 증진을 시책 추진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기관이 주관한 행사에서는 우리나라의 “37개 기초·광역 지방정부가 정책의 목표를 ‘행복’으로 전환하겠다는 ‘시민행복공동체 선언문’을 공동 채택” 한 바 있다(한겨레신문, 2016년 11월 25일자).

많은 지자체들이 행복을 정책의 키워드로 내걸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은 제자리걸음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일찍 ‘행복’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던 몇몇 지자체들이 있지만, 이들 지자체들도 행복 증진을 위한 특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행복’은 담론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정책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행복 담론도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서 국가, 지역사회 및 개인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으로의 사회 변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 또는 주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행복지수의 구성과 과학적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행복 증진 정책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서서 정책 방향 설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지수의 구성이 시민의 합의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행복지수의 구성은 곧 행복의 영역을 설정하고 각 영역 별로 지표를 선정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에서 행복이 사회적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또한 행복지수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누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할 때 정책 담당자들이 행복 증진에 필요한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행복지수의 국내외 사례 동향

.....
제1절 국외 연구 및 활용 동향

제2절 국내 연구 및 활용 동향

제3절 시사점
.....

제 3 장 행복지수의 국내외 사례 동향

제1절 국외 연구 및 활용 동향

1. 행복 관련 지수

1) 개요

전 세계적으로 행복지수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측정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행복이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상태와 상황을 종합적,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더 나은 삶과 사회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척도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행복지수 역시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의 발달 단계의 흐름 속에서 기존 사회지표의 한계와 유의미한 요인이 반영되고 새롭게 개발된 주관적, 개관적인 영역, 지표들의 수치나 종합적인 지수 등으로 측정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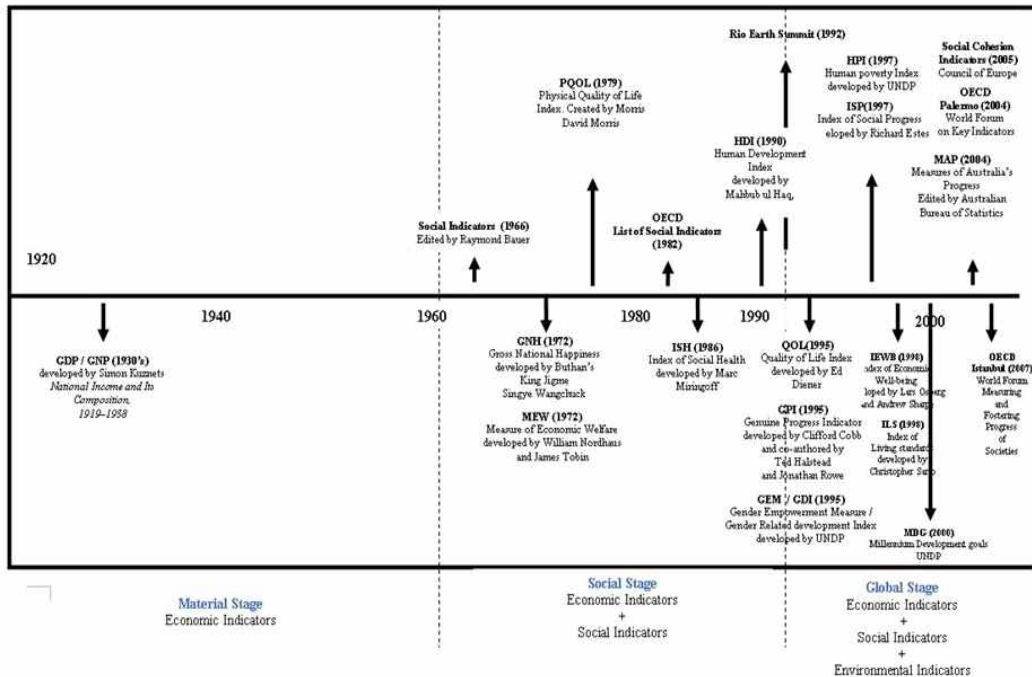
사회지표는 다음의 [그림 3-1] 과 같이 크게 물질적인 단계(material stage), 사회적인 단계(social stage), 지구적인 단계(global stage)로 발전되어 왔다.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질적 단계(material stage)는 물질적 기준으로 삶의 질과 사회발전을 측정하는 1930년대에서부터 1960년대 이전 시기이며, 경제성장이 국민 복지의 증진을 가져온다는 시대정신과 GDP가 대표적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대공황 이후 빈곤, 범죄, 환경 등의 경제성장의 사회적 비용과 회의론이 대두되면서 기존 GDP 중심의 경제지표에서 나아가 전체 사회의 발달을 목표로 하는 ‘삶의 질’의 개념이 부상하게 되었다. 사회적 단계(social stage)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로 경제체표 이외의 사회지표가 등장하고 복지와 웰빙에 대한 관심으로 삶의 질 개념이 부각된 시기를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와 같이 객관

4) 심수진·이희길·박주언(2013), 지역사회 지표 개발 매뉴얼,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3년 상반기 연구 보고서

적 생활조건은 정부부처의 통계를 활용하고, 주관적 지표는 국민들의 주관적 인지 및 평가를 조사하는 ‘사회조사’가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지구적 단계(global stage)는 1990년대 이후에 등장하였으며, 경제 및 사회지표와 함께 환경 차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을 주목하는 지표이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삶의 질’ 개념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접근을 갖고 있다는 비판 하에 ‘사회의 질’을 수용하여 개인의 소득, 건강, 주거환경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속한 사회의 질, 즉 사회통합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지표의 발달단계와 행복과 관련된 다양한 국외 지표들의 궤적에 대한 흐름을 볼 때 행복의 개념과 측정은 일부분 삶의 질과 웰빙으로 대체되거나 공유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 행복, 삶의 질, 웰빙(Well-being) 개념 측정의 발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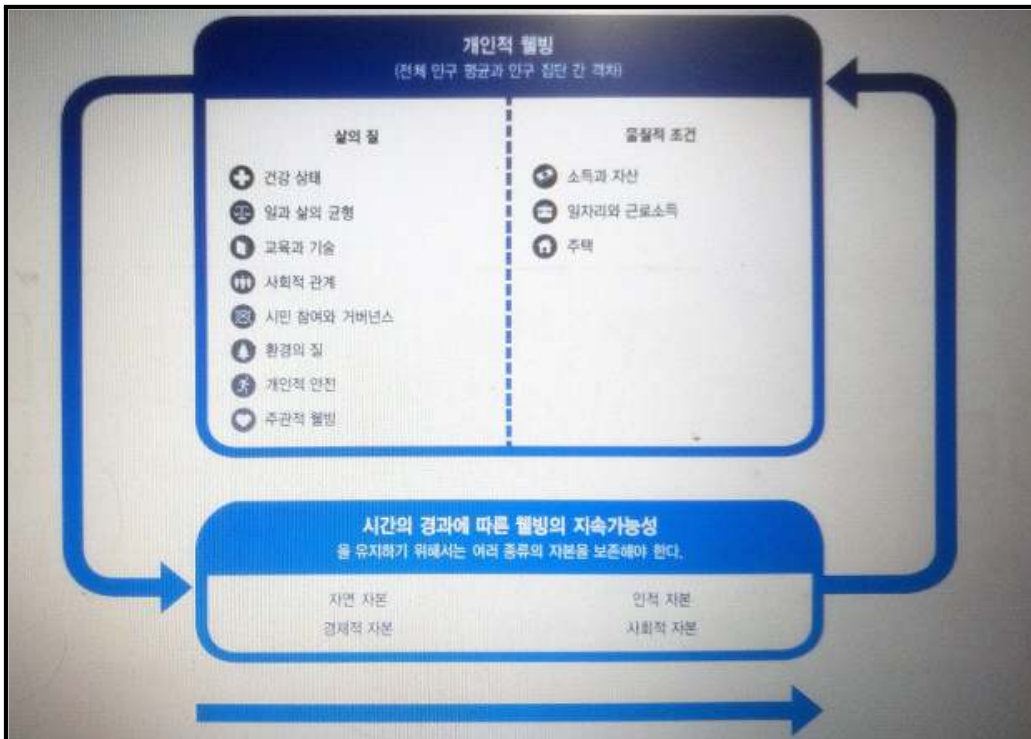
자료 : 김지경·하현주·김옥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 지역사회 진단·분석」 (2014), p.35에서 재인용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자 행복의 중요한 측면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지금까지도 많은 개인과 사회, 국가의 핵심적인 목표로 강조되어 왔다. 그 가운데 삶의 질의 개념은 삶의 양(Quantity of Life)에 의해서 대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GDP로 대변되는 물질적인 삶의 조건이라는 개념으로 합의되고 있다. 이러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1950-60년대 이후 경제적 결핍에서 벗어난 인간의 값진 삶(virtuous life)과 좋은 삶(good life), 그리고 행복한 삶(happy life)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다양한 삶의 포괄적인 특성을 지닌 만큼 모호성을 지닌 삶의 질은 측정 내용에 따라서 삶의 질, 복지, 행복, 주관적 웰빙, 주관적 만족감 등으로 불리며 혼용되고 있다. 이중 삶의 질, 복지, 웰빙의 개념은 비교적 객관적인 조건을 강조하는 반면 주관적 웰빙, 만족도, 행복은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절충주의 경향이 부각되고 있다. 동시에 삶의 질은 사회구성원의 개인의 삶의 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질(societal quality)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개인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평등, 자유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나 복지 배분과 같은 개념이 강조되면서 사회응집력이나 유대감, 지속가능성과 같은 사회의 질적 차원도 주목하고 있다(한준 외, 2011). 이 때문에 행복에 대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측정 역시 다양한 객관적/주관적 영역, 개인적/사회적 영역과 지표로 개발·적용되어 왔다.

웰빙 역시 다양하게 조망되고 있다. 웰빙을 위한 유일한 비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웰빙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에 대한 합의는 증가하고 있다. 즉, 사람들의 웰빙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웰빙은 삶의 여러 측면에 걸쳐 있고 다차원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OECD, 2016). 대표적으로 OECD(2016)의 웰빙 준거틀을 살펴보면 <그림 3-2>와 같이 웰빙은 크게 물질적 조건(소득과 자산, 일자리와 근로소득, 주택)과 삶의 질(건강 상태, 일과 삶의 균형, 교육과 기술, 사회적 관계,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적 안전, 주관적 웰빙)이라는 두 개의 큰 주제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웰빙에 대한 구조는 자연자본, 인적자본, 경제적 자본, 사회적 자본 등 현재

측정이 가능하며 시간이 지나도 웰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원 또는 자본의 총량을 고려함으로써 당면한 현재의 웰빙 그 이상도 보고 있다. 이러한 웰빙의 핵심은 “평균을 초월해서 보는 것(going beyond the average)”이며, 이는 삶이 국가나 지역사회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의 여부 뿐만 아니라 개선의 대상 즉, 남성과 여성, 장년층과 청소년층, 고소득집단과 저소득집단, 교육수준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누구를 위해서 변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⁵⁾

(그림 3-2) OECD의 Wellbeing Framework



자료 : OECD-OECD 대한민국 정책 센터(2016), How's Life? 2015 웰빙의 측정

5) OECD-OECD 대한민국 정책 센터(2016), How's Life? 2015 웰빙의 측정, p.1

반면, 국가 간 사회, 정신, 종교, 정치적인 가치나 태도 등을 중심으로 조사된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결과를 활용하여 행복의 측면을 측정·비교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가치관조사는 1980년부터 약 100여개 국가에서 약 5년 주기로 국가별 최소 1,000명 이상의 표본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조사 내용은 주로 개인의 가치관이나 태도에 대한 내용이 일상생활, 가족, 정치, 환경태도, 과학기술, 공동체, 사회안전, 일, 종교 등의 영역을 묻고 있으나 조사 시기나 기관 등의 차이로 조사 방법의 질이나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한계는 존재한다.⁶⁾ 제한적인 결과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행복과 관련된 문항이 일상생활 부문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인구 집단의 공통적인 행복의 영역과 지표의 다양성 차원에서 참고할만한 부분이다. 구체적인 지표의 내용은 <표 3-1>과 같다.

<표 3-1> World Value Survey의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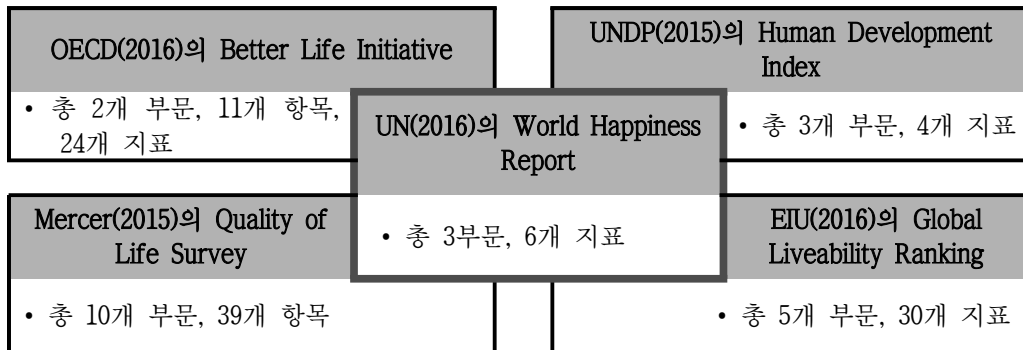
부문	지표
일상생활	항목별 중요도(가정/친구/여가/정치/직장/종교),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경제상태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 삶에 대한 자율성, 주관적 계층의식
가족	부모와 자식 간의 태도, 부모의 의무, 자녀의 가정교육 항목, 혼인상태, 자녀 여부
정치	정치 관심도, 정치적 행동 여부, 정치 방향, 통치방법에 대한 가치관, 민주주의 발전방식에 대한 만족도,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세계와 국가 간 문제, 정당의 선호도, 정치성향(좌파, 우파), 선거 여부 등
환경	환경과 경제성장 태도, 환경운동 참여여부
과학기술	과학과 기술에 대한 태도, 정보이용수단, 컴퓨터 이용 등
공동체	사람들에 대한 신뢰, 집단별(가족, 이웃, 아는 사람, 타종교인 등) 신뢰 정도, 조직/단체에 대한 신뢰, 희망하는 이웃, 국가에 대한 자부심, 노인에 대한 사회의 태도, 사회단체 참여여부
사회안전	범죄피해,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 전쟁에 대한 태도 등
일	여성과 일에 대한 태도, 일자리 평등, 근무시간, 선호하는 일 종류, 일에 대한 태도 등
종교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생각, 종교 여부, 종교활동 참여 정도, 신의 중요도, 종교 행위 여부, 신에 대한 태도 등

자료 : 심수진·박주언·이희길(2013), 사회조사 항목개발: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통계개발원

6) 심수진·박주언·이희길(2013), 사회조사 항목개발: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통계개발원

개인의 안전, 대기 오염, 고용 기회, 서비스 접근성 등 사람들의 삶의 질과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의해서 기본적인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삶의 질과 물질적 조건 측면에서의 국가 내 격차는 국가 간 격차만큼 클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 시각에서의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OECD, 2016). 이에 근거해 대전형 행복지수 구축을 위해서 선행 행복 지수 기초 개념과 개발 사례에 대한 국제기구 또는 국제 간 비교, 국가 단위, 지역사회 단위의 공통적인 행복지수의 영역과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행복 지수와 관련된 기초 지수와 행복 중심 개발 지수 등에 사례 분석이 중요하다. 그 가운데 먼저 국제 수준의 행복 기초 사례 검토는 [그림 3-3] 과 같이 총 5개의 사례의 행복 관련 부문, 항목, 지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3] 행복 관련 기초 지수(국제)



2) 세부 내용

(1) OECD(2016)의 Better Life Initiative⁷⁾

OECD에서는 2011년 창설 50주년을 맞이하여 GDP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에 주목하면서 행복과 사회 진보의 측정을 우선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OECD Better Life Initiative’를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정기적인 ‘How’s Life?’ 보고서를 2년마다 발간하고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를 공표하고 있다. ‘How’s Life?’ 보고서는 삶의 질 지수를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OECD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국제적 수준의 행복도 지표군이자 국제적인 수준으로 최초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는 인터넷 기반을 통하여 지수의 최종 이용자이자 수혜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양방향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6년 5월 31일 OECD에서 발표한 지수의 영역은 크게 물질적인 삶의 조건과 삶의 질의 2개 부문 11개 항목, 24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물질적인 조건에는 소득과 자산, 고용과 임금, 주거의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며 삶의 질 영역은 건강 상태, 일과 삶 균형, 교육, 공동체, 사회참여와 정치, 환경의 질, 안전, 주관적 행복의 8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2016년 조사 결과 총 38개국 중 노르웨이, 호주, 덴마크, 스위스, 캐나다가 상위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8위로 조사되었으며,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표 3-2>와 같다.

7)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http://oecd.mofa.go.kr>), 2016년 OECD Better Life Index 주요 내용 OECD Better Life Initiative(2016), How’s Life in Korea?

<표 3-2> OECD(2016)의 How' s Life?의 지표와 우리나라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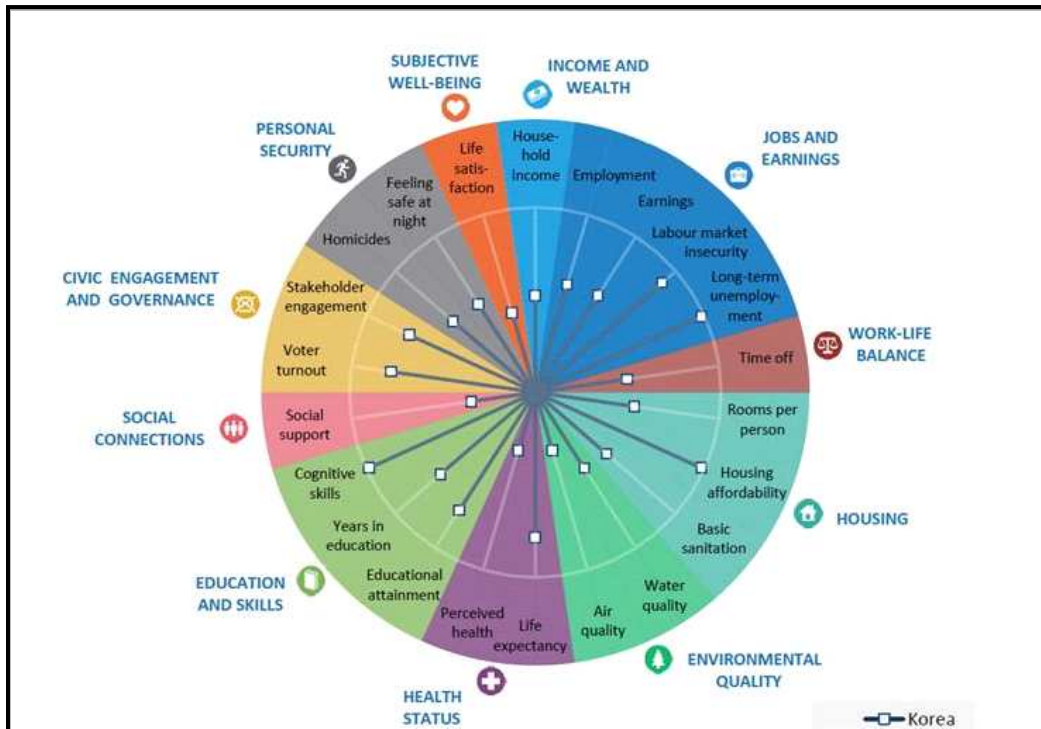
영역	차원 (종합 순위)	세부지표	정의	부분 순위
물질적 삶의 조건	소득 (24위/38개국)	가계 순가처분 소득	직접세 및 사회보장분담금, 감가상각 비를 제외한 가계의 임금, 재산 및 임 료 소득 등 순가처분소득	24위
		가계 금융 자산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계기준 가계 보 유 금융자산(현금, 채권 및 주식 등)	20위
	고용 (17위/38개국)	고용률	근로가능연령인구(15-64세)에서 임 금을 지급받는 일자리에 고용(1시간 이 상)된 인구의 비율	23위
		개인 소득	정규근로자의 연평균 소득	19위
		직업 안정성	전년도에 고용된 사람 중에서 다음 년도에 실업자가 된 사람의 전년도 고용자수 대비 비율	5위
		장기 실업률	노동인력에서 1년 이상 실업상태(취업 의사가 있고 구직활동을 함)에 있는 사람의 비율	1위
	주거 (17위/38개국)	1인당 방 개수	주택의 방수를 거주 인원으로서 나누어 서 산출	24위
		주거 관련 지출비용	주거관련 가계의 최종소비 지출 및 수선유지비용의 합이 가계의 순가처 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2위
		기본 위생설비가 있는 가구	단독으로 사용하는 실내 수세식화장 실 보유 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 하는 비율	27위

영역	차원 (종합순위)	세부지표	정의	부분 순위
삶의 질	일과 삶의 균형 (36위/38개국)	장시간의 근로자	주 50시간 이상 근무한 임금근로자의 비율(자영업자 제외)	36위
		여가와 개인적 돌봄 시간	통상적인 날에 여가 및 개인적인 돌 봄(수면 및 식사 포함)에 사용한 시간	27위
	건강 상태 (35위/38개국)	기대수명	현재의 사망률에 근거한 평균적인 기 대 수명	12위
		주관적으로 지각한 건강 상태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한 비율	38위
	교육 (6위/38개국)	교육 성취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을 보유한 성인(15-64세)의 비율	15위
		기대 교육 기간	5살 어린이가 39세까지 공식교육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기간	18위
		학생들의 역량	독해, 수학 및 과학에 관한 PISA 평가 점수	1위
	공동체 (37위/38개국)	지각된 사회체계망의 질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또는 이웃이 있 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37위
	시민참여 (10위/38개국)	규칙 제정에의 참여	법과 하위 규정 도입시 이해당사자의 공식적 참여 수준	14위
		투표율	선거에 참여한 인구 비율(선거등록 인 구 대비)	12위
	환경 (37위/38개국)	수질	살고 있는 지역의 수질에 대해 만족 한다는 응답자 비율	26위
		대기 오염	인구 10만명 이상 대도시의 큐빅 미 터당 미세먼지 농도	38위
	안전 (21위/38개국)	살인율	인구 10만명당 경찰에 신고된 피살자 수	21위
		야간 보행 안전도	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	22위
	삶의 만족도 (31위/38개국)	삶의 만족도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0-10까지의 평균값	31위

자료 :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http://oecd.mofa.go.kr>), 2016년 OECD Better Life Index 주요 내용

2016년 우리나라 웰빙의 각 영역 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한 결과는 [그림 3-4] 와 같다. 주관적 차원에서 행복과 가장 유사한 영역인 주관적 만족이 전체 38 개국 가운데 31위로 나타났으며, OECD 평균 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안녕 수준의 강약 수준을 실선의 길이로 표현한 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장기실업 률, 주거비용, 인지적 기술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노동시장 불안 정성, 정책결정 참여, 투표 참여, 기대 수명, 교육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주 관적으로 지각된 건강과 공기의 질, 사회적 지지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우리나라의 OECD(2016) Better Life Index 영역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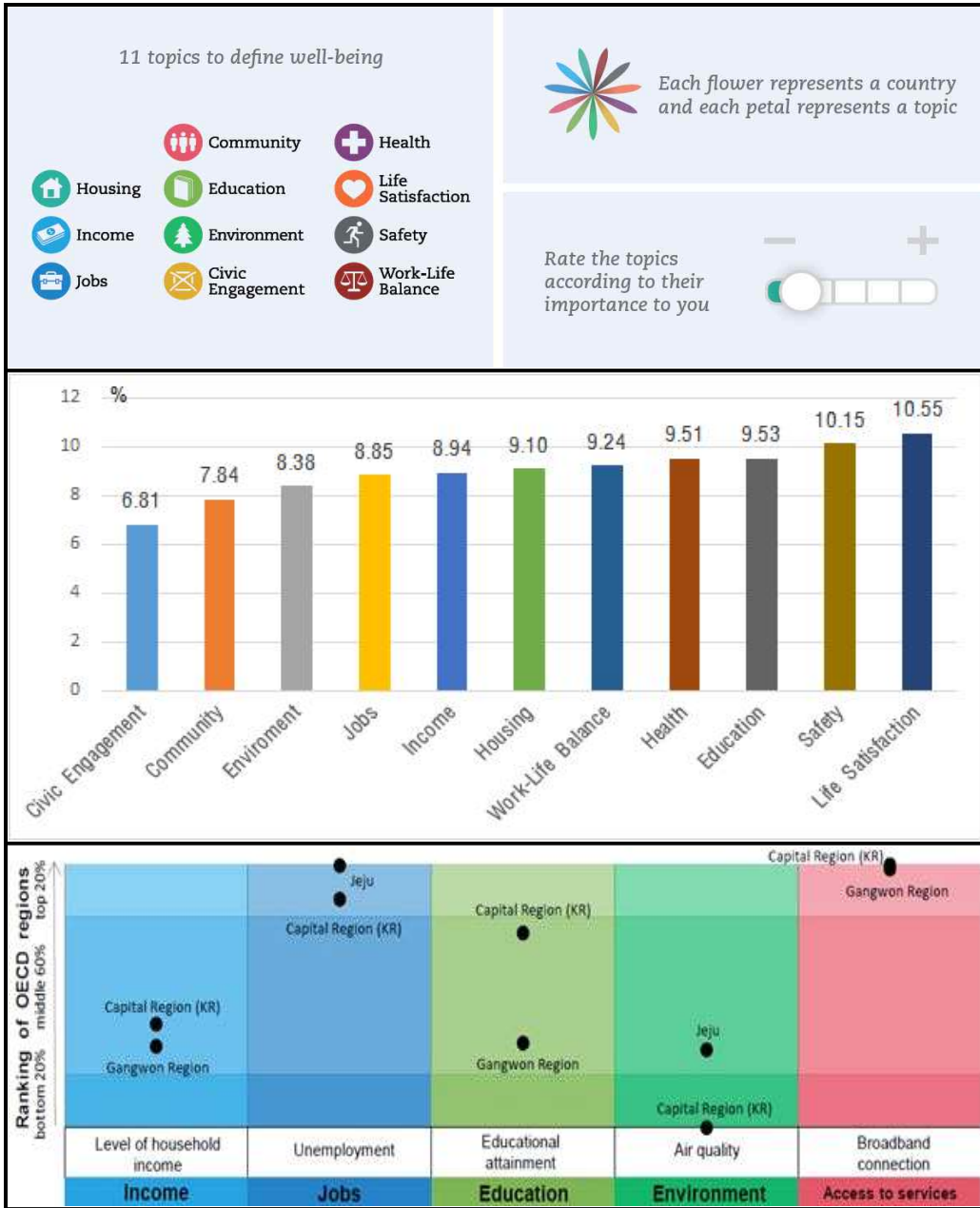


자료 : OECD Better Life Initiative(2016), How's Life in Korea?

또한 'The Better Life Index' 는 'How's Life?' 보고서에서 탐색된 안녕 지수에 기초된 내용을 넘어 OECD 국가 간 안녕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방문하는 쌍방향의 인터넷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도 구축되어 있다. 온

라인 방문자들은 자신은 삶에서 개인적인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11개 조사 영역을 국가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선택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조사 영역과 우리나라의 결과는 [그림 3-5]와 같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총 11개 영역에서 삶의 만족도, 안전과 교육의 세 영역이 가장 중요한 주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강원권,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제주권의 7개 지역에 대한 지역별 안녕 수준의 차이 역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5] OECD(2016) Better Life Index, 욕구 수준과 지역별 안녕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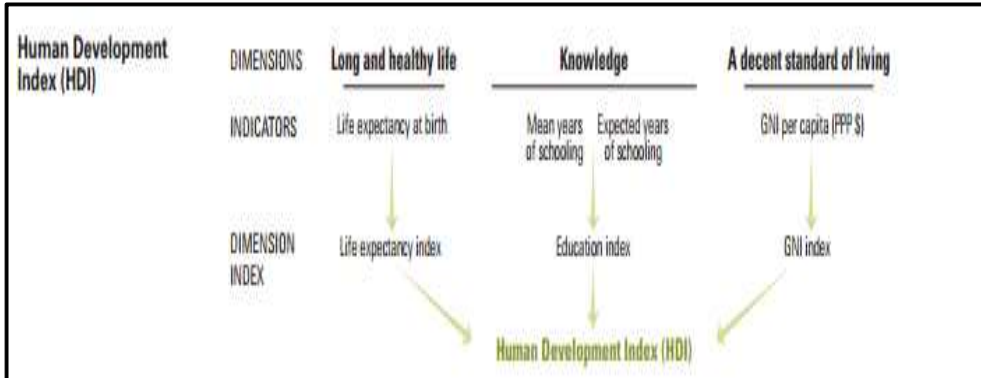


자료 : OECD Better Life Initiative(2016), How's Life in Korea?

(2) UNDP(2015)의 Human Development Index⁸⁾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서는 1990년 한 국가의 개발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인간의 자본이 궁극적인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개발 지수를 개발하였다. 특히, 인간개발지수의 철학적 기초는 ‘역량(capability)’에 있다. 즉, 역량은 어떤 것 또는 바람직한 상태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며,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재화(goods)는 단지 수단일 뿐이며, 웰빙의 개념은 ‘무엇을 가졌는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이동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개발지수는 ‘오래 살고, 건강한 삶, 지식에 대한 접근 및 양질의 생활수준 접근에 대한 발전을 평가하는 요약적인 척도라 할 수 있으며, [그림 3-6]과 같이 인간개발의 핵심적인 영역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고 있다⁹⁾.

[그림 3-6] UNDP의 Human Development Index



8) 국제연합개발계획(<http://hdr.undp.org/en/content/human-development-index-hdi>)

통계청 국가지표 체계(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7)

9) 이희길·심수진(2014), 국민 삶의 질 측정 2014 : 삶의 질 측정지표 개발결과 보고,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4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 V 권, p.24

크게 건강한 장수 생활, 지식과 쾌적한 삶의 기준을 토대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가 측정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 영역은 기대수명으로, 교육 영역은 성인의 문해율과 교육기회(교육 기간 평균과 교육 기대 년수), 적절한 삶의 영역은 1인당 국내 총생산(GNI)으로 측정된다. 인간개발지수는 총 0-1의 값을 가지며 수치가 높을수록 인간개발 성취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인간개발지수의 연도별 구체적인 현황은 <표 3-3>과 같으며, 2015년 총 188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17위를 기록하였다.

<표 3-3> 최근 3년간 우리나라 UNDP(2015) Human Development Index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HDI	0.909	0.891	0.898
순위	12	15	17
대상국수	187	187	188
기대수명(세)	80.7	81.5	81.9
기대 교육연수(세)	17.2	17	16.9
평균 교육연수(세)	11.6	11.8	11.9
1인당GNI	28,231	30,345	33,890

자료 : 통계청 국가지표 체계(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7)

또한 2011년에는 UNDP에서 OECD 평균을 내지 않고 순위별 4분위(최상위국, 상위국, 중위국, 하위국)으로 나누었는데, 우리나라는 최상위국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그림 3-7] 과 같이 최근 3년간 인간개발지수의 추이는 각 연도마다 다소의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크게 개선되는 수준을 기대하기에는 힘든 실정이다.

[그림 3-7] 최근 3년간 우리나라 UNDP의 Human Development Index 추이



자료 : 통계청 국가지표 체계(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7)

(3) Mercer(2015)의 Worldwide Quality of Living Surveys¹⁰⁾

세계적인 컨설팅그룹인 머서(Mercer)는 1997년부터 전 세계 460개 도시 이상의 삶의 질을 조사하며, 223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각 도시별 파견 주재원이 총 10개 부문의 39개 항목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반영하여 가중치를 두고 있으며, 결과 지수에 대한 백분율 값을 제시하여 각 도시 주재원의 삶의 질과 생활환경 수당을 책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구체적인 지표의 내용은 <표 3-4>와 같다.

10) 머서코리아(<http://www.mercer.co.kr>) “머서, 서울 삶의 질 세계 72위… 1위는 오스트리아 빈” 2015년 3월 4일자 보도자료)

머서코리아(<http://www.mercer.co.kr>), “머서, 세계 주요 도시 주재원 삶의 질·환경 조사 결과 발표”, 2016년 2월 23일자 보도자료

<표 3-4> Mercer의 Worldwide Quality of Living Surveys

영역	세부 항목
정치 및 사회적 환경	정치적 안정성, 범죄율, 법 집행 등
경제적 여건	환전, 은행 서비스
사회문화적 환경	제공 미디어, 검열, 개인 자유의 제한
의료 및 위생 여건	의료공급 및 서비스, 전염병,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대기오염 등
학교 및 교육	외국인 주재원 자녀가 다닐 수 있는 외국인 학교 수준과 입학 여부
공공 서비스 및 교통 시스템	전기, 수도물, 대중교통, 교통체증 등
여가 시설	식당, 극장, 영화관, 스포츠 및 레저시설 등
소비자 상품	식품 및 생활용품, 자동차
주택	주택 임대, 가전제품, 가구, 유지관리 서비스 등
자연환경	기후, 자연 재해

자료 : 머서(<http://www.mercer.co.kr>) “머서, 서울 삶의 질 세계 72위… 1위는 오스트리아 빈”
2015년 3월 4일자 보도자료)

2015년, 2016년 조사 결과, 1위는 오스트리아 빈이 선정되었으며, 취리히, 오클랜드, 뮌헨 순으로 이어졌다. 전체적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주요 도시과 유럽 도시들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아시아권에서는 2015년 싱가포르가 26위로 가장 높았으며, 도쿄 44위, 고베 47위, 요코하마 48위, 오사카 58위, 서울은 72위, 부산 90위, 천안 98위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서울은 73위, 부산은 91위로 나타났으며, 대전은 주재원이 파견되지 않아서 조사 결과가 부재한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조사의 목적과 조사 방법으로 국가나 도시 간 비교에 있어 조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의 문제점은 존재하지만 거주 생활의 여건과 도시 간 비교와 추이를 탐색하는 차원에서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4) EIU(2016)의 Liveability Ranking¹¹⁾

영국의 경제잡지 이코노미스트정보기관은 2016년 8월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를 발표하였다. 살기 좋다는 개념은 그 지역이 최상의 또는 최악의 삶의 조건들을 제공해 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며, 140개국을 대상으로 <표 3-5>와 같이 총 5개 부문(사회안정성, 보건의료, 문화와 환경, 교육, 인프라 구축)과 30개의 양적, 질적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표 3-5> EIU의 Liveability Ranking

영역	세부 지표
사회 안정성	경범죄율, 폭력 범죄 추이, 테러 위협, 군사 충돌 위협, 시민 불안정/갈등 위협
보건의료	개인적인 보건의료 이용 가능성, 개인적인 보건의료의 질, 공공 보건 의료 이용 가능성, 공공 보건의료의 질,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의 이용 가능성, 일반적인 보건의료 지표
문화와 환경	습도/온도의 날씨 조건, 여행객들에게 불편한 기후, 부패 수준, 사회적 또는 종교적 제한, 검열 수준, 스포츠 이용 가능성, 문화적 이용 가능성, 음식과 음료, 소비재와 서비스
교육	개인적인 교육 가능성, 개인적인 교육의 질, 공공 교육 지표들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의 질, 국제적 연결의 질, 좋은 질의 주거 이용가능성, 에너지 공급의 질, 수도 공급의 질, 통신의 질

자료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6), A Summary of the Liveability Ranking and Overview: August 2016

2016년 2월 조사 결과,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는 호주 멜버른이 100점 만점에 97.5점으로 1위,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97.4점으로 2위, 캐나다 밴쿠버는 97.3점으로 3위, 토론토로 97.2점으로 4위, 캐나다 캘거리와 호주 애들레이드로 96.6점으로 공동 5위로 조사되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도쿄가 94.7점으로 15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84.9점으로 58위를 기록되어 전체 140개국에서 상위 40%에도 들지 못하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11)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6), A Summary of the Liveability Ranking and Overview: August 2016

(5) UN(2016)의 World Happiness Report¹²⁾

가장 대표적인 국제 행복지수 조사로 널리 알려진 행복보고서는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s, SDSN)에 의해 처음 발간되었다. 이후 2013년, 2015년에 이어 2016년 3월에 4번째 보고서가 출판되었으며, 총 15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삶의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고 있다. 행복 측정을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는 정서적 차원으로 “어제 얼마나 행복을 느꼈는지”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인 감정상태로 측정된다. 다른 하나는 “전체 삶을 고려할 때 얼마나 행복(만족)한지”를 ‘Cantil Ladder’의 방법으로 즉, 자신의 삶을 사다리에 비교했을 때 최상의 상태는 10점, 최악의 상태는 0점으로 하여 측정하는 방식으로 조사된다. 각 국가의 행복도를 설명하는 6개 요인을 1인당 GDP, 사회적 지지, 출생시 건강기대수명, 자유로운 삶의 선택, 관대성, 부패 인식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과 유엔인권지수 등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다.

행복 점수 또는 주관적 웰빙은 삶의 만족도, 전날의 긍정적, 부정적 감정상태 3부분이며, 삶의 만족도에는 총 6개 영역의 지표를 각 국가당 매년 1,000명의 설문 조사를 통해서 행복 순위를 산출·비교하고 있다. 삶의 만족도의 구체적인 지표는 GDP 수준, 기대수명, 관용, 사회적 지지, 자유와 부패의 영역으로 나뉘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3-6>과 같다.

12) UN SDSN(<http://worldhappiness.report>), World Happiness Report 2016

Helliwell, J., Layard, R., & Sachs, J. (2016). World Happiness Report 2016, Update (Vol. I).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표 3-6〉 UN(2016)의 World Happiness Report 지표

분야	세부 지표
삶의 만족도 (0-10점)	1인당 GDP, 사회적 지지, 건강한 기대 수명,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관대성, 부패 인식
전날의 긍정적/부정적인 감정상태	-

2016년 조사 결과, 1위는 덴마크로 7.526점, 2위는 스위스로 7.509점, 3위는 아이슬란드 7.501점, 4위는 노르웨이 7.498점, 5위는 핀란드로 7.413점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58위로 5.853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시아권의 국가들 가운데 싱가포르가 6.739점으로 22위에 올랐으며, 대만이 6.379점으로 34위, 일본은 5.921점으로 53위로 조사되었다. 또한 OECD 회원국의 행복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OECD 회원국내에서 1인당 GDP와 같은 경제력 수준과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행복도의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관대성과 부패 인식, 자유로운 삶의 선택, 건강기대수명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고 있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지지, 자유로운 삶의 선택, 관대성, 부패인식 수준과 같은 주관적 인식 분야는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남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¹³⁾

국외에서 개발된 국제 수준의 행복지수의 기초 사례를 종합해 볼 때, 공통적으로 행복에 대한 직접적이고 주관적인 인식에 대한 항목이 이전의 다른 사회지표들과의 큰 차이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객관적인, 물질적인 조건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 수준의 질적 차원도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살펴보고 있어 행복에 대한 절충주의적 시각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13) 정해식(2016), 행복도 추이와 설명요인: UN 세계행복보고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 & FOCUS, 317, pp. 3-4

2 행복 중심 개발 지수

1) 개요

2002년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Rothwell)과 인생상담사 코언(Cohen)의 행복공식이 대표적이다. 즉, 행복이 개인의 인생관, 적응력, 유연성 등의 개인적 특성인 P(Personal), 건강·돈·인간관계 등 생존조건을 의미하는 E(existence), 야망, 자존심, 기대, 유머 등 고차원 상태를 포함하는 H(higher order)의 3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3가지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적용하여 $P+(5E)+(3H)$ 의 행복방정식을 제시하였다(박승규·박진경·조창덕, 2015 재인용). 이처럼 경제적 산물로 대표되던 삶의 질의 한계에 대한 문제 의식과 행복의 추구는 국가별 다양한 행복 지수 개발과 적용으로 확대되었다. 각 국가별 행복지수 개발 사례는 [그림 3-8]과 같이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3-8] 행복 중심 개발 지수(국제)

부탄(2015)의 Gross National Happiness • 총 9개 영역, 33개 지표	일본(2010)의 Commission on Measuring Well-being • 총 3개 영역, 12개 요소, 132개 지표	프랑스(2009)의 Gross National Happiness • 삶의 질 총 9개 영역
캐나다(2011)의 Canadian Index of Wellbeing • 총 8개 영역, 64개 지표	태국(2006)의 Green and Happiness Indx • 6개 분야, 18개 하위분야	

2) 세부 내용

(1) 부탄(2016)의 Gross National Happiness¹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지금까지도 가난하지만 대표적인 행복 국가로 회자되는

14) The Center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http://www.grossnationalhappiness.com>)

부탄은 부탄연구센터(The Center for Bhutan Studies)가 중심이 되어 1998년부터 국민행복지수를 도입하였으며 2005년 예비조사를 거쳐, 2009년에 최초로 국민총행복지수가 산출되었다. 지역별, 계층별, 성별로 부탄 국민의 행복도를 측정, 평가하여 각종 정부 정책의 행복도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전통가치와 문화의 보존과 계승, 자연환경의 보존, 올바른 정부 통치 구조 수립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2010년에 이어 2015년 최근 조사는 7,153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크게 9개 영역의 148개의 질문으로 측정되었으며, 2010년과 2015년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최근 총 행복지수는 유의미하게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5년 조사 결과 매우 행복하다(deeply happy)는 8.4%, 거의 행복한 편이다(extensively happy)는 35.0%, 겨우 행복한 편이다(narrowly happy), 전혀 행복하지 않다(unhappy)는 8.8%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10년의 매우 행복과 거의 행복한 편이라는 응답은 40.9%로 나타난 것에 비해서 3.4% 증가한 수치이다. 조사 영역의 개요는 [그림 3-9]와 같다.

[그림 3-9] 부탄의 Gross National Happiness



자료 : The Center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http://www.grossnationalhappiness.com>)

심리적 안녕, 건강, 시간 사용, 교육, 문화적 다양성 등의 9개 영역의 33개의 핵심 지표는 <표 3-7>과 같다.

<표 3-7> 부탄의 Gross National Happiness 지표

영역	하위지표
심리적 안녕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영성
건강	자기 보고식의 건강 상태, 건강한 날(일) 수, 장애, 정신건강
시간 사용	근로 시간, 수면 시간
교육	문해 정도, 학교, 지식, 가치
문화적 다양성과 탄력성	장인기술 지표, 지역사회 문화 참여, 모국어 구사 정도, 전통 스포츠 지표
좋은 거버넌스	정치적 참여, 서비스, 거버넌스 실천, 기본권
지역사회 생명력	기부(시간과 돈), 안전, 지역사회 관계, 가족
생태환경 다양성과 탄력성	자연환경 손상, 도시화 이슈, 환경에 대한 책임, 생태계 이슈
생활 수준	소득, 자산, 주거

자료 : Center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2015), Buhtan's 2015 Gross National Happiness Index 보고서

(2) 프랑스(2009)의 Gross National Happiness¹⁵⁾

2009년 프랑스의 대통령인 니콜라스 사르코지(Nicolas Sarkozy)는 GDP의 한계와 성장의 핵심지표로 행복을 강조하면서 컬럼비아 대학의 스티글리츠 교수를 의장으로 경제성과 및 사회적 진보 측정위원회(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를 설립하여 행복의 중요성과 측정을 환기하였다. 특히, 행복은 크게 GDP, 삶의 질,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이라는 3분야로 구성하였으며,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9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삶의 질은 물질적인 삶의 조건, 재정적인 위험, 건강, 교육 수준, 근로 조건, 정치 참여, 사회적 연대, 경제적 안전, 신체적 안전으로 구분하였으며, 구체적인 지표 내용은 <표 3-8>과 같다.

15) 박승규·박진경·조창덕(2015),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표 3-8> 프랑스의 Gross National Happiness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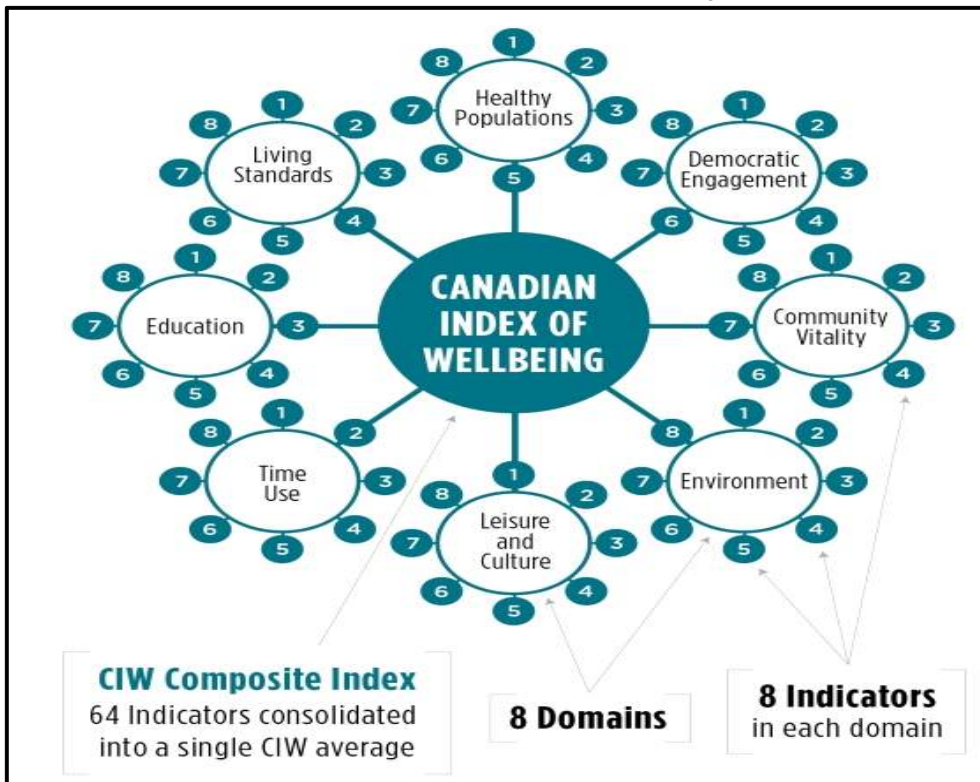
영역	세부 항목	지표
가계 경제 활동		
삶의 질	물질적인 삶의 조건	소음 방해 정도, 과밀화 심각성, 난방 어려움, 습기, 화장실 부재, 중앙 또는 전기 난방 체계 부재, 온수 부재, 욕실 부재, 집안의 협소한 정도, 주거 문제,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최소 한달에 1번 음주 또는 식사 하기에는 불가능한 정도, 실내 적정 온도 유지의 문제, 1년에 한번 주말의 휴일을 즐길 수 없는 정도, 오래된 가구, 옷을 새롭게 장만할 수 없는 정도, 고기, 닭고기, 생선, 격일로 고기, 닭고기, 생선을 섭취할 수 없는 정도, 최소 1년에 한번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선물을 줄 수 없는 정도, 자신에게 꼭 맞는 신발을 소유하지 못하는 정도, 최근 2주 동안 최소한 한번 정도 3끼 식사를 못한 정도, 인터넷 접근의 제한, 컴퓨터 부재, 식기 세척기 부재, 자동차 부재, 소비 활동 제한
	재정적인 제한	소득의 1/3 이상을 빚이나 신용카드 상환하는 정도,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대출이나 빚에 대한 의견 정도, 소득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의 어려움, 빚과 저축의 균형성, 저축 부재, 생활요금의 연체, 세금 연체
	건강	주관적인 보고의 부실한 건강 상태, 일상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건강
	교육	교육 부재, 최근 전문적인 교육의 부재
	근로 조건	일선 현장 근무, 동료들과의 빈약한 유대 관계, 비숙련성, 유해 또는 유독 생산물에 노출, 야간근무, 12개월 내 실직 가능성, 물리적인 부담, 압박감, 조정의 가능성 부재, 일과 다른 가족과의 균형 어려움, 의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상태의 근로
	정치 참여	책임감 있는 자리의 부재, 자발적인 활동 부재, 정당 부재, 교섭 단체 부재, 선거 부재,
	다른 사람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연락, 친구와의 만남 부재, 가족과의 연락 부재, 가족과의 만남 부재, 모임 참여 부재
	경제적 불안정	2006-2007년 사이의 고용에서 실업까지의 이동
	신체적 불안정	강도 또는 강도 미수, 소지품의 손상 또는 고의적 파손, 폭력 절도, 신체적 폭력, 가정 폭력(신체, 성적)
환경의 지속가능 발전성		

자료 : 박승규·박진경·조창덕(2015),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캐나다(2011)의 Canadian Index of Wellbeing¹⁶⁾

모든 성장이 긍정적이라고 가정하지만 GDP는 단지 경제적인 생산성만을 보여줄 뿐이며, 더 이상 캐나다 국민들이 가치롭게 여기는 삶의 질과 환경, 민주주의, 웰빙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하여 2011년 국가적 차원의 캐나다 웰빙 지수 개발을 착수하였다. 특히, 안녕은 가장 광범위하게 표현해서 고도로 가능한 삶의 질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는 다음과 같이 부분이 반드시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들이 지수는 객관적, 주관적 지표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8개 하위영역과 64개의 하위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개요는 [그림 3-10] 과 같다.

[그림 3-10] Canadian Index of Wellbeing 개요



자료 : <https://uwaterloo.ca/canadian-index-wellbeing/what-we-do/framework>

16) <https://uwaterloo.ca/canadian-index-wellbeing>

<표 3-9> Canadian Index of Wellbeing 지표

영역	지표
생활수준	소득과 부의 분배, 빈곤, 소득변화, 경제적 안정, 직업 안정성
시간 사용	시간 사용과 통제 정도, 시간활용이 웰빙에 미치는 영향
건강	신체적, 육체적 건강, 기대수명, 의료서비스의 접근가능성과 질 등의 환경
환경	자연환경의 보전, 자연자원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교육	교육수준, 다양한 사회적 배경에서의 능력, 발전 가능성
공동체 활력	이웃과의 관계와 활동, 소속감, 자원봉사 조직
시민참여	정치와 공공영역에서의 시민참여, 정부의 투명성/효율성, 공정성, 공정성 및 접근가능성, 세계시민으로서의 행동 여부
문화와 여가	문화활동, 예술활동, 여가활동

자료 : <https://uwaterloo.ca/canadian-index-wellbeing>

(4) 태국(2006)의 Green and Happiness Index¹⁷⁾

그 동안의 성장 중심의 개발에 대한 한계와 인간의 웰빙을 추구하는 국제적인 개발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제10차 국가개발계획(2006-2011)의 목표를 “Green and Happy Society” 달성에 중점을 두고 2006년 8월부터 GHI 지수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총 6개 분야 18개 하위분야의 30여개 핵심지표와 44개 보충지표를 개발하였다. 핵심지표는 모두 수량적인 지표로 측정되며, 보충지표는 핵심지표로 측정한 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이유를 설명하는데 사용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3-10>과 같다.

17) 박형수·전병목(2012), 복지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조세연구원

〈표 3-10〉 태국의 Green and Happiness Index

분야	하위분야	핵심지표	보충지표
건강	신체건강		
	신체건강	질병 없는 인구 비율	2.5kg 이상 신생아 비율 거동이 불편한 인구 비율 체육활동 인구 비율 영양과다 인구 비율
	장수	연도별 평균수명	
	정신건강		
	정신건강	정신질환 환자 비율	
	도덕성	인구 1천명당 범죄	종교활동 인구 비율
	지식		
	교육의 성과	문맹률	15세 이상 학교교육 평균 기간
	교육의 질	교과목 시험점수	교육기관 등록 인구 비율
	정보습득력		글을 읽을 수 있는 인구 인터넷 사용 가능한 인구
경제발전 및 공정성	정직한 생활		
	고용	실업률	저소득 노동자 비율 월/연간 근로시간
	충분한 소득	소득이 지출의 10%를 초과하는 가구 수 비율	가구 저축률 평균 가계부채
	고용안정성 및 직업 안정성	사회보장 대상 근로자 비율	장애근로자 비율 화학적 손상을 입은 근로자 비율
	소득분배	빈곤율 지니계수	소득분배 격차
	경제발전	경제성장 총요소생산성 인플레이션율 경상수지/GDP	단기외채 대비 외환 보유고 비율
따뜻하고 다정한 가족	가족의 역할	10만명당 버려진 노인 비율 10만명당 버려진 아동 비율	가정폭력 비율 가정 및 아동 사건 비율 모든 가족구성원이 함께 사는 가 정의 비율
	건강한 가족	이혼율	혼인신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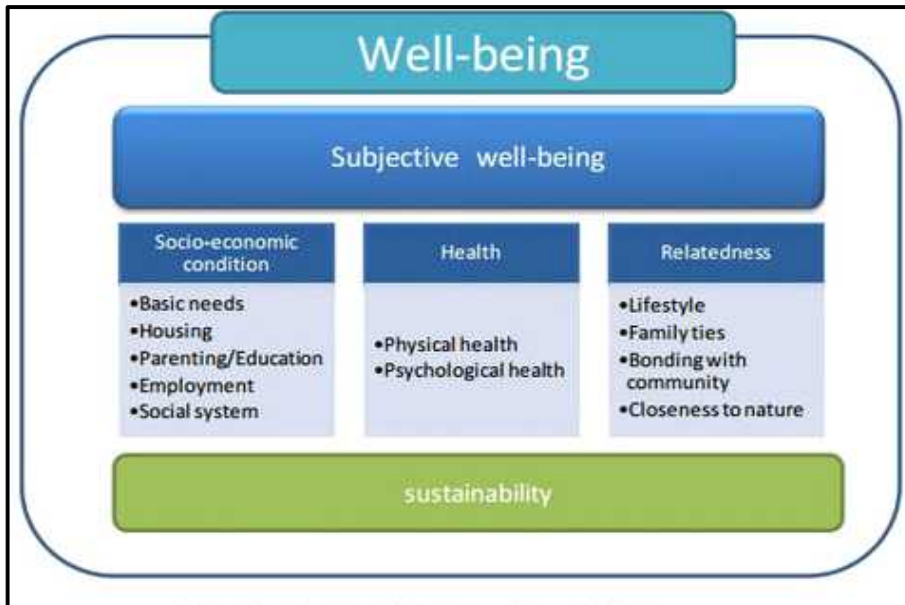
분야	하위분야	핵심지표	보충지표
지역사회 역량강화	지역 자립성		
	경제적 측면	농업협동 비율	지역사회 내 노동력 50% 이상 지역사회 자본이용률
	문제해결 능력		그룹활동 수 개발계획을 가진 지역사회 비율
	지역사회 통합	사회보장제도를 갖춘 지역사회 비율	지역 내 사회복지제도를 갖춘 지 역사회/마을 비율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그룹 구성원 이 포함된 가구 비율 평생교육제도를 갖춘 지역사회 마을 비율	공공활동 참여 가구 비율
생활환경 및 생태계	삶의 질		
	주거	주택소유 가구 비율	
	인프라 및 서비스	수도시설을 갖춘 가구 비율	전기가 들어오는 가구 비율
	생활 및 재산의 보호	범죄발생 비율 마약밀매 발생 비율	사고/화재로 인한 사망 또는 재 산손실
	환경	일정한 수질을 갖춘 강, 호수 등 수역 규정에 맞게 처리된 쓰 레기량	DO,BOD, TCB 등 기준치 이하인 주요 강 비율 10마이크로미터 이하 먼지 온실가스 배출 고형폐기물 생산 고형폐기물 잔류 유해폐기물 생산 농촌부문에서의 화학제품의 사용 량
	생태계	시간당 상품성 있는 수 상생물 포획량 산림면적	멸종위기종의 수 총 국토 대비 산림보호구역 면적 비율
국 거버넌스를 갖춘 민주적인 사회	시민의식	교통법규 위반 통계 선거참여 비율	환경 및 천연자원보전 단체 수 10만명 당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단체 수 지역사회 그룹/지방 행정기관에 속한 구성원을 가진 가구 수
	국 거버넌스	투명성 지수 인구 10만명당 행정법 원 및 반부패위원회에 서 심사된 사건의 수	기업 지배구조 독립기관에 접수된 신고 수
	사회적 결속	인구 10만명당 인권침 애 사건 및 신고 비율	최남단 3개 지역의 사건 수

자료: 박형수·전병목(2012), 복지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조세연구원

(5) 일본(2010)의 Commission on Measuring Well-being¹⁸⁾

1980년대 후반의 가파른 경제 성장으로 사람들은 더 큰 물질적 풍요를 찾게 되었고 지표들 역시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흐름 속에서 1992년 생활 지표가 도입되었다. 이는 도쿄의 엄청난 인구 과밀화에 대한 영향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지역 간 차이를 측정하는데 있어 지역 수준의 비교를 위한 지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표는 1999년까지 사용되고 2002년에 ‘생활 개혁 지수’로 대체되었는데, 2005년까지 사용되었다. 2010년에는 내각부 웰빙측정위원회에서 “새로운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그림 3-11]과 같이 새로운 성장과 안녕에 대한 지표를 사회경제적 조건,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사회 관계성이라는 3개의 영역과 12개 요소, 132개의 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림 3-11] 일본의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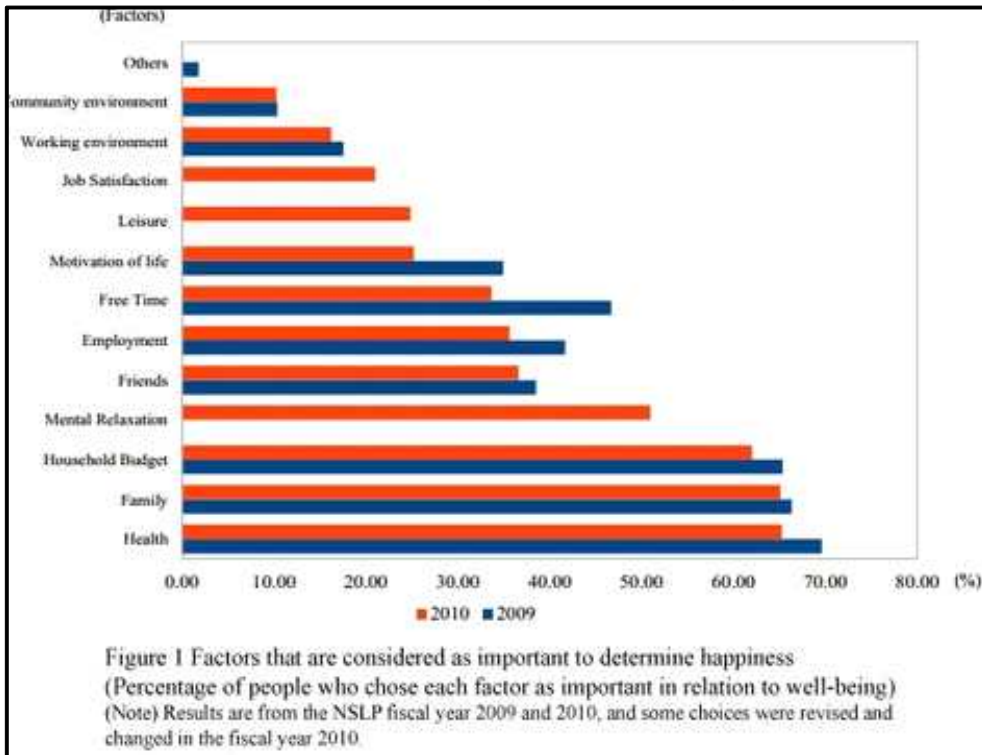


자료 : The Commission on Measuring Well-being, Japan(2011),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Proposed Well-being Indicators

18) 박형수·전병목(2012), 복지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2개의 하위요소는 건강, 가족, 가계경제, 정신 이완, 친구, 고용, 자유 시간, 삶의 동기, 여가, 직업 만족, 근무 환경, 지역사회 환경, 기타의 12개 요인에 대한 2009년과 2010년의 조사 결과는 다음의 [그림 3-12]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 3-12] 일본의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12Factors



자료 : The Commission on Measuring Well-being, Japan(2011),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Proposed Well-being Indicators

각 국가별로 개발된 행복지수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 앞서 살펴본 국제기구의 행복 기초 지수와 마찬가지로 경제, 건강, 지속가능성 등의 영역에서의 객관적인 수준을 강조하고 있었다. 반면, 보다 가족, 일상생활과 생활환경에서의 웰빙, 만족감과 같은 주관적 인식에 대한 세분화된 영역과 항목이 국가별 행복지수 개발에서 부각되는 차이점이라 볼 수 있다.

제2절 국내 연구 및 활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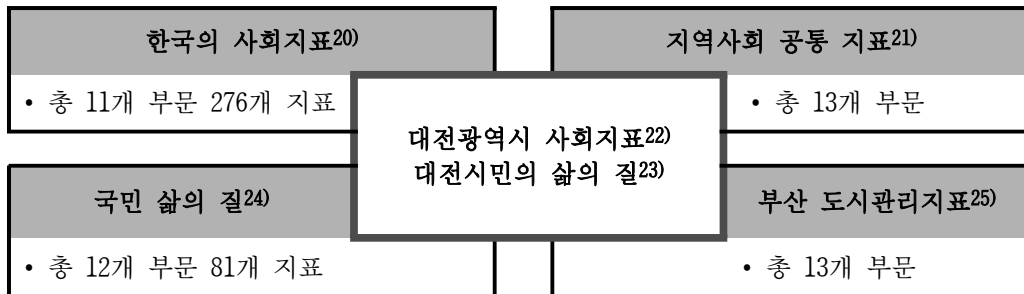
1. 행복 관련 기초 지수

1) 개요

행복이 객관적인 삶의 질 영역과 주관적 안녕감 영역이 모두 포함된 개념임을 전제하면서¹⁹⁾, 대전광역시 행복 지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된 국내 지수에 대한 개요는 [그림 3-13] 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전체의 지역사회의 경제적, 신체적, 인구학적, 사회관계, 환경, 제도, 사회심리적인 특성 등과 같은 객관적인 영역을 살펴볼 수 있는 지수이자 가장 대표적인 지수 가운데 하나인 한국의 사회지표, 국민 삶의 질을 살펴보고, 각 지자체별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지역사회 지표와 조사 결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의 사회지표와 삶의 질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3-13] 행복 관련 기초 지수(국내)



19) 김창연·조영미·이혜경·박진경(2012), 2012 서울여성행복지표 개발 및 측정,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20) 통계청(2015), 2015 한국의 사회지표

21) 심수진·이희길·박주언(2013), 지역사회 지표 개발 매뉴얼,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3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22) 대전광역시(2015), 2015 대전의 사회지표

23) 정선기(2007), 2007 대전 시민의 삶의 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2) 세부 내용

(1) 2015 한국의 사회지표²⁶⁾

매년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지표는 국민의 질적 및 양적 복지수준을 측정하여 우리 사회의 상태를 총체적,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각종 사회개발 정책 수립이나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5 한국의 사회지표에는 인구, 건강, 가구와 가족, 교육, 노동, 소득·소비,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문화와 여가, 사회통합의 11개 부문의 총 27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각 지자체의 지역사회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표를 살펴보면 <표 3-11>와 같다.²⁷⁾

<표 3-11> 한국의 사회지표와 지역사회 공동 지표

영역	지표명	주기	생산방식	출처
인구	주민등록인구, 자연증가율 및 인구성장률	1년	행정자료	시도, 주민등록인구통계
	성 및 연령별 인구	1년	행정자료	시도, 주민등록인구통계
	평균연령 및 중위연령	1년	행정자료	시도, 주민등록인구통계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1년	행정자료	시도, 주민등록인구통계
	성별 혼인상태	5년	외부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연령별 출산율과 합계출산율	1년	행정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성 및 연령별 사망율	1년	행정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전·출입 및 순 이동률	1년	행정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
등록외국인 수	1년	행정자료	시도,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건	주요 사인별 사망률	1년	행정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당뇨병과 고혈압 유병률	1년	외부조사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스트레스 인지율	1년	외부조사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주관적 건강평가	1년	외부조사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흡연을 및 고위험 음주율	1년	외부조사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신체활동 실천율 및 비만율	1년	외부조사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의사, 간호사 및 병상수	1년	행정조사	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암 검진 수검률	1년	행정자료	복지부, 국립암센터,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

24) 이희길·심수진·김홍희(2015), 국민 삶의 질 측정 2015,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5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25) 임호·박상필·오재환(2015), 부산 도시관리지표 개발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26) 통계청(2015), 2015 한국의 사회지표

27) 심수진·이희길·박주연(2013), 지역사회 지표 개발 매뉴얼,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3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영역	지표명	주기	생산방식	출처
	의료서비스 만족도	1년	내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가족 · 가구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와 평균 가구원수	5년	외부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혈연가구의 세대수별 가구분포	5년	외부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가족형태별 가구분포	5년	외부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분거가족과 분거이유	1년	내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조혼인율 및 조이혼율	1년	행정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부모 부양책임자	1년	내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미취학자녀의 양육방식 및 보육시설 만족도	1년	내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가족관계 만족도	1년	내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교육	유치원 취원율 및 교원1인당 아동수	1년	행정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취학률	1년	행정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진학률	1년	행정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학업중단율	1년	행정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1년	내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학생과 부모의 학교생활만족도	1년	내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교원 1인당 학생수	1년	행정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학급당 학생수	1년	행정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졸업생 취업률	1년	행정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와 취업통계연보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1년	내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노동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1년	외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실업률	1년	외부조사	시도,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1년	외부조사	시도,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	1년	외부조사	시도,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1년	외부조사	시도,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 수	1년	외부조사	시도, 지역별고용조사
	근로여건 만족도	1년	내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소득 · 소비	지역내 총생산 및 1인당 GRDP	1년	내부조사	통계청, 지역내 총생산
	가구 월평균 소득	1년	내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소득만족도	1년	내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가구 월 평균 소득지출액	1년	내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소비자물가지수 및 상승률	1년	행정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연보
	소비생활 만족도	1년	내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가구부채 여부와 이유	1년	내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조세부담률	1년	행정자료	시도 지방국세청세정담당부서

영역	지표명	주기	생산방식	출처
주거 · 교통	주택보급률과 인구 천명당 주택수	1년	행정자료	시도, 통계연보
	주택건설실적	1년	행정자료	시도, 통계연보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1년	외부조사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주거점유 형태별 가구분포	1년	내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주거만족도	1년	내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자동차 등록현황	1년	행정자료	시도, 통계연보
	자동차 주차장 확보율	1년	행정자료	시도, 통계연보
	통근·통학·교통수단 및 통근시간	1년	내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환경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1년	내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생활폐기물 발생량	1년	행정자료	시도, 통계연보
	1일 1인당 급수량	1년	행정자료	시도, 통계연보
	전력사용량	1년	행정자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대기오염도	1년	행정자료	시도, 통계연보
	수질오염도	1년	행정자료	시도, 통계연보
	환경체감도	1년	내부자료	시도, 지역사회조사
	상수도 보급률	1년	행정자료	시도, 통계연보
안전	하수도 보급률	1년	행정자료	시도, 통계연보
	태풍, 호우 및 대설 발생빈도와 피해액	1년	행정자료	기상청 기상연감시도, 통계연보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상자수	1년	행정자료	시도, 통계연보, 도로교통공단, 지역별 교통사고통계
	화재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1년	행정자료	안행부, 화재통계연감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1년	내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1년	내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3년	외부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자조사
	주요범죄 발생건수	1년	행정자료	시도, 통계연보 지방경찰청 자료
문화 · 여가	주요범죄 검거율	1년	행정자료	시도, 통계연보 지방경찰청 자료
	문화예술 시설수	1년	행정자료	시도, 통계연보
	공공체육 시설수	1년	행정자료	문화부,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1년	내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	1년	내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여가활동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1년	내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생활시간 압박	1년	내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인터넷 이용률과 이용시간	1년	외부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사회 통합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투표율	1년	행정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원봉사활동 참여율과 평균시간	1년	내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후원(기부) 참여율	1년	내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 및 지역정체성	1년	내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영역	지표명	주기	생산방식	출처
	지역 거주기간 및 정주의사	1년	내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자살률	1년	행정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주관적 귀속계층	1년	내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사회적 관계별 소통정도	1년	내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일반인에 대한 신뢰	1년	내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기관 신뢰	1년	내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공적연금수급자와 수급자 비율	1년	행정자료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진율과 1인당 연평균 급여액	1년	행정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1인당 급여액	1년	행정자료	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사회복지시설수, 종사자수, 수용인원	1년	행정자료	시도, 통계연보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경험	1년	내부조사	시도, 지역사회조사

자료 : 심수진·이희길·박주언(2013), 지역사회 지표 개발 매뉴얼, 통계청 통계개발원, p.78-81

(2) 지역사회 공통 지표²⁸⁾

지역사회 지표(Community Indicator)는 국제 및 국가수준의 사회지표 작성에 대응해서 지방정부나 도시 차원에서 작성하는 사회지표이다. 또한 지역사회지표는 지역사회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의 동향(Trends), 과거의 실재(Realities), 미래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 체계이자 종합 정보 체계라 할 수 있다.

각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지역사회 지표들의 공통 영역과 내용을 비교한 결과는 <표 3-12>와 같다.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광역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시의 지역사회 지표가 대상이며, 공통 지표는 각 영역별로 4-5개 이상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지표를 의미한다. 비교 결과, 지역사회의 기반과 대표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인구 영역이 가장 많은 공통 지표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소득과 소비, 교육, 보건, 정보와 통신, 정부와 사회참여 영역은 비교적 낮은 현황을 보이고 있다.

28) 심수진·이희길·박주언(2013), 지역사회 지표 개발 매뉴얼,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3 상반기 연구 보고서

〈표 3-12〉 지역사회 공통 지표 현황

지표 영역 (총 지표 수)	공통 지표	집중 지표 수
인구 (17)	주민등록인구, 연도별 인구성장률, 자연증가율(조출생률, 조사망률), 장래추계인구, 성 및 연령별 인구, 평균 연령, 부양 인구비, 노령화 지수, 혼인상태별 인구, 시도별 인구밀도, 출생시 성비, 연령별 출산율, 합계 출산율, 성 및 연령별 사망률(사망 구성비), 성 및 연령별 기대여명, 지역별 전입/전출인구(순이동 포함), 지역별 순인구이동률	9
가족 (13)	가구원수별 가구분포와 평균 가구원수, 혈연가구의 세대수별 분포, 평균 초혼 연령, 조혼인율, 혼인상태별 가구, 평균 이혼 연령, 이혼 연령별 인구분포, 조이혼율, 이혼사유별 구성비, 결혼에 대한 견해, 이혼에 대한 견해, 재혼에 대한 견해, 가사분담 실태	3
소득과 소비 (9)	가구 월평균 소득, 지역내 총생산, 1인당 GRDP, 가구 월평균 소비 지출액, 조세 부담률, 소득 만족도, 소비자 물가지수, 월평균 저축액, 부채 비율	2
노동 (10)	실업률, 경제활동상태 및 참가율, 고용률, 취업자(성, 연령, 교육정도별), 산업별/직업별 종사상 지위별/성별 취업자,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직업 선택 요인,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여성취업 장애요인, 총사업체 현황	4
교육 (9)	25세 이상 인구의 학력구성비, 진학률, 학생 현황, 교원 현황,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가구당 교육비 지출률,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유치원 현황	4
보건 (9)	주관적 건강평가, 스트레스 인식정도, 음주율 및 흡수, 흡연율 및 흡연량, 규칙적 운동 실천율, 주요 사망원인별 구성비, 의료 인력수 및 1인당 인구, 병상수 및 인구 10만명당 병상수, 의료 기관수 및 인구 10만명당 수	5
주거와 교통 (10)	주택 보급률, 주택건설 실적, 유형별 가구분포, 주차장 확보율, 주택의 점유형태별 가구분포, 주거환경 만족도, 자동차 등록현황, 통근통학 교통수단, 도로포장률 및 도로연장,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7
정보와 통신 (10)	컴퓨터 보유율, 인터넷 이용률, 인터넷 이용시간, 인터넷 이용목적	4
환경 (1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생활폐기물 발생량, 지정폐기물 발생량, 상수도 보급률, 1일 1인당 급수량, 1인당 전력소비량, 대기오염도, 수질오염도, 체감환경,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 하수도 보급률, 환경오염 방지노력	5

지표 영역 (총 지표 수)	공통 지표	집중 지표 수
복지 (13)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수, 공적연금 가입자수(국민연금 가입자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율, 연령별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사회복지시설별 시설수, 노인복지 생활시설수(생활자), 노인의 생활비 마련방법,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향후 자녀와 동거여부, 소년소녀가장 가구수 , 자녀양육실태, 장애유형별 장애인수, 노후준비 방법	4
문화와 여가 (12)	문화예술 시설수 , 영화관수, 도서관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독서인구 비율,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용방법, 여가활동 만족도, 국내관광 여행 비율, 레저시설 이용률, 해외여행자 비율, 공공체육 시설수 및 면적, 도시공원 면적	2
안전 (11)	준법 수준,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범죄 발생건수 , 소년범죄자 비율 , 범죄 검거 건수, 연령별 피의자수, 교통 사고 발생건수 , 재해 발생건수 및 사망자 , 소방관 1인당 인구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4
정부와 사회참여 (8)	투표율,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종교인구 분포, 기부인구, 주관적 사회계층 의식, 공무원수 , 지방세 부담액, 삶의 만족/행복지수	1

※ 2012년 6월 기준, 공통 지표는 4-5개 지역, 집중 지표는 7개 이상의 지역에서 포함된 지표임
 자료 : 심수진·이희길·박주연(2013), 지역사회 지표 개발 매뉴얼, 통계청 통계개발원, p.27

(3) 국민 삶의 질²⁹⁾

삶의 질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객관적인 생활 조건과 이에 대한 인지 및 평가’로 구성된다. 또한 ‘개인의 삶’의 질과 함께 전체 사회와 관련된 ‘사회의 질’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구성하는 세부 생활영역별 현황을 주요 지표로 측정하고, 국민 삶의 질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총 12개 영역 8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표 3-13>과 같다.

29) 이희길·심수진·김홍희(2015), 국민 삶의 질 측정 2015,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5 하반기 연구보고서

〈표 3-13〉 국민 삶의 질 지표

영역	하위영역	객관지표 (57개)	지표 수	주관지표(24개)	지표 수	
물질 부문	소득 소비 자산	-	1인당 GNI, 균등화 중위소득, 균등화 중위소비, 가구평균 순자산,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6	소득만족도 소득생활 만족도	2
	고용 임금	-	고용률, 실업률, 근로자 평균 근로 소득, 근로시간, 저임금 근로자비율	5	일자리 만족도	1
	사회 복지	-	공적연금 가입률,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율, 개인부담 의료비비중	3	-	-
	주거	-	1인당 주거면적,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통근/통학 소요 시간, 주거비용	4	주거환경 만족도	1
비물질 부문	건강	건강상태	기대수명, 고혈압 유병률, 당뇨 유병률,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7	주관적 건강평가 스트레스 인식정도	2
		건강행위 및 환경	비만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	
	교육	교육기회	유아교육 취학률, 고등교육 이수율	7	-	2
교육자원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			
교육성과		PISA 백분위 순위, 대졸생 취업률	학교교육의 효과 학교생활 만족도			
비물질 부문	문화 · 여가	여가시간 및 활용	평균 여가시간	4	여가활용 만족도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	2
		문화활동	1인당 국내외 여행일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문화여가 지출 비율		-	
	가족 · 공동체	가족관계	가족접촉 빈도	6	가족관계 만족도	2
		가족형태	한부모 가구 비율, 독거노인 비율		-	
		사회적관계	자살률, 사회적관계망		지역사회 소속감	
	시민 참여	공동체참여	사회단체 참여율	2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시민의식 부패인식지수	5
		정치참여	투표율		-	
		시민적 권리 신뢰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대인신뢰, 기관신뢰	
	안전	범죄	강력범죄 발생률 자기보고 범죄피해율	7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2
		사고	이동안전사고 사망률, 이동학대 피해 경험률, 산업재해율, 화재발생건수, 도로사망률		-	

영역	하위영역	객관지표 (57개)	지표 수	주관지표(24개)	지표 수
환경	에너지	에너지 빈곤층 비율	6		2
	대기	미세먼지 농도			
	물	하수도 보급률			
	폐기물	폐기물 재활용 비율			
	기후변화	GDP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 불안도	
주관적 웰빙	환경의 질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체감 환경 만족도	3
	-		-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 정서 부정 정서	

출처 : 이희길·심수진·김홍희(2015), 국민 삶의 질 측정 2015, 통계청 통계개발원 p.4-5

(4) 부산 도시관리지표³⁰⁾

부산 도시관리지표는 도시경쟁력지표, 삶의 질 지표, 지속가능성지표, 지역사회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한 체계이다. 크게 대영역, 중범위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영역에는 인구 및 가구, 가족 및 여성, 소득과 소비생활, 노동, 교육, 보건, 의료, 주거, 교통, 정보·통신, 환경, 복지, 문화 및 여가, 관광, 안전, 시민사회, 경제·산업, 국제화, 참여행정 및 재정, 해양·농수산의 총 20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영역은 다수의 중범위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관련된 세부지표들이 설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도시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인구, 고용, 주거, 보건·건강, 교통, 문화, 안전 등 15개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작성된다. 삶의 질은 인구, 소득, 교육, 환경, 복지, 문화, 안전, 사회의 질 등 13개 영역에서 47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3-14>와 같다.

30) 임호·박상필·오재환(2015), 부산 도시관리지표 개발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표 3-14〉 부산 도시관리지표

대영역	중범위	세부지표		도시경쟁력	삶의 질	
인구 및 가구	인구 추이	부산인구 규모		○		
		전국인구대비 부산인구의 비중				
		인구증가율		○		
		인구밀도		○		
	인구 구성	성별 인구구성	성비			
			0-14세			
		연령별 인구구성	15-64세			
			65세			
			시민평균 연령			
		외국인 수 및 구성비				
		부양비				
	노령화 지수					
	인구 동태	출생동향	연간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출생성비			
			모의 연령별 출산율			
		사망 동향	연간 사망자 수			
			조사망률			
			연령별 사망률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			
	자연인구 증가율					
	인구 이동	지역 외 유출인구 수				
		지역 외 유입인구 수				
		사회적 인구 증감률				
		지역 내 인구이동 수				
		주간인구(서비스 인구)				
	가구 동향	가구 수				
가구원수별 가구 수						
1인 가구 수 및 비중		연령별 1인 가구 수				
		노인 1인 가구 수/비중			○	
다문화가구 수						

대영역	중범위	세부지표	도시경쟁력	삶의 질	
가족 및 여성	가족 형성	혼인 및 이혼건수			
		연령별 혼인율 및 이혼율			
		외국인 혼인건수			
		입양아 수			
		한부모가족 세대수		○	
	가족 생활 실태	가사분담	실태		
		건강가정 지원사업	교육		
		가정폭력 상담건수			
		피해여성 보호	보호시설 수 보호시설 이용자 수		
		한부모가족 지원 세대수			
	여성 및 보육	부산시 위원회 여성참여율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수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 수					
소득과 소비 생활	소득	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1인당 개인소득		○	
		소득계층별 구성비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가수 수(가구 비중)			
		주요 소득원별 인구 구성	근로소득자 수		
			사업소득자 수		
			연금소득자 수		
	근로자 평균소득(근로자 평균임금)			○	
	자영업자 평균소득				
	소비	소비항목별 소비구성	교육비 비중		
			주거비 비중		
			통신비 비중		
교통비 비중					
친환경소비지향					
소비자 피해구제건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					
소비자 물가지수 및 증감률					
생활물가 수준(2010년 기준)					
저축	가구당 월평균 저축액				
	지역 전체 저축액				
	가구당 부채규모				
	가구부채 유형				

대영역	중범위	세부지표	도시경쟁력	삶의 질	
노동	고용	고용률	○	○	
		청년 고용률	○		
		성별 고용률			
		취업률			
		취업자 수			
		성별 취업자 수			
		실업률	○	○	
		경제활동 참가율	○(인구수)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산업별 노동자 구성비			
		종사상 지위별 노동자 구성비			
		직종별 노동자 구성비			
		고용형태별 노동자 구성비			
		정규직 비중			
		비정규직 비중			
		고령자 취업 현황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율			
	직업훈련생 취업률				
	근로 조건	4대보험 가입현황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비중			○
노동시간(월평균 노동시간)		제조업 vs 비제조업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제조업 vs 비제조업			
교육	교육 지원 (물적 지원)	교육예산			
		학생 1인당 교육예산			
		학교급별 학교 수			
		학급 수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건물면적			
		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			
	사설 학원수	○			
	교육 지원 (인적 지원)	초등학교 교사 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		
		중학교 교사 수			
		중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		
		고등학교 교사 수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		
		특수학교 교사 수			
		특수학교 교수 1인당 학생 수			
		석박사 학위소지 교사 수 및 비중			
학교급별 학생 수					

대영역	증범위	세부지표	도시경쟁력	삶의 질	
보건 · 의료	상병	5대 암환자 수(연간 발생자 수)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			
		전체 사망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치매환자 수			
		치매 조기진단 및 예방등록 관리자 수			
		결핵환자 등록 현황			
				고혈압, 당뇨 유병율	
주거	주택 현황	연간 신규주택 건설(주택건설 호수)	○		
		노후주택 현황(주택의 노후도)			
		자기 주택 소유율(비율)			
		주택형태별 공급 현황(아파트, 다세대주택, 일반주택, 기타)			
		주택의 점유형태별 가구			
		건축 허가면적 증감율	○		
		공공임대주택 비율			
		공공임대주택 호수			
	주거의 질	1인당 방 수			
		1인당 주거면적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			○
		인구 천명당 주택 수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
교통	교통 기반시설	도로 총연장	○(포장률)		
		버스전용차로 총연장			
		자전거도로 총연장			
		도시철도 총연장			
		가로등 설치율			
		시내버스 노선총연장			
	대중 교통	도시철도(이용객 수, 수송 분담율)	○	○	
		시내버스(이용객 수, 수송 분담율)	○	○	
		환승 이용자수			
		마을버스(이용객 수, 수송 분담율)	○	○	
		저상버스 도입대수			
		전기차 보급대수			
	교통편의 편의시설	연간 도로혼잡 비율, 교통혼잡비용(차량운행비용, 시간가치비용)			
		주차장 부족율			
주차장(공공, 민간, 기타) 확보율					
평균 주행속도					
				출퇴근시간 평균 주행속도	

대영역	증범위	세부지표	도시경쟁력	삶의 질	
교육	교육 여건	대학생 수	○		
		대학원 재학생 수			
		초등 돌봄학교 설치율			
		외국인 학생 수(유학생 수)			
	교육 기회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방과후교실 지원 학교 수			
		문화예술교육 지원 학교 수			
		고교졸업생 대학진학률			
		지역소재 대학진학률			
		저소득가정 대학생 장학금 지원 학생 수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학생 수			
			고등교육 이수율		
	평생 교육	평생교육 참여자 수			
평생교육 참여율				○	
평생교육기관 수					
				대졸 취업율	
보건 · 의료	보건 의료 인프라	인구 1만명당 병상 수			
		의료 인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수)	○		
		인구 1만명당 의료인력 수			
		지역별 의료기관 분포			
		전문의료기관 수	○		
		의료사고 건수			
	건강보험가입자 수				
	시민 건강	자살률		○	○
		자살사망자 수			
		주관적 건강상태			○
		건강검진자수			
		국민건강보험 지원 건강검진 대상자수 및 검진율			
		음주율			
		흡연율			
		성인흡연율			
		성별 성인흡연율			
		예방접종(국가필수예방 접종률)			
		보건소 서비스(프로그램) 운영실적	치매관리 금연지원		
		보건소 이용자수			
사망 원인					
			평균수명 (기대수명)		

대영역	증범위	세부지표	도시경쟁력	삶의 질	
문화 및 여가 관광	문화 시설	시민 1인당 장서 수			
		도서관 좌석 수			
		도서관 좌석당 인구 수			
	문화 예술 진흥	문화예술분야 예산			
		문화예술활동 지원예산			
		문화예술지원건수			
		문화예술지원진흥기금			
		연간 공연건수			
		연간 전시건수			
	문화 예술 향유	시민 문화예술 동호회			
		문화예술 공연 참여 횟수		○	
		예술 관람률			
		영화 관람률			
		스포츠 경기 관람률			
	여가활용 형태				
	관광	연간 국외여행자 수			
외래관광객 수(내국인, 외국인)		○			
관광사업체 수(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			
	관광숙박시설 객실 수				
생활 안전	화재발생 건수		○	○	
	화재발생 손실액(피해액) 평균 피해액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사상자 수)				
	야간보행 안전도			○	
	경찰관 1인당 인구 수				
	소방관 1인당 인구 수				
				아동안전 사고사망률	
안전	중대범죄(5대 범죄) 발생 건수	살인	○		
		강도	○		
		강간	○		
		폭력	○		
		절도	○		
	범죄	중대범죄(5대 범죄) 검거율			
		여성대상 범죄 발생 건수			
		어린이대상 범죄 건수			
		가정폭력 범죄 발생 건수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소년범죄 발생 건수					
외국인범죄 발생 건수					
자연 재해	자연재해 피해가구 수				
	자연재해 피해규모(피해액)				

대영역	중범위	세부지표	도시경쟁력	삶의 질	
환경	환경 조건	연안환경			
		시가회 면적			
		가로환경 녹지율			
		대기오염도	(측정지점별) 일산화탄소		
			(측정지점별) 아황산가스		
			(측정지점별) 미세먼지		
		주요하천 수질			
	자연환경보호지역 면적 및 비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면적 및 비율				
					체감환경 만족도
	환경 압력	생활폐기물 발생량	발생총량	○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재활용 폐기물 수거량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	○
		오폐수 발생량	생활하수		
			산업폐수		
	연간 녹지 훼손 면적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		
	환경 관리	폐기물 재활용률			○
		매립 및 소각비율			
		하수처리량			
		하수처리율			
		1인당 하수처리량		○	
		하수관거 총길이			
		분류식 하수관거 총길이		○	○
		하수도 보급률			
		상수도 생산량			
상수도 소비량					
1인당 하루 물소비량					
상수도 보급률			○	○	
수돗물 음용률			○		
에너지	에너지 사용량	석유류	○		
		전기	○		
		도시가스	○		
	신재생에너지 비중		○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량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				
	전체 가구수대비 보급률				

대영역	중범위	세부지표		도시경쟁력	삶의 질		
사회 복지	사회 복지 기반 시설	사회복지 시설 수	사회복지관	○	○		
			노인복지관	○	○		
			장애인복지관	○	○		
			생활시설	○	○		
		인구 1만명당 사회복지 시설 수					
		사회복지관당 인구 수(전체 인구 수/사회복지관 수)					
		노인복지관당 노인인구 수(노인인구 수/노인복지관 수)					
		경로당당 노인인구 수(노인인구 수/경로당 수)					
		장애인복지관당 장애인 수(등록장애인 수/장애인복지관 수)					
	생활시설 수용자 수						
	보육시설 수	○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자 수						
	사회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기초생계비 비수급 빈곤층 지원 인원 수 기초연금 수급자 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수 국민연금 가입자 수 국민연금 급여 지급 현황 연금(공무원연금, 교육연금) 가입 현황 연금 급여 수혜자 현황		○			
			사회복지 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 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장애아동 재활치료 인원			
				공공분야 장애인 일자리 수		○	
			노인 일자리 참여자 수		○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예산 비중 분야별 사회복지예산 구성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 사회복지 공무원 중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비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수			○
	자살률						
	문화 및 여가 관광	공공 문화회관 수			객석 수		
					객석당 인구 수		
		문화시설			도서관	○	○
			공연시설	○	○		
			박물관	○	○		
			영화관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			
도서관 소장도서 수							

대영역	중범위	세부지표		도시경쟁력	삶의 질
안전	기타 안전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건수(불량식품, 원산지 표시)			
		건설현장 재해율			
		건설현장 재해자 수			
		사망재해자 수			
		산업재해율			○
		산업재해 지수			
		사망 산업재해 지수			
시민 사회	사회 역량	평생교육 참여자수			
		시민 자부심			
		시민행복지수			
		신뢰도	공공기관 및 공공행정 시민단체		○ 대인
	사회 참여	정치참여	투표율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 참여자수		○
			연간 500시간 이상 봉사활동지수		
		자원봉사 단체수			
		부산시 위원회 민간위원 수	위원회 총원 대비 민간인원 비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액수			
		적십자회비 납부자 수			
		적십자회비 납부액			
	비영리 민간 단체	등록 비영리민간 단체 수			
		등록 비영리민간 회원 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지원단체 수			
		지원액			
언론		언론기관 수			
	언론종사자 수				
	언론단체 수				
경제 · 산업	경제 규모	지역총생산액(GRDP)	전국 비중	○	
			1인당 GRDP	○	
		수출액			
		전국 비중			
	경제성장률(전년대비)			○	
	기업 현황	기업수(규모별)			○(산업별)
		벤처기업 수			
		창업 동향	연간 창업 기업 수		
			청년창업기업 육성 수		
		기업 본사 수			
외국자본 투자유치 규모					

대영역	중범위	세부지표	도시경쟁력	삶의 질
교통	광역 교통	시외버스 노선 수	○	
		시외버스 이용자 수		
		항공여객 수(국내, 국외)		
		국제항공 노선 수		
		연안해운 여객 수		
		연안해운 노선 수		
		국제해운 여객 수		
		국제해운 노선 수		
	교통 교통문화 (교통사고)	교통문화 지수		
		교통법규 위반(적발)건수		
		교통사고 발생률		
		교통사고 발생 건수 자동차 1천(1만대)대당 사고건수	○	○
		중대사고 발생률		
		중대사고 발생건수		
		인구 10만명당 자동차사고 사망자 수		
		인구 10만명당 자동차사고 사상자 수		
		보행로 교통사고 발생건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건수				
노인 교통사고 발생건수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발건수				
정보 · 통신	정보화 기반	인터넷 보급(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PC 보급률	가구당 PC 보급대수	
			인구 천명당 PC 보급대수	
	휴대전화 보급(가입자 수)			
	정보화 이용	인터넷 이용 빈도		
		인터넷 쇼핑 이용자 수		
		저소득층 인터넷 이용 지원(지원액과 지원자 수)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지원액과 지원자 수)				
환경	환경조건	기상개황	연간 강수량	
			월평균 강수량	
			연간 평균기온	
			계절별 월평균 기온	
	공원	산림면적	구성비율	
			시민1인당 산림면적	○
			공원수	
공원	공원면적	공원수		
		1인당 공원녹지 면적	○	○

대영역	증범위	세부지표		도시경쟁력	삶의 질	
경제 · 산업	기업 현황	기업부설 연구소 현황	연구소 수			
			인력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수			
			마을기업 수			
			협동조합 수			
			자활공동체 수			
	산업 육성		산업육성 지원금 규모			
			연간 육성지원 실적			
			산업인력 육성	산업인력 양성 기관 수 연간 산업인력 양성 수		
			창조산업 전문인력 양성 수			
	R&D 사업		연간 R&D 자금 규모		○	
			특허건수			
			R&D 지원 과제 수			
			R&D 사업화 건수			
			R&D 지원사업 참여사업체 수			
벤처기업 창업						
R&D 기반		R&D 인력	이공계 대학교원 수	○		
		R&D 인력 육성 기반	이공계 석박사 학생 수 학위취득자 수			
		R&D 연구기관 수	대학 민간기업			
국제화	국제 교류	국제 자매도시(행정교류) 수				
		국제행사 개최실적(전시, 학술, 문화예술)				
		민간단체 국제교류 실적	건수			
			인원			
	청소년 국제교류 실적	건수				
		인원				
	국제 교류 여건		국제기구 수			
			재부 외국 영사관 수			
			국제항공 연결도시 수			
			국제 여객항로 수			
내향적 국제화		거주 외국인 수		○		
		외국인학교 학생 수				
		외국인 학교 수				
		외국계 기업 수				

대영역	중범위	세부지표		도시경쟁력	삶의 질
참여 행정 및 재정	재정	재정자립도		○	
		부채	시민 1인당 부채규모	○	
		투자기관 채무규모			
		시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방세 세입 신장율			
		사유재산 수입 증가율			
		통합재정수지 비율			
	예산	일반회계 예산 규모	시민 1인당 예산		
		분야별 예산 배분(구성)	예산액 및 비중		
	행정 인력	부산시청 공무원수	공무원 1인당 인구 수		
		부산시(구 군청 포함) 공무원 수	공무원 1인당 인구 수		
		구군별 공무원 수			
	정보 공개 및 참여 행정	부산시청 홈페이지 접속자 수(월 평균)			
		부산시청 앱 이용			
		정보공개 신청건수			
		정보공개 수용률			
		정책실명제 공개 건수			
		시민생활불편 신고 처리율			
120바로콜센터 이용자 수					
120바로콜센터 만족도					
행정서비스현장 이행 실적					
해양 · 농수산	농업	농가 수			
		농지면적			
		농업 생산량			
		도시농업			
	수산업	어선 수			
		어획량			
		위판량(위판액)			
		원양수산업체 수 수산가공업체 수			
	항만 물류	연간 컨테이너 처리량			
		해상물류업체 수			
선박수리업체 수					
조선업체 수 항만서비스 업체 수					
사회의 질			부패(인식)지수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5) 대전광역시 사회지표³¹⁾

대전광역시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회지표는 행정자료, 통계청 등의 기존통계를 재분류·가공하여 작성되었으며, ‘2015 대전광역시 사회지표’는 대전시민의 주관적 의식이나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서 별도의 사회조사인 ‘2015 대전광역시 사회조사’를 통해서도 수집된다. 2015년 제5회 사회조사는 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주거·교통, 사회복지, 공동체 영역을 바탕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대전지역의 5,000개 표본가구의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대전광역시 사회지표는 크게 인구, 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교통, 과학기술, 환경, 사회복지, 문화·여가, 안전, 공동체 등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15>와 같다

31) 대전광역시(2015), 2015 대전의 사회지표

〈표 3-15〉 대전광역시 사회지표

부문	관심영역	세부 관심영역	세부지표
인구	총인구	인구규모	주민등록인구 및 인구성장률, 국적별 등록 외국인
	인구 구성	내국인 인구구성	성 및 연령별 인구, 성 및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외국인 인구구성	구별 외국인 주민수, 성 및 연령별 노인인구, 중위연령
		혼인상태별 인구	혼인상태별 인구(15세 이상 인구)
	인구동태	출생/사망	조출생/조사망률 및 자연증가율,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성·연령별 사망률
국내인구이동		전출입 및 순이동	
가족	가족형성	혼인과 이혼	조혼인률 및 조이혼률
	가족구조 및 기능	가족구성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가구원 구성별, 다문화가구, 다문화가구원을 위한 지원사항
		가족형태	혈연가구의 세대수별 가구분포, 가족형태별 가구 분포, 분거가족-분거유무, 분거가족-분거이유, 분거 가족 거주지역 및 분거기간, 부모생존여부, 부모생존 여부, 부모부양 책임자, 자녀양육방식 및 보육시설 만족도
	가족가치관	가족관계	가사분담 정도, 가족관계 만족도,
반려동물		반려동물 사육 여부, 반려동물 종류 및 마릿수	
소득·소비	소득	생산수준	지역내 총생산 및 1인당 GRDP
		소득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소비	소비생활	소비자물가지수 및 증감률,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 소비생활만족도
	부채	부채	가계 부채 여부 및 이유
	채정	조세부담	조세부담률
노동	산업	산업현황	산업분류별 사업체 증감률, 창조산업 분야별 사업체 및 종사자 비율, 소상공인 건전성
	고용	경제활동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성 및 연령별),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 실업률, 노동유연성 비율, 직업의 유무, 직업 종사상 지위, 직장의 유형, 구직활동 여부, 구직 시 고려요인, 직업 만족도

부문	관심영역	세부 관심영역	세부지표
교육	교육자원	물적자원	학급당 학생수
		인적자원	시설학원 수
	교육기회	교육참여	유치원 취원율, 취학률, 진학률, 졸업생 취업률, 학업 중단률
		교육비용	교육기회 충족도 및 미충족 이유, 거주지역 교육 만족도, 거주지역 교육환경 개선점
		평생교육	평생교육 이용실태, 평생교육 희망강좌
교육효과	교육의 만족도	교육기회 충족도 및 미충족 이유, 거주지역 교육만족도, 거주지역 교육환경 개선점	
보건	보건의료 자원	보건의료 인력	의료 인력 수 및 1인당 인구
		보건의료 시설	인구 천명당 병상수
	건강행태	보건의식 행태	성 및 연령별 기대여명,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건강 상태	당뇨병과 고혈압 유병률, 스트레스 인지률, 고의적 자해(자살)율, 주관적 평가
		건강 검진	암 검진 수검률,
주거, 교통	주택	주택보급	주택보급률,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주거상황	주택의 점유형태별 가구, 이사의향, 거주지역 및 주택 형태, 지역 거주기간 및 정주의사, 거주지 선택 시 고려사항, 주거환경 만족도, 가구당 주거면적
	교통	교통편의	자동차 등록현황, 주차장 확보율, 대중교통 1일 이용객수, 통근·통학 소요시간, 이용교통 수단
		교통의 만족도	대중교통 이용만족도-버스, 지하철, 택시
		과학기술 자원	과학기술 자원
환경	환경압력	환경오염물질 배출	폐수발생량, 생활폐기물 발생량,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1인당
		에너지 이용	최종 에너지 소비량(1인당 포함), 전력소비량, 태양광 발전량,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환경상태	환경의 질	대기오염도, 수질오염도, 소음공해도, 녹지율, 1인당 공원면적
		환경관리	하수도 보급률

부문	관심영역	세부 관심영역	세부지표
사회복지	사회보험	공적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
	공적부조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1인당 급여액, 사회복지시설별 시설 수 및 평균 생활인원
	사회복지 서비스	아동·청소년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수, 지역아동센터수, 소년소녀 가장 가구수, 보육시설 선택시 고려사항, 가장 시급해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여성	여성복지시설수, 여성복지서비스 선호도
		노인	노인복지시설수, 노인고충문제, 노인복지서비스 선호도, 노후생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수, 장애인복지서비스 선호도	
문화와 여가	문화생활	문화시설	문화예술 시설수, 영화관수, 공공도서관 현황
	여가	체육활동	공공 체육시설수 및 면적, 민간체육시설 현황
안전	방법	보고된 범죄발생	유형별 범죄발생건수 및 검거율, 소년범죄 및 외국인 범죄 비율
	방재	사고발생	풍수해 피해, 인적재난 발생현황,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건수, 화재발생, 119 구조 및 구급활동 실적
		도시위험도	CCTV 설치 수
공동체	공공행정	행정 및 재정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정보공개 공개율, 재정자립도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 인식 및 이미지	자원봉사 등록률, 평균 자원봉사 시간, 자원봉사 활동-횟수, 자원봉사 활동-1회평균 시간,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기부참여 및 방법, 기부 비참여 이유, 후원(기부) 횟수 및 금액, 헌혈봉사 참여율, 투표율
지역사회 인식 및 이미지		가족간의 식사, 사회적 소통, 연대감,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포용, 계층적 귀속 의식, 성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 성역할에 대한 인식, 남녀 관계에 대한 인식, 일반인에 대한 신뢰,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 경험, 사회적 기업및 협동조합수,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증가율, 대전 도시 이미지, 향후 대전의 도시이미지, 대전 이미지 향상 요소	

자료 : 대전광역시(2015), 2015 대전의 사회지표, p. 7-11

(6) 대전시민의 삶의 질³²⁾

대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대전시민의 삶의 질 지표는 ‘경제적 삶, 안전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 사회·문화적 삶’의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관 지표와 객관지표로 측정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16>과 같다.

<표 3-16> 대전시민의 삶의 질

영역	주관지표	객관지표
경제적 삶	경제사정	실업률
	경제사정에 대한 전망	경제활동 참가율
	개인의 소비생활	직업의 유형
	현재의 직업생활	하루 평균 근로시간(1인)
	직업의 장래	월 평균 저축(가구)
안전한 삶	범죄로부터의 안전	흡연인구 비율
	의료시설·서비스	의료인력 수
		자동차사고 건수
		화재발생 건수
		구급차 기동력
편리한 삶	주거환경	1인당 주거공간 면적
	교통소통	주택마련 기간
	대중교통을 통한 지역 접근성	평균통행 속도
	생활의 편의	사교육비
	새로운 정보기술 습득·활용	
	교육에 대한 만족도	
쾌적한 삶	시의 행정서비스	
	대기오염	대기오염
	소음	폐기물 발생량
	생활권 녹지	3대하천 수질(BOD)
	도시경관	
사회·문화적 삶	여가활용 만족도	도서관 이용
	여가활동 장애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가활동 참여효과	공연장 이용
		전시장 이용
		체육시설 이용

자료 : 정선기(2007), 2007 대전시민의 삶의 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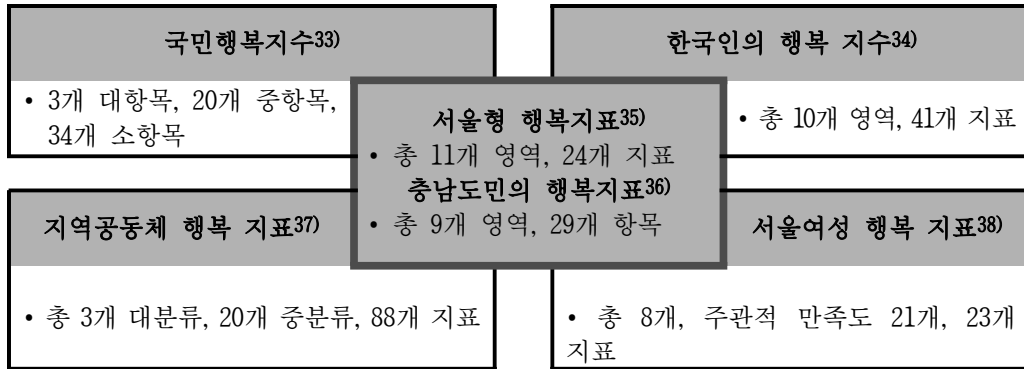
32) 정선기(2007), 2007 대전시민의 삶의 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2. 행복 중심 개발 지수

1) 개요

국내 행복 지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사례 검토는 먼저 전체 또는 국민을 단위에 서부터 지역 시·군·구 단위, 특정 집단 단위의 사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가장 대표적인 지역사회 행복 지수로 알려진 서울과 충남 지역의 사례를 확인하고자 한다. 전반적인 검토 사례는 <그림 3-14>와 같다.

[그림 3-14] 행복 중심 개발 지수(국내)



33) 남주하 외(2013), 한국의 국민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국가미래연구원

34) 김승권 외(2008),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5) 변미리(2015), 메가시티 삶의 질과 서울형 행복지표, 서울연구원

36) 고승희(2013), 충남도민의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충남발전연구원

37) 박승규 외(2015),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8) 김창연·조영미·이혜경·박진경(2012), 2012 서울여성행복지표 개발 및 측정,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1) 세부 내용

(1) 국민행복지수³⁹⁾

남주하 외(2013)의 ‘국민행복지수’는 총 3개 대항목, 20개 중항목, 34개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표 3-17>과 같다. 국민행복지수 산정을 위해 교육, 환경, 문화, 사회적 자본, 건강 등의 각종 자료를 변환하여 지수화 사용하였다. 각 변수의 측정단위의 문제와 왜곡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형표준화 방법을 사용하고, 35명의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층분석과정(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사용해 자의적인 가중치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가중치를 추정하였다. 산정 기간은 2003년 1분기에서부터 2013년 1분기까지였으며, 국민행복지수는 구성요소들 중의 소항목 값들을 가중평균하여 -100~0, 0~100사이의 값으로 산출된다. 분석 결과, 국민행복지수는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4분기에 95.95로 최저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4분기에 111.27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주하 외 2013).

2003년 1분기부터 2013년 1분기까지 살펴본 국민행복지수는 기존의 경제성장 이외에 보다 삶의 질과 경제, 사회 안정 및 안전을 포함하는 거시적인 국민행복지수 산출과 상대적인 비교를 종단적으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결과의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일부 항목의 단위와 편차 등에 의한 왜곡문제로 인하여 정확한 비교와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39) 남주하 외(2013), 한국의 국민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국가미래연구원

〈표 3-17〉 국민행복지수 지표

대항목	중항목(20)	소항목(34)	산식 및 빈도	출처	
경제 성과 및 지속 가능성 (6)	1인당 소비지출	GDP내 최종가계소비 지출	가계최종소비지출/15세 이상 인구(분기)	한국은행	
	1인당 교양 및 오락비지출	GDP내 오락 문화비 지출	오락문화비지출/15세 이상 인구(분기)	한국은행	
	1인당 정부부채	중앙정부부채	중앙정부부채/15세 이상 인구(연간)	통계청	
	1인당 자본스톡	대학진학률	국부 유형고정자산/15세 이상 인구(연간)	통계청	
	인적자본 형성 및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 지수	가구당교육비지출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2인 이상) 교육항목(분기)	교육통계연보
			산출량지수/노동투입량 지수(연간)	통계청	
1인당가계부채	가계신용	가계신용/15세 이상 인구(분기)	한국은행		
삶의 질 (6)	고용	고용률	취업자/생산가능인구(분기)	한국은행	
		비정규직 비중	비정규직근로자/임금근로자(분기)	통계청	
	건강	기대수명	0세의 기대여명(연간)	통계청	
		사망률	1천명 당 사망자수(연간)	통계청	
	민간교육비 지출	민간교육비 부담	소비자물가지수 내 고등교육 물가지수(분기)	통계청	
		교육시설	10만 명당 교육시설 수(연간)	교육통계연보	
		고등학교 졸업률(학업중단률)	당해 학업중단자/전년 말 재학생(연간)	통계청	
	환경	온실가스 배출량 (CO2, CH4, N2O, HFCSs, PFCs, SF6)	총배출량(연간)	환경부	
			대기오염 배출량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일산화탄소)의 각 배출량의 합(연간)
			쓰레기 배출량		중량제 봉투 판매량(연간)
주거	소득증가율-주택가격상승률	가계소득증가율-주택매매 가격지수 증가율(분기)	통계청 KB		
문화시설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연간)	통계청		
경제, 사회 안정 및 안전	중산층 비중	중산층 비중	중위소득 50~150%(연간)	통계청	
	물가	CPI	소비자물가지수(분기)	한국은행	
		생활물가지수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분기)	통계청	

(8)	소득분배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연간)	통계청
		소득5분위배율	상위 20% 소득/하위 20% 소득(연간)	통계청
		절대적 빈곤율	기초생활수급자/추계인구(연간)	통계청
	사회 안전	범죄율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 건수(연간)	경찰청
		이혼율	이혼 건수/15세 이상 인구(연간)	통계청
		자살률	자살건수/추계인구(연간)	OECD, 통계청
	부패와 신뢰수준	부패지수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자료(연간)	국제 투명기구
	자연재난/재해 안전	재난/재해 피해액	재난/재해 피해액(대설, 태풍, 호우, 풍랑 등)(분기)	소방 방재청
	식품안전	식품 등 수거/검사 부적합률	부적합 건수/검사건수(연간)	식품의약품안전청
	노후안정	55세 이상 고용률	55세 이상 취업자/5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분기)	통계청
노인빈곤율		정부발표 최저생계비(시장소득 기준)(연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 : 남주하 외(2013), 한국의 국민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국가미래연구원, p.6

(2) 한국인의 행복지수⁴⁰⁾

한국인의 행복은 주로 주요 타인과의 관계나 자기 자신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긍정적인 감정 즉, 사랑, 화목, 이해, 신뢰, 만족, 희망, 기쁨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인 안정과 가족, 의미 있는 타인, 일의 유무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현경자, 2004; 김승권 외, 2008 재인용). 이러한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특성과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한 10개 영역의 41개 지표(안)를 개발하였다. 10개 영역은 심리적 안정, 가족, 결혼, 개인적 관계, 지역사회, 일상생활,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안정, 일, 건강, 주거 등이며 구체적인 하위 지표의 분석은 분야별 우선순위의 평균값과 각 지표의 영향정도를 분석하였다. 영향정도는 매우 영향이 적다=0에서 보통이다=5, 매우 영향이 많다=10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3-18>과 같다.

40) 김승권 외(2008),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3-18〉 한국인의 행복 지수(안)

영역	하위지표	평균 우선순위	평균 영향정도
심리적 안정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2.4	8.0
	사회환경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 및 유연성	4.3	6.5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2.8	7.9
	자신의 청소년기 성장환경에 대한 만족도	5.5	5.0
	자기계발에 대한 목표 설정 여부 및 달성도	3.1	7.4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2.9	7.9
개인적 관계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1.6	9.1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2.2	8.5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2.4	7.6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반응 정도	3.7	6.2
가족·결혼	결혼을 할지에 대한 자율성 보장	3.7	7.3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1.5	8.7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2.1	8.1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2.8	7.7
개인적 관계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1.6	9.1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2.2	8.5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2.4	7.6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반응 정도	3.7	6.2
지역사회	지역사회에 참여 여부 및 정도	1.9	5.3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만족도	1.3	6.6
일상생활	식생활의 규칙성	3.4	5.7
	식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도	2.7	6.7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2.1	7.6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1.8	8.0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Gender),	8.4	6.1
	연령	7.4	6.6
	혼인상태	6.8	7.1
	취업여부	5.0	8.5
	종사상 지위	5.4	7.5
	직업	3.1	8.2
	개인소득 수준	3.9	8.5
	가구소득 수준	5.1	8.1
	종교생활 여부 및 신앙수준	8.3	7.1
경제적 안정	다른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만족감	2.2	7.0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1.9	7.4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1.9	7.4
일	일을 할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 자율성 보장 정도	3.4	6.6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1.8	8.5

영역	하위지표	평균 우선순위	평균 영향정도
	현재 일에 대한 급여,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2.5	8.1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2.4	8.7
건강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 수준	1.6	9.0
	가족의 건강 수준	1.8	8.7
	규칙적인 운동 여부	2.7	7.3
주거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1.2	7.8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1.8	6.9

자료 : 김승권 외(2008),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99

델파이 조사로 살펴본 각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우선순위 영역은 심리적 안정 영역이었으며, 다음으로 가족결혼, 건강, 경제적 안정, 개인적 관계, 일, 일상생활, 인구사회학적 특성, 주거, 지역사회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 지수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 선정을 위하여 영향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8.0 이상의 지표 10개를 선정 후 각 영역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지표를 중심으로 지표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고려하고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는 등의 4단계의 보완단계를 거친 후 최종 21개의 행복결정 요인의 지표를 확정하였다. 그 내용은 <표 3-19>와 같다.

21개의 행복요인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한국인의 전반적인 행복 수준은 100점을 기준으로 67.8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50점이 평균이고 80점 이상을 매우 행복한 수준으로 가정했을 때 한국인은 ‘비교적 행복하다’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행복감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양한 행복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장 영향도가 높은 요인은 가족결혼생활만족도, 가족의 건강수준, 자아 존중감 정도, 긍정적 가치관 및 감정, 가족관계 만족도, 출산 및 자녀성장만족도, 부부생활(이성교제) 만족도,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친구·동료와의 관계 만족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이 가족생활, 결혼생활의 안정, 심리적 안정, 자신과 가족의 건강,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등이 행복에 우선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일과 관련된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산과 소득과 같은 경제적 안정과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들은 다소 후 순위로 나타나서 행복에 대한 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3-19〉 한국인의 행복 지수 결정 요인과 수준

영역	하위지표	평균 행복 수준
심리적 안정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7.03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7.13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6.57
개인적 관계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7.98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7.39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7.27
가족결혼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7.43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6.94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7.88
지역사회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만족도	6.18
일상생활	여가휴식에 대한 만족도	6.25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6.82
경제적 안정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할 수 있다는 충족감	5.46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5.84
일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6.70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6.18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6.28
건강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6.80
	가족의 건강수준	7.38
	규칙적인 운동 여부	5.39
주거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6.54

(3) 지역공동체 행복지수⁴¹⁾

지역공동체의 행복지표의 기본 구상은 기존 행복지수와 차별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읍면동 통리의 주민을 대상으로 1:1로 측정하며, 공통지표로 구분된 모든 지역공동체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활용하여 공통지표는 전체의 37%인 88개, 63%는 55개는 정량 및 정성지표로 구분하였다. 또한 지역공동체의 행복지표는 크게 마을자원, 공동체 역량, 삶의 질의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20개 중분류, 88개 세부지표로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20>과 같다.

41) 박승규 외(2015),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표 3-20〉 지역공동체 행복 지표

대분류	중분류	하위지표	특성	비고
마을 자원	자원 기반	무형 자원수		
		환경 자원수	정성	어메니티 자원, 자연경관, 특이 지형, 동식물, 기후
		공간 자원수	정성	건축물, 가로경관, 광장, 전통시장
		역사 자원수	정성	문화재, 역사문화유산(유무형), 산업유산
		관광 자원수	정성	축제 및 이벤트, 예술작품, 관광명소, 관광시설
		이미지 자원수	정성	지역내 정체성, 지역의 상징성(브랜드, 특산품, 향토음식)
		기업 자원수	정성	향토기업, 산업단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노동 자원수	정성	고용 프로그램, 직업훈련, 전문지식, 명인, 기능
		인물 자원수	정성	지역내 유명 인물
		경제 자원수	정성	사회적 공헌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수
마을 자원	자원 활용	마을자원의 필요와 문제해결과의 부합정도	정성	
		지역자원의 활용 정도	정성	
		지역자원과의 스토리 연계성	정성	
공동체 역량	공동체 기반	공동체 사업 계획 수립 여부	정량	
		공동체 사업 진행 만족도	정성	
		중간지원조직의 유무 인지 여부	정량	
		중간지원조직 이용 만족도	정성	
		주민 의지 및 관심 정도	정성	
		마을 모임 장소 개소수	정량	
		공동체 교육 참여 정도	정량	
		지역내 공동체 행사 개최	정량	
		지역내 공동체 홍보	정량	
		마을회관 등 활용 시설 수	정성	마을학교, 회관, 도서관 등
		지역사회 소속감 정도	정성	
	시정 및 도정에 대한 참여 정도	정성		
	공동체 과정	공동체 내 교육 프로그램 수	정량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도	정량	
	공동체 인력	지역내 공동체 리더수	정량	
인력풀 구성 여부		정량		
공동체내 참여인원 및 구성원수		정량		
		공동체 인력 필수교육 이수율	정성	

대분류	중분류	하위지표	특성	비고
	공동체 조직	공동체 내 교육 불만족도 반영	정성	
		공동체내 주민회의 건수	정성	
		지역주민 및 단체와의 협동적 관계망 형성 정도	정성	
	공동체 관계	전반적 가족관계	정성	노후 생계 보장
		배우자 관계	정성	
		자녀 관계	정성	
		친부모 관계	정성	
		배우자 부모 관계	정성	
		형제 관계	정성	
		배우자 형제관계	정성	
	공동체 성과	공동체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수	정량	
		공동체 활용을 통한 소득 창출 정도	정량	
		지역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기여 정도	정성	
공동체 역량	공동체 활용	지역내 공동체 리더 활동 실적	정량	공동체의 기여 분야 1개로 종합조사
		전문가 활용 정도	정량	
		공동체로 인한 타부문 기여도(교육)	정성	
		공동체로 인한 타부문 기여도(의료)	정성	
		공동체로 인한 타부문 기여도(복지)	정성	
		공동체로 인한 타부문 기여도(주거)	정성	
		공동체로 인한 타부문 기여도(교통)정성	정성	
		공동체로 인한 타부문 기여도(교통)	정성	
		공동체로 인한 타부문 기여도(편의시설)	정성	
삶의 질	경제 부문	유통시설 접근성	정량	
		청년고용	정량	
		소득 만족도	정성	
		소비 만족도	정성	
	교육 부문	대학 진학률	정량	
		취업률	정량	
		평생교육 기관수(이용률)	정량	
		교육 만족도	정성	

대분류	중분류	하위지표	특성	비고
	교통 부문	대중교통 접근성	정성	
		교통 만족도	정성	
	문화 부문	국공립보육시설 수(이용률)	정량	
		문화기반 시설수	정량	
		문화기반 시설 이용률	정량	
	복지 부문	예산대비 사회복지비 비중	정량	
		복지 만족도(복지시설)	정성	
	안전 부문	범죄 발생률	정량	
		살인률	정량	
		교통사고 발생건수	정량	
		안전 만족도	정성	
		교통사고 사망수+부상자수	정량	
	의료 부문	1인당 병상수	정량	
1인당 의료인수		정량		
의료 만족도		정성		
의료 시설수		정량		
삶의 질	일자리 부문	일자리 만족도	정성	관리자 ~ 단순노무자 시간제, 전일제, 기타 거주 시군, 거주 시군 외
		직업 안정성	정성	
		고용률	정성	
	임금 부문	임금 만족도	정성	
		주거 부문	노후 주택비율	정량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정량	
	주거 만족도		정성	
	환경 부문	환경 만족도	정성	

자료 : 박승규 외(2015),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p.80-85

(4) 서울여성 행복지표⁴²⁾

이외에도 특정 집단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개발된 행복지표도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여성행복지표는 기존의 여성과 관련된 지표들이 주요한 사회조사 통계를 위주로 측정되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성평등 현황이나 수준을 측정하는 데에는 유용하지 만, 지표값의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업과의 연계성을 도출하기 어렵고, 지표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의 체감과 공감의 낮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여성의

42) 김창연·조영미·이혜경·박진경(2012), 2012 서울여성행복지표 개발 및 측정,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관점과 이해,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서울여성행복지표에서의 <그림 3-15>와 같이 ‘행복’은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로부터 기인하는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전제 하에, ‘개인의 웰빙 또는 삶의 질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개념으로 물질적 조건과 더불어 개인들의 주관적 만족감에 의해 결정되는 경험’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3-15] 서울여성 행복지표의 행복 구성 요소

주요 영역	세부 요소	행복 (Happiness)
객관적 삶의 질 (Quality of Life)	경제적 요소, 신체적/인구학적 요소, 사회관계적 요소, 환경적 요소, 제도적 요소, 사회심리적 요소	
주관적 안녕감 (Subjective Wellbeing)	생활만족, 욕구 충족, 기쁨 수준 (직무 만족, 자긍심, 통제 신념)	

자료 : 김창연·조영미·이혜경·박진경(2012), 2012 서울여성행복지표 개발 및 측정, p.8

이에 각 지표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아니라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서울살이’가 어떠하고, 어떤 요소들이 충족될 필요가 있는 요소를 측정해서, 사회적 소수자의 관점에서 수립, 시행되는 정책이 공동선(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만족 정도를 여성의 시각에서 측정하기 위하여 서울시 여성들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와 정책요구도에 대해서 보다 일상적인 언어로 조사, 측정하여 여성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하고자 개발된 생활밀착형 지표를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삶의 질은 다음의 <표 3-21>와 같은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표 3-21〉 서울여성행복지표 삶의 질 결정 요인

삶의 질 결정 요인	세부 요소
경제적 요소	소득, 생활수준, 주택, 학력, 여가, 직업
사회관계적 요소	결혼 및 가족생활, 친구 및 이웃관계
사회심리적 요소	성격, 문화
환경적 요소	환경, 재난, 동네, 치안
제도적 요소	민주주의, 사회보장
신체적 또는 인구학적 요소	건강, 연령, 성

서울여성행복지표는 한국인의 행복지수(김승원 외, 2008), 여성행복도시영역지표(조영미 외, 2009), Better Life Initiatives(OECD, 2012) 등의 선행연구를 주로 활용하여 공통적으로 주관적 만족도와 객관적 삶의 질의 요소를 추출하였다. 주관적 만족도는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로 주관적 만족도 또는 만족도, 객관적 삶의 질은 사회, 제도, 정책적인 삶의 질에 대한 개인의 인식도로 주관적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을 의미하면서, 공통적인 요인으로 돌봄과 경제력, 여가 및 문화, 안전, 건강, 주관적 만족도 등이 행복지수나 지표에의 공통 요인으로 도출하였으며, 크게 돌봄, 경제력, 여가, 안전, 건강 등 5개 영역을 구성하였다. 또한 100세 시대의 도래, 가족형태의 다변화 등과 같은 서울시의 인구학적 변화, 공동체 활성화와 같은 서울시 정책적 비전을 반영한 서울시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규 영역을 추가하였으며, 구체적인 선정 사유는 〈표 3-22〉와 같다.

〈표 3-22〉 서울여성행복지표 신규 영역별 선정 사유

신규 영역	선정 사유
나이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수명 연장 및 노인인구 증가, 노인가구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 반영 - 노인=돌봄의 대상에서 자기 돌봄의 주체로 인식 전환 필요 - 개인, 사회의 돌봄 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는 노인의 삶을 보장, 준비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에의 시민참여, 마을 공동체 등 자생적 지역 공동체 관심 고조 반영 - 수동적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 정책 참여자로서 활동적·실천적인 시민 여성 역할 중요
공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구성의 다양화 : 다문화가족, 소수자, 장애인 등의 증가 - 가족 형태 다 변화 : 비혼, 공동체 가구, 비혈연 가구,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2인 가구

총 8개 영역과 주관적 만족도, 21개 키워드, 23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서울여성행복지표는 서울시 거주 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세부 지표 내용과 조사 결과는 〈표 3-23〉와 같다. 분석 결과, 주관적 만족도를 포함한 전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중간값인 2.5점을 약간 웃도는 2.67점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하위 영역은 공생(2.29점), 돌봄(2.36점), 참여(2.40점), 경제력(2.53점), 나이듦(2.56점)으로 나타났으며, 상위영역은 주관적 만족도(3.23점), 안전(3.07점), 여가(2.88점), 건강(2.75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노인 지원과 복지 증진,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사회적 소수자 및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정책적 관심 제고, 봉사활동과 연계한 시정 및 구정에의 참여 기회 확대, 공공임대 주택 확대 및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의 제공이라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표 3-23> 서울여성행복지표의 영역별 키워드 구성과 지표

(단위 : 5점 만점, 전체 평균 : 2.67점)

영역	영역별 키워드	지표	결과
1. 돌봄	1. 영유아 보육 2. 아동 보육 3. 노부모 부양	1. 여성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만큼 보육시설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2.16
		2. 주5일제 수업의 도입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은 방과 후 교실 등의 정책으로 보완된다고 생각한다	2.85
		3. 노부모 부양에 어려움을 느낄 때 도움 주는 정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08
			2.36
2. 경제력	4 수입 적정성 5 직업 안정성 6 주거 안정성	4. 현재 나 또는 우리 가족의 가계수입은 생활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2.52
		5. 나 또는 우리 가족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안정적으로 계속 할 수 있다	2.75
		6. 내 집을 장만하거나 주거지를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2.33
		2.53	
3. 나이듦	7. 개인의 노후준비 8. 사회의 노후준비	7. 나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2.43
		8. 아름답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성형과 다이어트도 필요하다	3.25
		9. 여성노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제도 및 서비스가 잘 갖추어져 있다	2.01
			2.56
4. 여가	9. 여가 및 문화시설	10. 나는 우리 동네에서 충분히 여가생활이나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다	2.88
5. 안전	10. 야간 보행 안전성 11. 자연 재해 안전성	11. 우리 동네는 야간에도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다	2.85
		12. 나 또는 우리 집은 폭우나 폭설, 지진 등의 피해로부터 안전하다	3.28
			3.07

(단위 : 5점 만점, 전체 평균 : 2.67점)

영역	영역별 키워드	지표	결과
6. 건강	12. 간병 지원 (치료지원) 13. 건강검진 지원 (예방지원) 14. 일상적 건강 유지 지원	13. 나 또는 가족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렸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14. 여성들이 잘 걸리는 질환(유방암, 자궁암, 관절염 등)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15. 우리 동네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체육시설이나 운동장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2.32
			2.75
7. 참여	15. 시정 및 구정 참여 16. 봉사활동 참여 및 수혜	16. 나는 서울시 및 우리 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내가 원할 때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7. 나는 종교활동을 제외한 봉사활동이나 현금, 물품 등의 기부를 활발히 하고 있다 18. 나는 내가 필요로 할 때 지역사회나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19
			2.75
8. 공생	17.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인식 18.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19. 장애인이 차별이나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문화 및 시설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20. 비혈연가족 및 공동체가족, 한부모가족, 결혼 이민자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공공서비스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2.51
			2.38
주관적 만족도	19. 건강상태 만족도 20. 생활환경 만족도 21. 행복감	21. 나는 몸과 마음이 대체로 건강하다 22. 나는 전반적인 생활환경에 만족한다 23. 나는 행복하다	2.30
			2.40
주관적 만족도	19. 건강상태 만족도 20. 생활환경 만족도 21. 행복감	21. 나는 몸과 마음이 대체로 건강하다 22. 나는 전반적인 생활환경에 만족한다 23. 나는 행복하다	2.21
			2.36
주관적 만족도	19. 건강상태 만족도 20. 생활환경 만족도 21. 행복감	21. 나는 몸과 마음이 대체로 건강하다 22. 나는 전반적인 생활환경에 만족한다 23. 나는 행복하다	2.29
			3.37
주관적 만족도	19. 건강상태 만족도 20. 생활환경 만족도 21. 행복감	21. 나는 몸과 마음이 대체로 건강하다 22. 나는 전반적인 생활환경에 만족한다 23. 나는 행복하다	3.08
			3.51
주관적 만족도	19. 건강상태 만족도 20. 생활환경 만족도 21. 행복감	21. 나는 몸과 마음이 대체로 건강하다 22. 나는 전반적인 생활환경에 만족한다 23. 나는 행복하다	3.23
			3.23

(5) 서울형 행복지표⁴³⁾

‘서울형 행복지표’는 총 11개 영역, 2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3-24>와 같다. 이 지표는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경제, 주거, 일자리, 인적 역량, 환경, 커뮤니티, 시민참여, 건강, 안전, 문화여가, 생활만족도의 11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OECD의 ‘지역 삶의 질 평가’ 체계와 유사하여 국제비교의 장점이 있다.

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행복도는 100점 만점에 71.2점으로 조사되었으며,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물질적 요소 자체와 이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득과 건강상태가 서울시민들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조사되었으나, 소득 등 경제사회적 조건 자체 보다는 이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요소들 중에서는 삶의 성취도, 현재의 생활수준, 미래안정성, 직업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⁴⁴⁾

43) 변미리(2015), 메가시티 삶의 질과 서울형 행복지표, 서울연구원

44) 변미리(2015), 서울시민의 행복 체감도와 행복지표 활용 방안, 서울연구원, p.3

〈표 3-24〉 서울형 행복지표 체계

영역	지표	산출방식	비고
경제	소득만족도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정도	정성
	경제활동인구	전 인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비율	정량
주거	주거비	가계수입에서 주택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정량
	1인당 평균 사용 방수	방 수/가구원 수	정량
	기본 시설 측면	화장실 수/가구원 수	정량
일자리	직업 안정성	지난 6개월 간 고용되어 있는지 여부	정량
	개인수입	정규직의 연간 평균 수입	정량
	고용률	15~64세의 고용률(연간)	정량
	실업률	15~64세의 실업률(연간)	정량
인적 역량	교육능력	정규교육을 받은 기간	정량
	교육정도	25~64세 중 고등교육 이수율	정량
	교육만족도	교육환경에 만족하는 정도	정성
환경	수질오염	수질 만족도	정성
	환경오염	미세먼지 농도	정량
커뮤니티	사회적 유대	필요할 때(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또는 지인이 있는지 여부	정성
시민 참여	자원봉사율	자원봉사 참여 비율	정량
	투표율	최근 선거에서의 투표율(투표인 수/등록인 수)	정량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나쁘다로 평가	정성
	기대여명	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 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평균 생존연수	정량
안전	살인율	인구 100,000명당 살인건수	정량
	폭행률	폭행 및 강도로 인한 피해경험	정량
문화 여가	문화여가시간	개인의 문화와 여가에 보내는 시간	정량
	삶의 균형	장시간 근무비율	정량
생활 만족도	생활만족도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정성

자료 : 변미리 외(2015), 메가시티 삶의 질과 서울형 행복 지표, p. 66

(6) 충남도민 행복지표⁴⁵⁾

충남연구원에서는 2012년 충남의 행복지표 개발에 대한 과제 수행을 통해서 행복지표 측정틀을 정립하였다. 특히, 행복에 대한 정의와 지표를 구성하는 영역과 선정, 충남 행복 지표 설정에 있어서의 지역적 특성과 영역별 도민의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지역적 특성에 대한 반영과 참여과정을 부각시켰다. 특히, 행복 지표를 지역 주민이 집단저공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Values)와 이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실행(Actions) 간의 차이에 대한 대차대조표라 인식하면서 일자리 및 소득·소비, 주거·교통, 가족 및 공동체, 건강, 교육, 문화·여가, 환경, 주민참여, 주관적 웰빙 영역과 하위 지표를 <표 3-25>와 같이 개발하였다.

<표 3-25>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

영역	내용	세부지표(객관식)	세부지표(주관식)
일자리 및 소득·소비	고용상태	고용률(청년층, 고령층)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여성실업률 비농가 실업률 비정규직 비중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근무환경	실질임금 총액 성별 임금격차	직장 내 인간관계 만족도 업무량에 따른 스트레스
주거·교통	주거	자가거주비율 주택전세가격지수	주택만족도
	교통	통근·통학 소요시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교통시설 이용 편리성
	공원 및 생활편의	1인당 공원 및 녹지 조성면적 상수도보급률	공원과의 접근용이성 생활편의시설(문화·여가·체육시설)과의 접근성
	안전	사회안전망시설(CCTV) 구축도 범죄발생건수	자연·재해재난에 대한 안정성
가족 및 공동체	가족관계		가족접촉 빈도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 갈등 가족 폭력

45) 고승희 외(2013), 충남도민의 행복지표 측정과 정책 연계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영역	내용	세부지표(객관식)	세부지표(주관식)
	가족형태	한부모 가구 비율	
		독거노인 비율	
		소년소녀가장 비율	
	일·가족 양립		부정적 일가족 전이
	사회적 관계	가까운 친구 수	사회적 관계망 자살율
		공동체 참여	
	사회적 신뢰		사회적 신뢰
건강	건강상태	출생시 기대수명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인구 천명당 중증 암환자수) 흡연율과 음주량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
	의료서비스	인구 천명당 의사수 혹은 병상 수 의료비 본인부담률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도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교육	교육기회	영유아교육 접근성 고등교육 접근성 평생교육 접근성	계열 혹은 전공 만족도
	교육여건	교원 1인당 학생 수 1인당 장서 수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사교육비 사교육 효과성
	교육성과	성적 학습시간	학습내용 만족도 학습결과 만족도
문화·여가	문화자원 및 문화활동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여부 레저시설 이용 여부 국내관광여행 여부 해외여행 경험 및 여부	지역 자원과악 지역 자원활용 여부 지역자원(시설) 변화
	만족도		삶의 만족도 변화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환경	물	하천수질 호소수질	수질 만족도
	폐기물	생활폐기물 처리율	주변 청결상태
	환경보건	환경오염관련 질환 발생율	건강위협

영역	내용	세부지표(객관식)	세부지표(주관식)
주민참여	참여기반에 대한 인식		도정에 대한 만족도 정책인지
	참여	투표율	영향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	청렴도 정보공개율	신뢰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정도(0-10점 척도)	
	정서경험	긍정적,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경험 여부	
	심리적 변영	심리적 웰빙의 관점에서 개인의 가치관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 정도를 측정	
	성격 측정	결과 분석시 통제변수로 활용하기 위한 항목으로 주관적 웰빙과 가장 관련이 높은 외향성을 측정	

자료 : 고승희 외(2013), 충남도민의 행복지표 측정과 정책 연계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이외에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경제행복지수(Economic Happiness Index, EHI)’는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이며, 경제상태, 의식, 외부 요건 등에 의해 변화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2007년 12월부터 반기별로 조사 발표되고 있으며, 경제적 행복은 <표 3-26>과 같이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 경제적 평등, 경제적 불안의 각각의 5개 하위요소의 지수화와 ‘전반적 행복감’의 종합으로 구성된 경제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5).

5개 하위 요소의 지수는 각각 긍정 100점, 중립 50점, 부정 0점으로 하여 평균점수를 내며, 경제적 불안은 역점수로 처리한다. 전반적 행복감은 경제적 행복도에 대한 응답이 경제적으로 행복하다는 100점, 보통이다 50점,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다 0점으로 하여 평균을 구하며, 경제행복지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 50점의 중간값을 가진다. 또한 ‘경제행복 예측지수’는 미래의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한다’에 대하여 질문하여 ‘그렇다’와 ‘아니다’의 비율의 차(가중치 0.5 적용)에 50을 더하여, 50 이상이면 경제적 행복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50 미만이면 그 반대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한다(현대경제연구원, 2015).

〈표 3-26〉 경제행복지수

구분	이론 및 근거	내용	질문	답변
경제적 안정 지수	Maslow(1934) Need theory	어느 일정 수준의 경제적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한 다음 단계의 욕구로 진행되지 않음	나(또는 귀댁의 가장)의 일자리와 소득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내 노후의 경제 상황은 안정적일 것 같다.	(1) 그렇다 (2) 반반이다 (3) 아니다
경제적 우위 지수	Frank Robert(1986)	사람은 그가 속한 사회에서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수준이 다름	나는 내 주변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편이다. 최근 6개월 간 경제적 열등감으로 마음 상한 경험이 있다.	
경제적 발전 지수	Daniel Kahneman(1979) Prospect theory	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나의 소득, 자산 등 경제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은 나아지고 있다.	
경제적 평등 지수	Veenhoven(2006) Inequality-Adjusted Happiness	개인의 경제적 행복은 소속 집단에서의 경제적 불평등도에 의해 차이를 나타냄	현재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평등해 질 것이다.	
경제적 불안 지수	Okun(1976) Misery Index	물가, 실업률 등 외부 요인이 개인을 불안하게 하는 작용을 함	내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나를 불안하게 한다. 내가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	
전반적 행복감		나는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경제 행복 예측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1) 예 (2) 아니오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15),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경제적 행복감, 2013년 이래 최저, 현대경제연구원, p. 11-14

최근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2015년 6월 11에서 19일까지 전국의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810명을 전화설문 조사한 결과, ‘경제행복지수’는 총 40.4점으로 201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미래의 경제적 행복감인 ‘경제행복 예측지수’는 2007년 하반기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대경제연구원, 2015). 이어 2015년 12월 10월부터 18일까지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807명을 조사한 결과, 총 44.6점으로 전기 대비 +4.2점 상승하였으며, 미래의 ‘경제행복 예측지수’도 크게 상승하여(+6.4점) 63.7점으로 나타

났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전국 16개 시도지역의 평균이 44.6점인 가운데 대전은 49.7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기(53.5점), 대구(52.2점), 제주(50.8점), 충남(50.7점)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수준에 해당되는 결과이다(현대경제연구원, 2016).

삼성경제연구소의 ‘가계의 경제행복도 조사’는 가계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행복(Economic Well-being) 수준을 소비 수준, 재산 수준, 분배형성성 및 경제적 안정성의 4가지 영역과 10개의 하위지표로 나누어 파악한 후 종합하여 지수화한다. 또한 1년 전에 비해 느끼는 현재의 경제적 체감 행복도는 ‘체감지수’로, 현재 수준에 비해 1년 후에 예상되는 경제적 행복도는 ‘예상지수’로 조사한다(이은미·정진영, 2010). 구체적인 지표의 구성과 내용은 <표 3-27>과 같다.

<표 3-27> 가계의 경제행복 지수

영역	변수
소비 수준 지수	재화 소비, 여가 소비 수준
재산 수준 지수	금융자산 수준, 부동산 수준, 근로소득 수준
경제 안정성 지수	고용 안정성, 금융시장 안정성, 부동산시장 안정성, 노후 안정성

자료: 이은미·정진영(2010), 2010년 4/4분기 부가조사 : 가계의 경제행복도 조사, 삼성경제연구소, 116, p.1

제3절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행복지수 관련 국내외 기초 및 중심의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행복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측정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개념과 지표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주관적 웰빙이나 행복’, ‘삶에 대한 만족도 또는 삶의 질’, ‘정서 경험’ 등과 같이 행복 관련 직·간접 질문과 주관적 만족이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⁴⁶⁾ 하지만 여전히 삶의 질, 웰빙에 대한 개념과 혼용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대전형 행복지수의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삶의 질과 웰빙과의 관계성과 공통점, 차이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대전형 행복지수’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대전 지역 주민들의 행복, 대전 지역사회의 행복, 대전 지역사회 환경의 행복에 대한 의견과 현황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행복의 보편성은 객관적 혹은 물질적 조건이나 환경을 일정 부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주관적 웰빙이나 행복감 역시 독립적으로 조사되기 보다는 다른 조사 내용에 독립적인 영역으로 포함되거나 전반적인 사회적 여건을 알 수 있는 각종 사회지표나 조사 결과 등이 활용되어 종합적으로 산출되고 있다. 이에 행복 역시 2가지 삶의 질 차원에서 측정되어 왔는데 하나는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사회지표를 활용한 삶의 질을 측정하는 방법과, 주관적 측면에서 개인의 삶에 질에 대한 만족이나 느낌 등의 측정이라는 절충주의 방식이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전형 행복지수의 조사나 측정 방법 역시 객관적, 물질적인 조건과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측정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조사 내용의 간결성과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조사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존의 지역사회 지표에 행복과 관련된 추가적인 질문을 보완한

46) 고승희(2012), 충남도민의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충남연구원, pp. 244-251

행복조사 지표는 행복의 보편타당성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비교가능한 결과일지만 결국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조사나 자료수집의 피로도를 높이고 체감하지 못하는 행복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결과로 전락될 수 있다. 때문에 조사 대상 역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과 같은 인구와 생애주기, 성별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의 표본과 행복을 체감, 인식할 수 있는 문항으로 간명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부 조사의 경우 일회적으로 실시되거나 기존 행정자료나 사회조사의 주기에 따라 산출되는 행복지수의 경우 최근의 행복 수준을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시차와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행복 위주의 간명한 내용과 문항의 개발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셋째, 행복 지표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즉, 많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볼 때, 행복지수의 공통 영역으로는 객관적/외부적 요인, 주관적/내부적 요인과 같은 기준들로 경제적 수준, 교육 수준, 주거, 일자리와 고용, 건강, 여가와 문화, 지역사회 공동체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조사 결과와 개인과 지역사회 체감의 행복 수준은 늘 격차가 존재한다. 또한 기존 행복에 대한 조사는 행정기관의 홍보용으로 일회적으로 수행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행복에 대한 체감과 정책 연계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전형 행복지수의 구축을 위해서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조사나 지표 개발에 급급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행복 조사에 대한 필요성, 인식 등 지역사회 주민들의 관심을 지표 개발의 초기부터 홈페이지 구축, 세미나 언론홍보 등과 같은 온오프라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교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정책적 연계와 평가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개발의 이슈에 있어서도 이러한 의견 수렴 결과는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장

대전형 행복지수의 개발

.....
제1절 행복지수 개발의 기본방향

제2절 행복지수 개발의 절차

제3절 행복지수의 지표 선정
.....

제 4 장 대전형 행복지수의 개발

제1절 행복지수 개발의 기본방향

1. 대전형 행복지수 개발 시 고려사항

1) 행복지수의 초점

행복에 대한 정의는 제2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며,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차이가 존재 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행복은 일반적으로 삶의 질, 복지, 웰빙, 삶의 만족 등의 개념과 혼용되고 있다. 또한 행복은 개인의 전체 삶에 대한 주관적 감정과 평가로 정의되기도 하고, 주관적 삶의 만족, 웰빙 등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Veenhoven, 2012; 박승규·김선기, 2014).



자료: 배응규 외(2012).

<그림 4-1> 행복의 의미 및 초점

<그림 4-1>에서 보면, 행복의 주관적 측면은 정신적 환경 즉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받으며 주관적인 평가와 인지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삶에 대한 행복감, 만족감, 성취감 등으로 정의 할 수 있다. 행복의 객관적 측면은 물리적 환경 즉 객관적 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삶의 객관적인 물리적 구성요소를 의미한다. 이는 의식

주, 건강, 성별, 연령, 소득, 교육, 보건 등으로 정의 할 수 있다(배응규, 2012).

이렇듯 행복의 개념의 다의적이며, 시각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행복지수의 구축도 어떤 측면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행복지수에 관한 국제사례 및 국내연구에서도 행복지수의 영역 및 지표가 통일되지 않고 다양하게 구분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 연유할 것이다. 따라서 행복지수의 초점과 관련하여 논점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지수의 초점을 물질적 조건 등 객관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삶에 대한 만족, 심리적 안녕 등 주관적 측면에 둘 것인가, 혹은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상호혼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행복을 삶의 만족도, 긍정적·부정적 정서 경험, 삶의 의미와 같은 주관적 인지 및 평가로 간주하여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삶의 질의 의미처럼 객관적인 생활 조건과 이에 대한 인지 및 평가를 초점을 둘 것인가와 관련된다. 예컨대 OECD의 BLI(Better Life Index)의 경우에도 삶의 질의 객관적·주관적 측면의 쌍방을 대상으로 고찰하고 있다. 즉, 삶의 질의 객관적 요소는 사람들의 생활 상황이나 생활의 질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평가하고 느끼고 있을까에 관한 정보도 ‘어떠한 상황에 있어, 어떻게 행동할까’ 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것이다(박승규 외, 2015). 그러나 행복은 객관적인 차원과 주관적인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행복은 삶의 질에 비해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 대체로 주관적 안녕, 삶의 만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둘째, 행복지수의 초점을 도시수준(city-level approach)에 둘 것인가? 아니면 개인(시민)(individual-level approach)수준에 두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개인수준에 초점을 둔다면, 주관적 측면을 강조할 것이며, 도시수준에 집중한다면 객관적 측면을 중요한 지표로 구성할 것이다. 지역의 행복지수를 파악하는 목적은 상이할 수 있으나, 대전형 행복지수의 초점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파악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2) 대전형 행복지수의 특성

행복에 관한 측정노력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고(UN, OECD BLI 등), 다양한 학문적 관심(경제적, 심리학, 정책학 등)과 함께 국가적으로나 지역별로도 행복에 대한 측정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즉 과거의 성장지향적 패러다임의 한계, 소득중심의 행복도에 대한 비판 등은 새로운 가치지향의 행복도 측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체계를 발굴하고 있다.

대전시 역시 시정방향 및 미래비전 등을 통해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민의 삶과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민선6기의 시정구호인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를 구현하고, 대전2030글랜드 플랜에 나타난 미래 비전 등을 고려하여 정책과 연계가능한 대전 행복지표체계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수준에서의 행복지표는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일차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별, 지역별 행복 지표(예, 서울, 충남 등)의 경우, 영역 및 세부지표에서의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대전형 행복지표의 특성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대전형의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행복지표의 선정과 관련하여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혼용하되, 주관적 지표에 보다 중점을 둘 것이다. 주관적 지표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행복은 시민들에 의해 인식되어야하고, 바로 시민에 의해 가장 잘 평가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물론 주관적 지표의 신뢰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물질적 목표외의 주관적 요소가 행복수준을 결정하는데 직접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주관적 지표가 시민의 선호를 오히려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한준 외, 2011).

둘째, 물질적 조건 및 생활수준 등 경제적 요소 외에 도시의 새로운 미래가치(예, 공유 및 소통, 공동체 활력, 네트워크 등)를 반영하여 정책지향점과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대전의 미래비전과 연동되거나 정책성으로 구현될 수 있는 지표로 구축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즉 대전형 행복지수는 결과지향적(outcome-oriented)인 개인 체

감형 행복지표 선정과 함께 투입지표보다는 정책과 연계가능한 성과지표로서 객관적 지표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행복지표의 측정자료를 기초로 인구학적 특성별로 분석할 수 있으나, 행복지표 내 세부지표에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개인 특성별 측정지표를 마련해야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대전의 행복지표는 기존 지표의 구조를 준용하되, 개인적 특성 중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세부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서울, 충남 등 지역의 행복지표 또는 지역사회지표는 대체로 조사대상에서 특정연령(예, 15세이상)을 중심으로 하거나 측정항목에서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전형 행복지수의 특성은 생활영역 및 주관적 웰빙을 포함한 기본지표 외에 생애주기를 고려한 특성지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지표의 구조는 기본지표-특성지표로 구조화할 수 있다.

2. 대전형 행복지수 개발의 기본방향

행복지수의 개발에서 논란이 되는 점은 무엇보다도 행복지표 선정의 적합성 및 지표의 대표성, 행복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영역구성, 세부지표의 영역구성과의 부합정도 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행복지수를 대표하는 지표가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선정하는지 또는 선정주체에 따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점을 고려하여 대전형 행복지수 개발의 기본 방향은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을 준용하고자 한다.

첫째, 지표의 타당성 제고이다. 지표선정 시 행복수준과의 관계정도를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즉 지표의 증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구체화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한다.

둘째, 지표의 신뢰성 확보이다. 행복에 관한 측정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이어야 하며, 시계열적인 비교가 가능해야한다.

셋째, 지표선정 시 대전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대전광역시 민선6기의 시정방향 및 대전 2030 글랜드플랜에서 제시한 비전을 반영하는 한편, 지역간 비교가

능성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넷째, 지표선정 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혼용방식을 적용해야할 것이다. 행복개념은 객관적인 물질적 조건 외에 주관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복개념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표구성 역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적절히 혼용하여 측정되어야할 것이다.

다섯째, 정책과 연관된 지표선정 및 지표체계의 간결성이다. 기존 지역차원의 행복지표(예, 서울, 충남의 경우)는 대체로 지역여건의 환경 및 주관적 상황에 대해 총망라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전형 행복지수의 개발은 이와 같은 총망라적인 지표제시보다는 주관적 측면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정책목표와 방향과 연관된 지표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되 최소한의 지표체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제2절 행복지수 개발의 절차

지수개발의 절차 또는 과정은 지수구성의 지표에 대한 개발, 지표의 타당도, 지표의 선정 및 측정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지표선정의 주체와 관련된다. 지표선정은 그 자체로 지표구축의 가치와 목표를 반영하는 가치개입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지표선정은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 이 양자의 혼합방식(bi-directional; hybrid approach)으로 이루어진다.

하향식(top-down)은 작성기관 또는 전문가가 작성한 지표체계를 바탕으로 지표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다분히 이론적인 측면이 강하다. 반면에 상향식(bottom-up)은 시민, 지역사회 지도자,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지표를 선정하는 방식이며 경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혼합방식(bi-directional)은 하향식을 통해 설정된 지표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지표체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향식과 상향식을 동시에 활용하여 지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실용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방법은 전체 지표체계가 이론적인 틀에 기반하여 있으면서도 다양한 사회구

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함에 따라 현실에서의 체감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으며, 캐나다의 CIW가 혼합방식의 사례라 할 수 있다(Michalos, et al., 2011; 심수진·이희길, 2016).

<표 4-1> 잭슨빌의 삶의 질 지표 개발과정

1. 지표를 개발, 선정할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해 지역 언론에 대대적인 광고
2. 프로젝트의 책임자와 운영위원회의 지도 아래, 참가자들이 정의와 영역 설정
 - 삶의 질에 대한 조작적 정의 : 외부 환경의 요인들에 기인한 웰빙, 충족, 만족 상태
 - 9개의 영역 : 교육, 경제, 공공 안전, 자연환경, 건강, 사회적 환경, 정부/정책, 문화/오락, 이동
3. 자원봉사자들은 9개 영역을 기반으로 한 9개의 TF팀에 배정되었고, 각 팀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참여
4. 운영위원회는 삶의 질 지표의 선택 기준 개발

<삶의 질 지표의 선택 기준 : 초기 개발 기준>

 - 타당성(validity) :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요소나 쟁점을 측정하는가?
 - 이용가능성(availability)과 시의성(timeliness) : 연간 단위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지표인가?
 - 안정성(stability)과 신뢰성(reliability) : 통계가 체계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매해 같은 절차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 이해가능성(understandability) : 일반사용자와 대중들이 해석 가능하도록 간단한가?
 - 반응성(responsiveness) : 현실의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는가?
 - 정책적 적절성(policy relevance) : 정책 결정과 적절성을 가지고 있는가?
 - 대표성(representativeness) : 영역의 중요한 관점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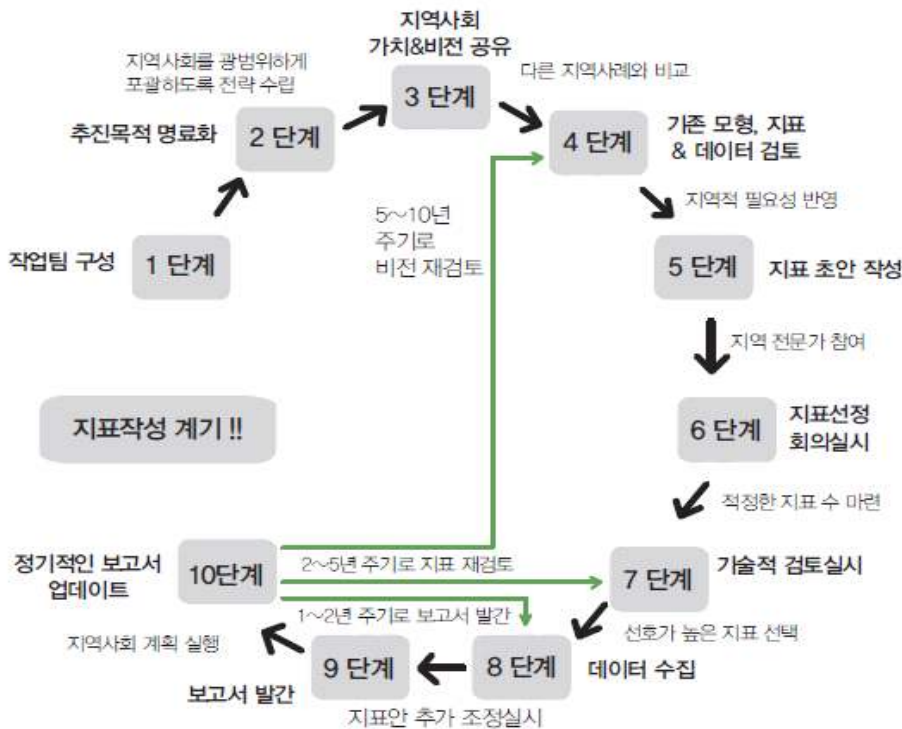
<삶의 질 지표의 선택 기준 : 2000년도 개정 과정에서 추가된 기준>

 - 중요성(importance), 명확성(clarity), 결과 지향(outcome orientation), 자산 지향(asset orientation), 미래 지향(anticipation) 기준들이 추가
5. TF팀은 9개의 지표 영역 내에서 최대 10개까지의 지표들을 선정하였고, 그 결과 최초의 74개 지표가 완성
6. 주요 개정과정을 거쳐 2011년 9개 영역의 110개 지표로 구성
 - 21개 핵심지표, 40개 보조지표, 49개 부가지표

자료: 통계청(2013).

예컨대, 시민참여를 통해 이루어진 전형적인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의 삶의 질 지표 개발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잭슨빌(Jacksonville)의 삶의 질 지표개발과정을 보면, <표 4-1>과 같다(통계청,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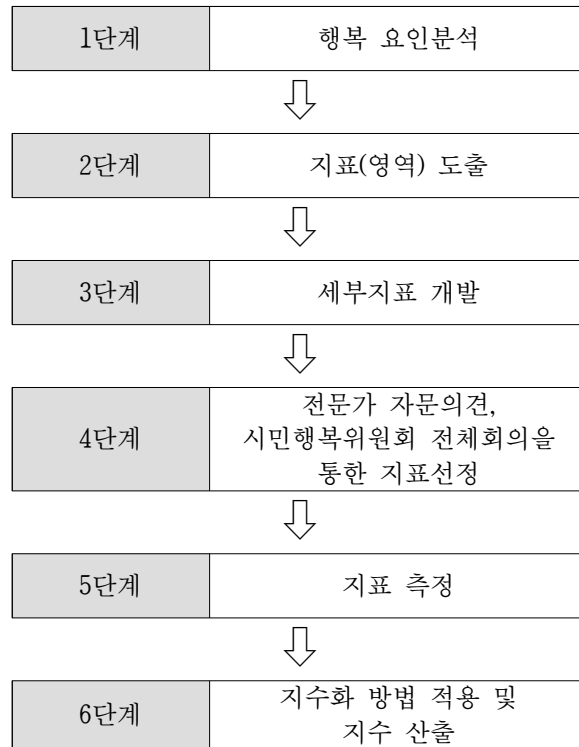
한편, 통계청의 지역사회지표작성 매뉴얼에 따르면(통계청, 2013), 지역사회지표작성의 과정을 10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작성과정을 보면, 작업팀의 구성, 지표작성목적의 명료화, 지역사회의 공유된 가치와 비전확인, 기존모델, 지표 및 자료 검토, 제안용 지표체계 작성, 지표선정과 타당화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성, 기술적인 검토 수행, 자료수집, 보고서 작성 및 발표, 규칙적인 보고서 개선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4-2> 지표작성 과정 10단계

자료: 통계청(2013).

이상에서 살펴본 시민참여형 삶의 질 지표개발, 지역사회지표작성의 단계 등을 참조하여 대전형 행복지수의 개발과정은 <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4-3> 대전형 행복지수의 개발과정

1단계에서는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선정을 위해 행복지수에 대한 선행연구 및 국내외사례를 통해 행복요인을 분석하고, 행복의 공통요인을 도출한다.

2단계에서는 행복지수에 관한 개념적 틀에 기초하여 영역을 도출한다.

3단계에서는 각 영역별 세부 지표를 개발한다.

4단계에서는 지표의 영역 및 세부지표에 대해 전문가 자문의견, 시민행복위원회 전체회의 등 시민참여를 통해 지표를 선정한다.

5단계에서는 선정된 지표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다. 이러한 측정과정을 통해 지표선정의 타당성 및 지수화 가능성을 탐색한다. 그리고 측

정의 반복을 통해 지표의 타당성을 확보한다.

6단계에서는 측정결과 및 최종지표를 중심으로 가중치 부여 등을 통해 지수화 방법을 적용하여 대전형 행복지수를 산출한다. 특히 가중치 산정방법은 동등가중치 부여방식과 차등가중치 부여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차등가중치 부여방식에는 요인분석, 전문가 AHP 조사, 설문에 의한 중요도 조사 등이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대전형 행복지수의 개발과정은 <그림 4-3>의 6단계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이 연구는 1-3단계에 해당되며 주로 지표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향후의 단계별 과정, 지표검토 및 측정, 행복지수의 산출 등은 추후 연구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행복지수의 지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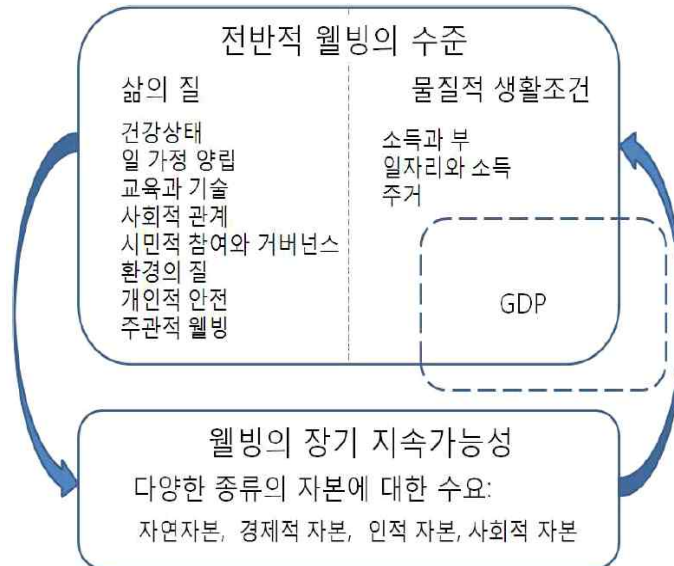
1. 행복지수 지표 선정의 개념적 틀에 관한 국내외 사례⁴⁷⁾

1) OECD의 웰빙에 관한 개념적 틀

OECD는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의 보고서를 통해 위레빙에 대한 개념 측정틀(conceptual framework)을 제시하였다. <그림 4-4>의 웰빙의 분석틀을 보면, 웰빙을 삶의 질과 물질 생활조건, 지속가능성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틀의 특징은 첫째, 사람들이 생활하고 일하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 상황이 어떠한가에 주목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한 국가의 경제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인이나 가구가 경험하는 웰빙 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투입이나 결과가 아닌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웰빙의 최종 성과(outcomes)에 주목한다. 셋째, 웰빙의 객관적 측면과 함께 주관적 측면도 동시에 강조한다. 환경에 대한 객관적 측정과 함께 이들 환경에서의

47) 행복지수 지표선정의 개념틀에 관한 국내외사례는 한국사회학회(2011), 이희길·심수진·박주연·배현혜(2013), Michalos, et al. (2011) 등을 참조하여 재정리하였다.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평가도 보완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에 기반해서 OECD는 2011년부터 11개 영역, 즉 주거, 소득과 부, 직업과 수입, 사회관계망, 교육과 기술, 환경, 시민참여/거버넌스,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생활의 균형에서 24개 지표를 포함한 웰빙지수인 BLI(Better Life Index)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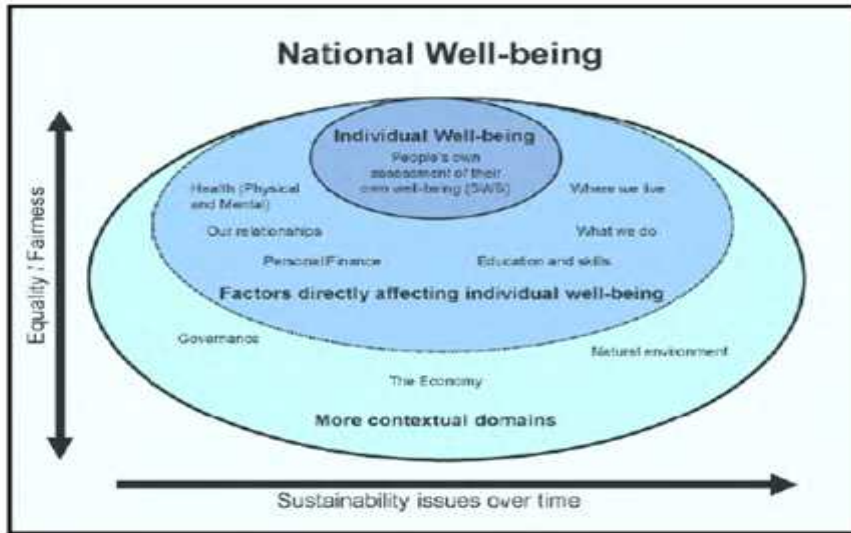
〈그림 4-4〉 OECD How's Life?의 개념적 프레임

2) 영국의 국가웰빙에 관한 개념적 틀

영국 통계청의 MNWB(Measuring National Well-being)는 <그림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웰빙을 이해함에 있어서 개인의 관점에서부터 사회전반까지 어떤 영역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도표로 작성한 것이다. 가장 안쪽에 위치한 원은 개인 웰빙을 가리키며 주관적 웰빙이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 원을 감싸는 중간 원은 개인적 웰빙을 변화시키는 요소들을 정리한 것으로 건강, 계, 교육 등의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큰 원은 맥락적 영역으로 경제, 거버넌스, 환경 등이 있다. 즉, 개인적 웰빙과 그 개인적 웰빙을 변화시키는 요소, 그리고 맥락적 요인을 통하

여 국가 웰빙을 파악할 수 있다.

Figure 1: Frame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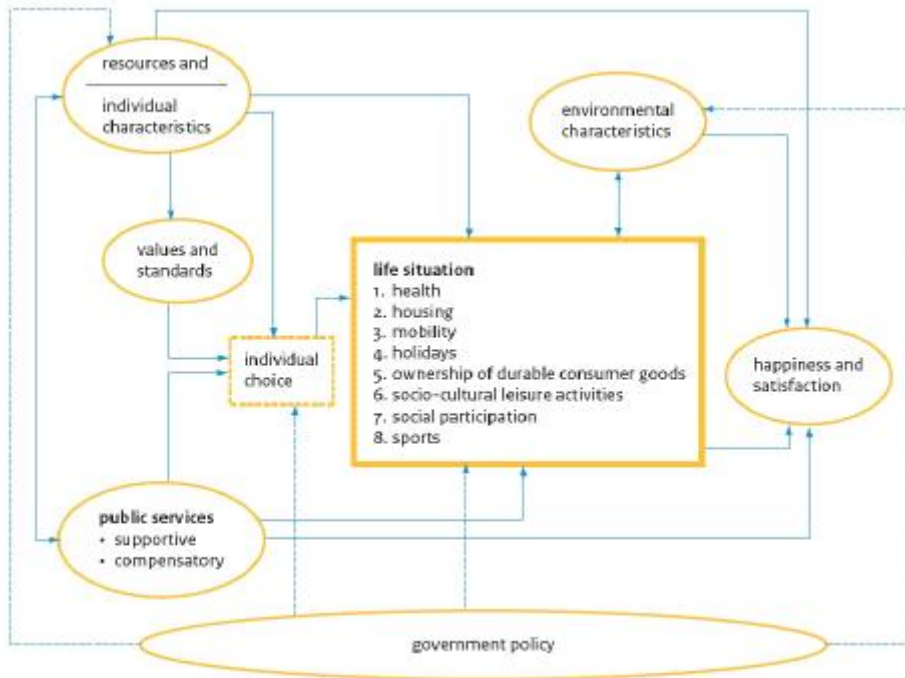
<그림 4-5> 영국의 국민웰빙의 개념적 틀

3) 네덜란드의 삶의 상황에 관한 개념적 틀

네덜란드 LSI(Life Situation Index)의 개념적 틀은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s), 환경(environment),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삶의 상황(life situation), 자원과 개인특성(resource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의 영역이 서로 인과관계와 상관성을 맺는다. 삶의 질과 상관성이 있거나 잠재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받는 자원, 환경, 공공서비스, 주관적 행복과 같은 부문들이 삶의 질을 구성하는 제반 영역들과 함께 하나의 개념적 틀에 기반하고 있다. 2010년에는 미래를 위한 제안과 이에 대한 새로운 개념틀이 제시되었다(<그림 4-6> 참조).

네덜란드 LSI의 개념적 틀은 사람들의 선택, 선호, 가치, 규범을 나타낸다. 이 규범과 가치, 그리고 부분 선호, 평가, 선택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끔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한 사회에 참가 또는 협조를 하기 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는 것에 해당하는 ‘자립성’을 포함한다. 특히 LSI는 주관적 지표로서의 평

가지표를 완전히 배제하고, 객관적 지표로서의 설명지표를 추구하는 구체적 정책 지향적 지표체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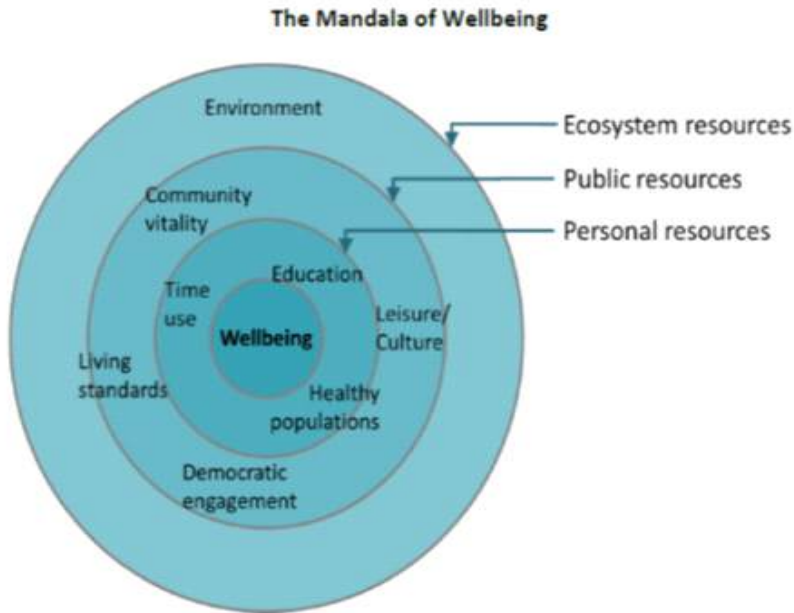


〈그림 4-6〉 네덜란드의 삶의 상황에 관한 개념적 틀(수정틀 2010)

4) 캐나다의 웰빙 만다라(Mandala of Wellbeing)

캐나다의 CIW(Canadian Index of Wellbeing)의 측정틀은 다차원 구조인 사람의 웰빙을 합리적이게 표현하는 1차원적(표면적)인 지수를 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웰빙 만다라로 불리는 CIW의 웰빙 측정틀은 8개의 영역과 웰빙의 관계를 보여 준다. 웰빙을 둘러싼 세 개의 원은 인간이 웰빙을 위해 사용하는 자원들을 의미한다. 만다라 중심에서 웰빙과 근접하게 있는 원은 개인 자원으로 시간사용, 교육, 건강영역이 들어 있다. 두 번째 원은 공적 자원으로 공동체 활력, 생활수준, 여가 및 문화, 민주적 참여가 포함된다. 가장 외부에 있는 세 번째 원은 환경영역을 포함하

고 있는 생태체계자원으로 다른 원들과 영역들 모두에게 영향을 주어 가장 포괄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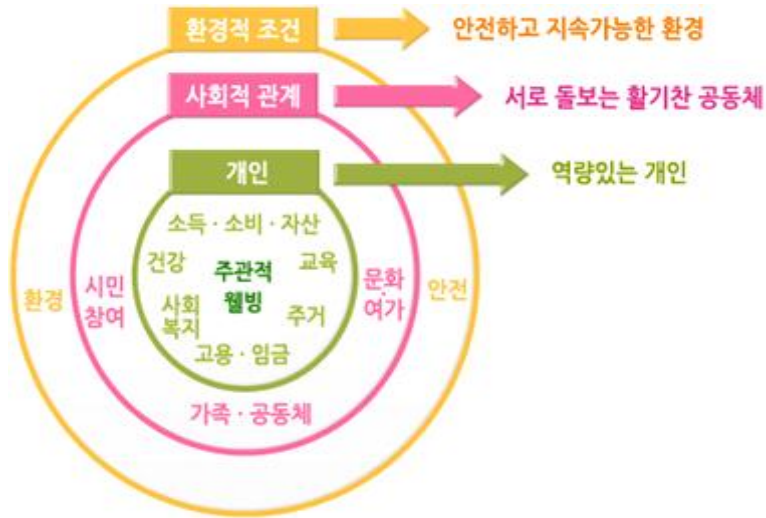
<그림 4-7> 캐나다의 웰빙 만다라

5) 통계청의 삶의 질에 관한 개념적 틀

통계청의 삶의 질에 관한 개념적 틀은 <그림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개인을 중심으로, 중간에는 사회적 관계가, 가장 바깥 쪽에는 환경 조건이 배치하는 형태로 크게 세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차원별 사회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틀은 캐나다의 웰빙 만다라 측정틀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각 차원별 목표는 개인의 경우 “역량있는 개인”으로 즉 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일할 능력을 갖추었으며, 경제적 여유와 복지혜택을 누리며 건강한 삶을 하는 개인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는 “서로 돌보는 활기찬 공동체”로 즉 사회통합과 결속이 이루어지고 시민참여가 활발하며 여가활용을 통해 문화생활을 즐기는 공동체

이다. 마지막으로 환경 조건은 “편안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으로 즉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우며, 환경이 보호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표 4-2> 참조).



<그림 4-8> 통계청의 삶의 질에 관한 개념적 틀

자료: <http://qol.kostat.go.kr/blife/guide-proc.do>

<표 4-2> 통계청의 삶의 질에 관한 개념적 틀의 목표 및 내용

차원	목표	세부내용
개인	역량(capability)있는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을 통해 지식과 일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경제적 여유와 복지혜택을 누리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개인
사회적 관계	서로 돌보는 활기찬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통합과 결속이 이루어지고 시민참여가 활발하고 여가활용을 통해 문화생활을 즐기는 공동체
환경적 조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환경이 보호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환경

자료: <http://qol.kostat.go.kr/blife/guide-proc.do>

2. 대전형 행복지수의 지표 선정에 관한 개념적 틀

행복지수의 측정지표 및 지표선정의 개념적 틀에 관한 국내외 사례에서도 보듯이,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영역과 영역을 대표하는 지표의 선정은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할 수 없으며, 도시의 여건이나 상황, 그리고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핵심가치로 생각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행복지수를 구성하고 있다. 지역적 특성, 문화적 차이, 가치관 등을 반영하여 어느 사회의 행복지수의 구성 및 측정은 구성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그 사회의 지향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박승규·김선기, 2014).

대전형 행복지수의 지표선정에 관한 개념적 틀은 대전광역시가 추구하는 도시발전의 목표와 연계되면서 시민의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영역과 지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대전의 시정방향 및 미래지향은 <표 4-3>에서 보면, 민선6기의 시정방향, 2030도시기본계획, 2030글랜드플랜에 제시된 도시목표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대전의 도시지향점을 추구하는 핵심적인 미래 가치, 즉 안정된 삶, 상생과 포용, 공동체적 활력을 시민행복의 지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표 4-3> 대전의 시정방향 및 미래지향

민선 6기 시정방향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2030 대전글랜드플랜
시민안전 행복도시 창조경제 과학도시	주변도시와 상생발전하는 중부권 중심도시 경쟁력있는 과학도시	창조적인 도시
함께하는 복지도시 품격높은 문화도시	즐길거리가 풍부한 매력적인 문화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	공유와 순환의 도시
지속가능 미래도시 시민참여 통합도시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강한 환경도시	연대와 포용의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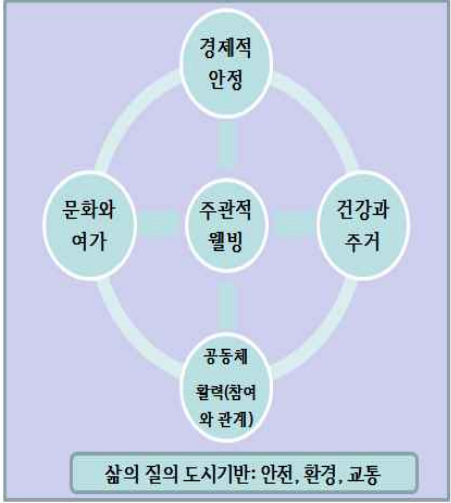
자료: 대전광역시(2013), 대전발전연구원(2015)

앞에서 살펴본 행복지수에 관한 개념적 틀의 국내외 사례, 대전광역시의 미래상 및 가치 등을 고려하여 대전형 행복지수 구축을 위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면, 다음

의 <표 4-4>와 같다.

<표 4-4> 대전형 행복지수의 지표선정에 관한 개념적 틀

기본 지표	기		
	차원	목표	세부내용
	개인	개인역량 제고와 성취	일과 가정에서 경제 적 안정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주관 적 안녕감이 증대되 는 삶
	사회적 관계	포용과 공동체적 활력	나눔과 상생, 활동적 인 사회참여로 신뢰 적 관계형성 및 문 화적으로 풍요로운 삶
환경	살고 싶은 환경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살 고 싶은 삶	



특성지표: 생애주기반영(아동기, 성인기, 노년기)

대전형 행복지수에 관한 개념적 틀은 주관적 웰빙을 핵심으로 삶의 질에 관한 도시기반을 기초로 경제적 안정, 문화와 여가, 건강과 주거, 공동체적 활력을 통해 행복수준을 측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행복구조를 이해하고, 생애주기별로 가지는 독자적인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정책의 수립 및 집행하는데 필요한 근거로 활용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적 틀은 정책의 성과와 연계되어야하며, 행복지수의 구축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행복증진에 초점을 두면서 도시발전의 뚜렷한 정책지향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3) 행복지수의 지표 선정

(1) 행복의 요인

그동안 행복을 측정하는 중요요인으로 널리 활용되어 온 것은 소득수준 등과 같은 경제적 지표들이었다. 그러나 Esterlin의 행복역설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최근 들어 경제적 지표만으로는 개인의 행복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주관적 가치 및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지표들이 함께 고려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행복의 변화경향에 대해 박승규·김선기(2014)에 의하면, 첫째, 소득중심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사회문화를 고려하고, 경제적 요인에서 삶의 질 요인으로 변화하고, 셋째, 개인주의에서 공동체주의로 삶의 방식이 전환됨에 따라 공동체적 관계요소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넷째,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지향하고 있고, 다섯째, 총량적인 성장보다는 개인적인 복지향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2012)에서는 행복과 불행의 정도는 소득, 직업, 사회적 자본, 가치관 및 종교 등 외부적 요인과 정신 및 신체적 건강, 가족, 교육 등 개인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고 지적하고 있다(World Happiness Report, 2012: 국민대통합위원회, 2014에서 재인용). 현재의 개인적 행복은 전적으로 개인의 당대 삶의 경로(life course)에서 결정되어 지지만, 현재의 외부적 요인은 개인의 삶에 앞서 이전의 경로로부터 발전되어온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외부적 요인과 개인적 특성간의 상호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행복경제학자라 할 수 있는 Layard(2005)는 행복의 결정요인으로서 7대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가족관계, 재정상황, 일, 공동체와 친구, 건강, 개인적 자유, 개인적 가치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상황이 아니라 가족관계이다(우창빈, 2013에서 재인용).

또한 행복의 영향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Dolan, et al., 2008; 김승권 외, 2009; 변미리, 2015)에서 언급하고 있는 행복의 영향요인으로는 소득, 연령, 교육과 건강, 여가활동, 신뢰와 네트워크, 실업과 인플레이션, 개인특성 등이다. 김승권 외(2009)의 연구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들을 정리하면 경제적 요소(소득 및 생활수준, 주택, 여가, 학력, 직업), 사회관계적 요소(친구관계, 결혼생활, 가족생활, 이웃관

계), 사회심리적 요소(성격, 문화), 환경적 요소(환경, 동네, 재난, 치안), 제도적 요소(민주주의, 사회보장), 신체적 또는 인구학 요소(건강, 연령, 성)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심리적 불안요인에 대한 연구결과(이상영 외, 2015)를 보면, 사회심리적 불안요인으로는 노후, 취업 및 소득, 신체적 건강 등을 언급하고 있다.

(2) 영역의 구성

행복수준을 결정짓는 영역과 측정지표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행복의 관점, 행복측정의 조작화, 지표체계의 구축, 평가의 목적, 평가의 주체, 평가의 대상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제3장에서 살펴본 행복지수에 관한 국내외 사례에서 제시된 영역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4-5> 행복지수 관련 선행연구의 영역 비교

구분	인구	가구 · 가족	소득 · 소비	노동	교육	건강	주거 · 교통	정보 · 통신	환경	복지	문화 · 여가	안전	정부 · 사회 참여	주관적 웰빙
UNDP HDI			○		○	○								
EIU 삶의질지수		○	○	○		○			○				○	
NEF HPI						○			○					
WHO QOL						○			○				○	
OECD BLI			○	○	○	○			○		○	○	○	○
캐나다 CIW			○		○	○		○	○		○	○	○	○
호주 웰빙지수		○	○	○	○	○	○				○	○		
일본 PLI			○	○	○	○	○							○
통계청 삶의질		○	○	○	○	○	○		○	○	○	○	○	○
미래전략연구원 국민행복지수			○	○	○	○	○		○		○	○		
서울 행복지표			○	○	○	○	○		○		○	○	○	○
충남행복지표		○	○	○	○	○	○		○		○	○	○	○

자료: 황명진 외(2008)에서 수정 및 추가하여 제작성

<표 4-5>의 행복지표 측정영역에서 주로 활용하는 영역은 소득·소비, 노동, 교육, 보건, 환경, 문화·여가, 정부·참여 등인 반면, 인구, 가구·가족, 주거·교통, 정보·통신, 복지 등은 활용도가 낮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지수의 측정목적 자체의 차이에 기인하는 결과이지만 다양한 연구들의 지표체계의 분류가 다르며, 규범적이고 표준적인 영역과 지표의 체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목적과 관점에 따라 다양한 분류방식이 적용가능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대전형 행복지수의 체계는 6대 영역으로 설정한다(<표 4-6> 참조). 6대 영역으로는 경제적 안정, 건강과 주거, 문화와 여가, 공동체 활력, 주관적 웰빙, 삶의 질의 도시기반(교육은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지표로 포함)이다.

<표 4-6> 영역 구분

영역	세부 분야
경제적 안정	소득, 일자리
건강과 주거	건강, 주거
문화와 여가	문화, 여가, 인터넷활용
공동체 활력	가족유대, 사회적 관계, 기부 및 신뢰
주관적 웰빙	전반적 삶의 만족도, 긍정경험, 부정경험, 가치부여
삶의 질의 도시기반	안전, 환경, 교통

주 1) 교육은 생애주기별 특성지표로 분류

(3) 세부지표의 선정

영역별 세부지표들은 해당 영역의 대표성을 가지면서 개인수준에서 행복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영역별로 중복되는 지표들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선정연구의 작성사례를 참고하고, 자료수집의 일관성, 통계자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6대 영역(생애주기별 특성지표 제외)에 걸쳐 모두 34개(특성지표 10개 포함시, 총44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자세한 영역별 구성 세부지표 내역은 다음의 <표 4-7>과 같다.

<표 4-7> 대전형 행복지표 구성안

영역	세부지표	객관적/주관적 지표	산출방식	자료출처
경제적 안정	가처분가구소득	객관적	세후 가처분 가구소득	대전의 사회지표
	고용률	객관적	만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대전의 사회지표
	소득만족도	주관적	소득에 만족하는 정도	대전의 사회지표
	일자리만족도	주관적	일자리에 만족하는 정도	대전의 사회지표
건강과 주거	기대수명	객관적	연령대별로 생존할 수 있는가를 평균적으로 계산한 연수	통계청 생명표
	소득대비주택임대비	객관적	소득에서 주택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주거비 부담정도를 산출	미산출
	주관적 건강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정도	대전의 사회지표
	스트레스인식도	주관적	지난 2주동안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대전의 사회지표
	주거환경만족도	주관적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정도	대전의 사회지표
문화와 여가	문화여가시간	객관적	하루 평균 소비하는 여가시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문화여가지출비율	객관적	가처분소득에서 문화여가에 지출하는 비율	미산출
	문화여가활동만족도	주관적	문화여가활동에 만족하는 정도	통계청 사회조사
	인터넷접근능력만족도	주관적	인터넷 접근능력에 대한 만족도	미산출 (예: 캐나다의 CIW)
공동체 활력	가족관계접촉빈도	주관적	직계가족과의 평균 접촉정도	미산출 (한국종합사회조사)
	가족관계만족도	주관적	가족관계에 있어 가족생활전반에 만족하는 정도	대전의 사회지표
	사회단체참여율	객관적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정도	대전의 사회지표
	사회적 관계망	주관적	도움을 받을 수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대전의 사회지표
	자원봉사참여시간	객관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시간	대전의 사회지표
	지역사회소속감	주관적	지역사회에 대해 가깝게 느끼는 정도	미산출 (한국종합사회조사)
	시민권 보장에 대한 인식도	주관적	시민으로서 권리 향유 정도	미산출
	기부정도	객관적	기부액 정도	대전의 사회지표
	사회적 신뢰도	주관적	일반사람들에 대한 신뢰정도	대전의 사회지표

영역	세부지표	객관적/주관적 지표	산출방식	자료출처	
주관적 웰빙	전반적 삶의 만족도	주관적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	대전의 사회지표	
	긍정적 정서경험	주관적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	대전의 사회지표	
	부정적 정서경험	주관적	근심과 걱정, 우울감의 정도	대전의 사회지표	
	하는 일에 대한 가치	주관적	하는 일에 대한 가치부여정도	대전의 사회지표	
삶의 질의 도시기반 (안전, 환경, 교통)	범죄율	객관적	범죄발생건수	대전의 사회지표	
	교통사고발생율	객관적	교통사고발생건수	대전의 사회지표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주관적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도에 대한 인식	미산출 (통계청 사회조사)	
	대중교통이용만족도	주관적	대중교통 이용에 만족하는 정도	대전의 사회지표	
	미세먼지농도	객관적	미세먼지농도	미산출 (기상청)	
	온실가스배출량	객관적	온실가스배출량	미산출	
	수질오염도	객관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대전의 사회지표 (환경부 환경통계)	
	체감환경만족도	주관적	살고있는 지역환경 개선정도	미산출 (통계청 사회조사)	
특성지표 (생애 주기별)	아동기	아동학대피해경험률	객관적	아동학대발생건수	미산출 (복지부)
		학교폭력발생율	객관적	학교폭력발생율	미산출 (교육부)
		학업성취도	주관적	학업성취에 대한 개선정도	미산출 (교육부)
		학생의 수면시간	객관적	학생의 평균 수면시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교우관계만족도	주관적	교우관계에 만족하는 정도	한국청소년연구원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학교생활만족도	주관적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정도	한국청소년연구원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성인기	사교육비지출비율	객관적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	대전의 사회지표
		평생교육참여율	객관적	평생교육의 참여율	대전의 사회지표
	노년기	연금수급률	객관적	국민연금 수급액	대전의 사회지표
		노인장기요양보호율	객관적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률	미산출

위에서 제시한 내용은 대전형 행복지수의 구축을 위한 지표를 예시한 것이다. 향후 대전 행복지수의 구축을 위해서는 첫째, 대전특성을 반영하는 차원 및 영역-세부지표에 관한 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지표 선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전 행복지표의 선정안을 중심으로 시민참여에 의한 지표 선정 등을 통해 지표체계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측정결과를 통해 지표의 중첩성이나 중복성의 검토, 지표간의 가중치 부여문제를 해소하면서 궁극적으로 대전 행복지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전 행복지수’의 관리 및 활용방안을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이다.

제 5 장

대전형 행복지수의 활용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활용방안

제 5 장 대전형 행복지수의 활용방안

제1절 기본방향

1. 행복지표의 활용원리

행복지표의 측정에서 정책활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3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1단계는 행복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도구(지표)를 개발하는 일이다.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 이 단계는 대부분 연구성과물로 공유하고 있는 실정임을 앞서 지자체 사례 검토에서 살펴보았다.

2단계는 인과요인 파악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지표 개선을 하는 단계이다. 대전시는 현재 2단계에 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어, 2차년도 연구에서 2단계의 연구과제를 남겨 놓고 있다. 물론 2단계는 특정한 시기에 완결적인 것이 아니며, 측정이 이루어지는 매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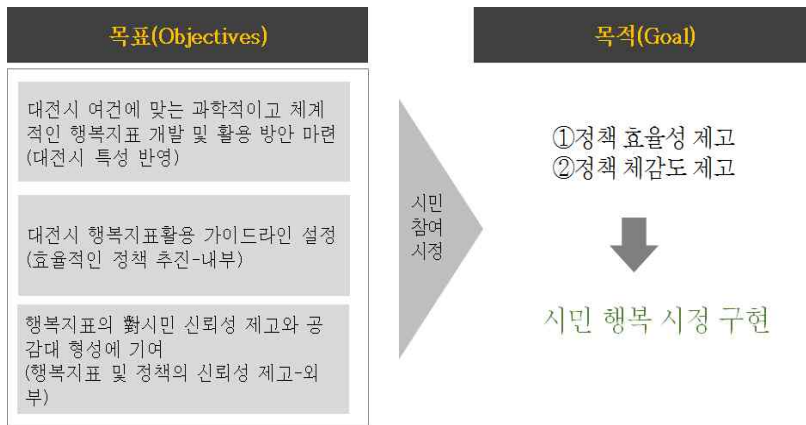
3단계는 행복 개선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지표를 활용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지표의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계로서 행복지표 개발과 적용의 본래적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삶의 질(웰빙) 측정이 21C 전후로 활성화되어 있지만 부탄을 제외하면 정책적 활용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측정 결과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⁴⁸⁾ 부탄의 경우에는 정책의 효과가 GNH(Gross National Happiness)의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을 채택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48) 예를 들어 국제기구 차원에서 보면, OECD의 BLI(Better Live Index) 『How's Life?』, UNDP의 『HDI : Work for Human Development』의 경우가 그러하고, 단위국가 차원에서 보면 캐나다의 CIW(Canadian Index of Wellbeing) 『How are Canadians Really doing?』, 호주의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영국과 일본의 『Measuring National Well-being』이 해당된다.

2. 행복지표 설정 목적 및 핵심 이슈

대전시 행복지표는 대전시에 적합한 행정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 시정에 활용함으로써 정책 효율성과 체감도를 높여 최종적으로 시민 행복시대를 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에 맞게 대전시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행복지표를 개발 하고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전시 행복지표 활용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행복지표의 대시민 신뢰성 제고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 과 활용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대시민 체감도를 제고함으로써 시민 행복 시정을 구현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행복지표 운용(활용)의 기본 방향

대전시 행복 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책 관련 행복 지표 선정 및 조사결과 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고, 각 분야 유형별 모델 개발을 통해 실제 시정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 활용 방안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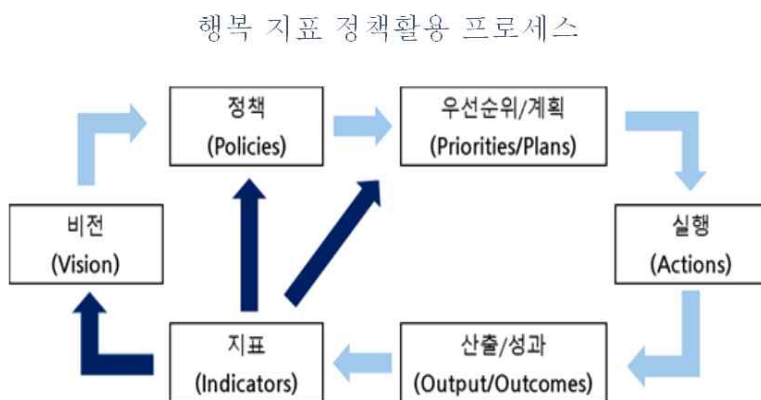
우선 지표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보다 정확한 행복 지표 구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있어 이것이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기도 하거나와 행복지표 구성 및 활용을 위한 표준화된 최적 조사방안을 개발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행복지표의 정확도 향상 제고는 크게 보면 행복 측정의 신뢰성 강화, 행복 지표의 대시민 홍보 강화, 행복 지표 적용의 지속성이라는 3가지 축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행복 측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표 개발이 민과 관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효율적이며 신뢰성 있는 지표 개발 및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두 번째는 정책활용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행복지표를 개발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복 지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행복지표의 대시민 신뢰성 제고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는 행복 지표를 정책 평가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시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책 중요도, 기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책유형별 모델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행복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연계성을 제고하는 연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전시 시민체감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제안되어야 하며, 지속적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세부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5차 OECD 포럼에서는 정책결정에서 웰빙자료의 적합성과 증거에 기반 하여 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진바 있다. 이후 이스라엘에서는 웰빙 측정 경험에 기초하여, 5가지 주요 요점을 제시(SPORT)하고 있는데 이는 대전시 지표 활용에 있어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자료의 수집, 제시 및 해석에 관계된 이해관계자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두 번째는 추진과정에서 저명한 정치인을 후견인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 세 번째는 웰빙의 영역별로 소관부처를 지명하여 시작단계에서 책임관계를 명료화 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네 번째는 정기적인 정부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네 번째는 지표를 정부계획에 통합하여 장기 및 단기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1) 새로운 조사가 아닌 대전시 사회지표와 조화를 이루는 행복지표.

대전시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회지표 조사는 인구, 가족, 소득, 노동, 교육, 보건, 주거 등 전반적인 대전시의 모습을 담고 있다. 지표는 객관적인 지표이외에도, 소득수준 만족도, 의료서비스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인 지표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실시되고 있었던 사회지표 조사에서 대전시민의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 주관적인 만족도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대전시 사회지표는 대전시의 전반적인 사회 모습을 포착하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세부적인 지표를 구체적으로 담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대전시 사회지표에서 다루기 힘든 ‘행복’의 세부적인 지표를 행복지표 안에 포함시켜나가야 한다.

이처럼 대전시 행복지표는 새로운 조사가 아니라 대전시 사회지표와 적절한 조화와 상호 보완을 통해 보다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사여야 한다. 대전시 사회지표에서는 대전시의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조건들(예를 들어 인구증감률, 실업율, 학업 중단율 등)을 조사하고, 대전 행복 지표에서는 ‘행복’의 세부적인 지표들(사회지표에서 다루기 힘든 주관적인 만족도)과 시민들의 특성에 맞는 조사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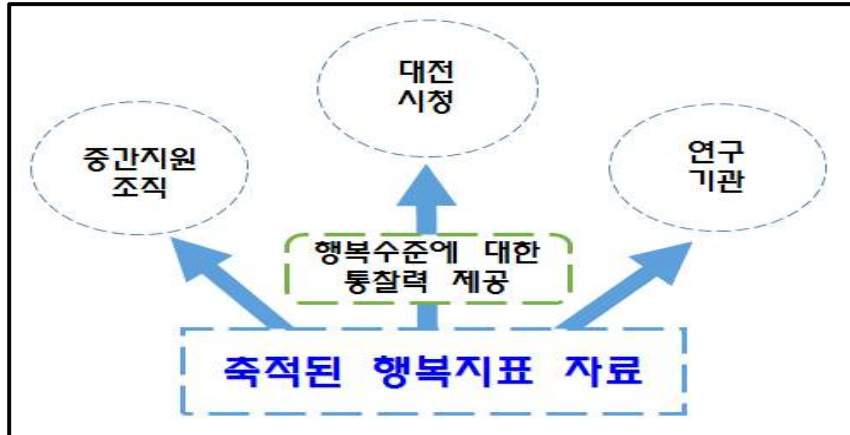


2) 대전시민의 행복한 삶에 대한 통찰력 제공

일회성에 끝나는 조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복지표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가 축적된다면 행복지표는 대전시민의 행복한 삶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력이 제공가능하다. 우선 축적된 행복지표는 전반적인 행복수준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으며, 변화 속에서 특정시기 행복수준이 낮게 나오거나 높게 나온다면 어떠한 것이 행복수준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행복’이라는 주관적인 감정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지표를 살펴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시정의 변화에 따라 대전시민의 행복수준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해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축적된 행복지표는 대전시, 중간지원조직, 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대전시 차원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시정의 변화 속에서 나타날 변화를 예측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중간지원 조직들 또한 행복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사회적자본센터’에서는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행복수준을 비교한 다음 추가적으로 공동체 수를 살펴본 후 공동체가 행복수준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 수가 행복수준에 영향을 준다’ 라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효율적으로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공동체 형성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다양한 연구원에서 행복지표가 활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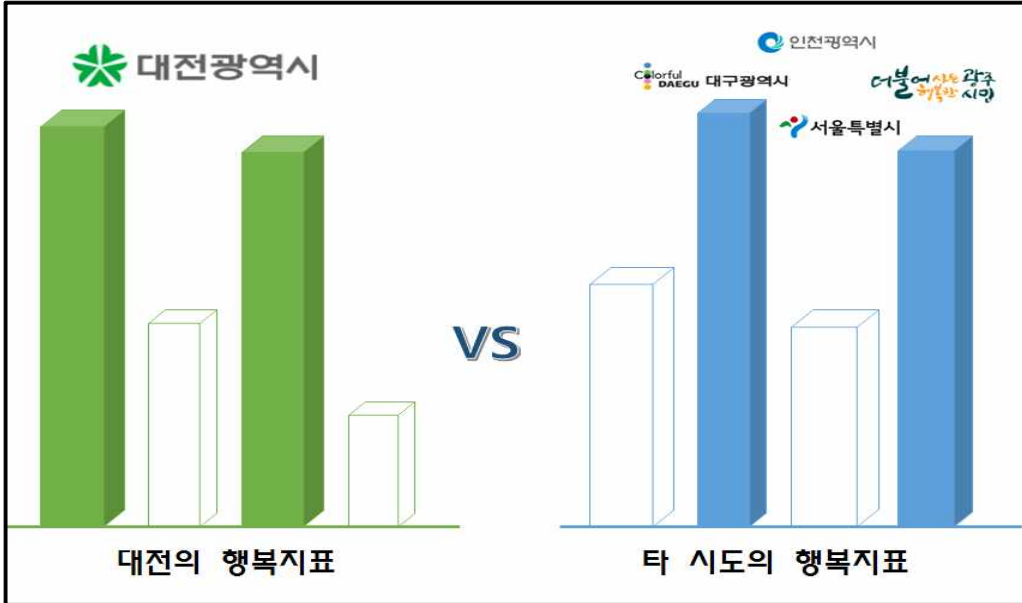
이처럼 축적된 행복지표조사 자료는 대전시민의 행복수준의 변화 추이를 밝혀줌과 동시에 그들의 행복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통찰력을 제공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대전시, 중간지원조직, 연구원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3) 국내 시도 및 국제 행복 지표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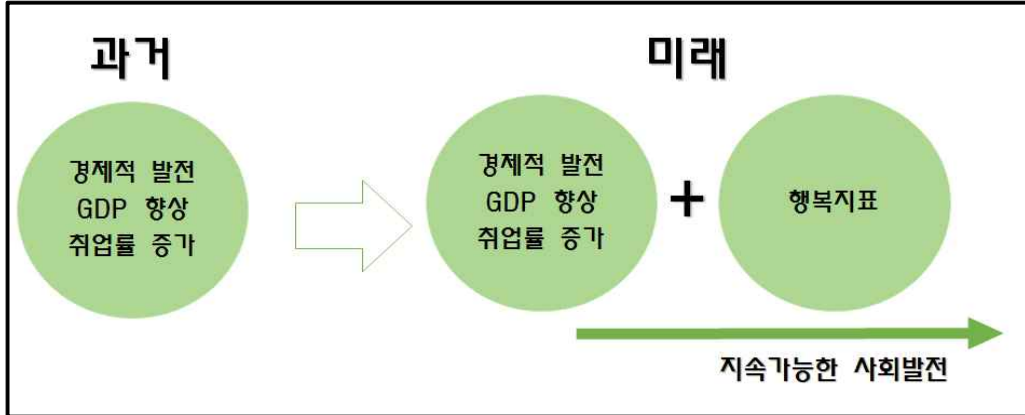
2012년 UN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가 발간된 이후 다양한 국가에서 행복지표(Happy index)를 개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7년 통계청에서 행복지수의 개발관련 논의(황명진, 2007)가 나타난 이후 통계청 ‘국민 삶의 지표’,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서울시 ‘서울형 행복지표’ 등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행복지표는 단순히 지역의 행복수준, 삶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다양한 도시들과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대전시 또한 대전의 상황에 맞는 행복지표를 개발·활용함으로써 타 광역시, 세계의 다양한 도시들과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국내외의 도시들에 비해 대전시가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결과 높은 행복수준이 측정되면 비교를 통해 국내외 사회에서 대전시가 갖는 위용을 확인함과 동시에 대전 시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행복지표의 미래지표로 활용

행복지표는 단순히 주관적 만족감뿐만이 아니라 객관적 지표들을 포괄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행복지표는 곧 미래비전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시에서 중장기 계획을 설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실천해 나갈 때 행복지표는 구체적인 목표치로 활용될 수 있다. 시는 단순히 GDP나 취업률과 같은 경제적 지표이외에 행복지표를 통해 측정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행복감, 만족도 등을 시의 미래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대전시 행복지표 조사 결과 전체적인 행복수준이 70점으로 측정되었다면, 향후 2020년에는 행복수준 80점을 위한 취약부분 개선을 미래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행복지표의 활용을 통해 단순한 경제적 개발을 넘어 시민들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5) 지속적인 시민참여와 지표관리

행복지표는 지표의 구성에서 향후 관리까지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지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지표의 개발은 단순 지표 개발을 넘어서 시민들의 지속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시는 지표의 개발에 있어서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면서 지지받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행복지표는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변화하는 삶을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관리의 측면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밖에 행복지표는 기존의 사회지표처럼 대전의 객관적인 상황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관적인 만족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대전의 강점과 약점을 보다 잘 보여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전시에 대한 이해는 곧 시민들의 대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시민참여와 지표관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민과 시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만들어져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은 자신들의 의견을 시에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제2절 행복지표의 활용방안

행복지수 개발 및 조사를 하는 근본 목적으로 회귀하여 보면, 이러한 노력은 결국 지역사회의 경우 지역발전 정책에 적용하는 기본적 틀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향후 개발될 지표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1. (가칭) 대전행복지표집 발간

지표개발이후 가장 시급한 일은 지표체계를 이용한 지표집을 발간하는 일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표집 발간에 직접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개별지표의 세부적인 사항을 게재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표집을 발간할 경우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지표의 분석수준이다. 각 개별지표마다 지표수치가 나타나는 배경, 원인, 향후 예상에 대한 설명 범위 및 분석수준에 따라 지표집의 성격이 크게 좌우될 것이다. 기존의 국내 행복지표가 통계 및 지표 제공에 초점을 두고, 단순히 기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대전행복지표집은 대표적 소수 지표를 이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지표의 독립변수명까지 밝혔으나, 실제 작업을 할 때는 가능한 독립변수를 모두 적용하여 본 뒤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독립변수를 중심으로 자료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표의 좀더 정리된 형태인 지수개발을 염두에 두면서 지표체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지수는 통계, 지표, 지수 중 가공정도가 가장 높고 간결한 형태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지표체계를 기초로 대전시의 행복지수를 개발한다면 그 유용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지수를 개발한다면 대전지역사회의 행복정도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며 정기적으로 시계열 분석과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분석의 단위는 전국과 비교하거나 국제적으로 규모가 비슷한 도시의 변화와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지역내 비교측정과 지역내 균형발전 전략 추진시 활용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는 전국 차원에서 지역별 비교가 어려운 비표준화된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 지표는 전국적으로 비교지표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전국의 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간 지역단위의 비교를 통해 행복의 구성영역 중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거나, 취약한 내용과 영역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전국적이거나, 통계청에서의 개발된 표준화된 지표를 받아들일 경우 가능한 상황으로 향후 개발할 지수를 이용한 종합적 비교와 부문별로 지역간의 부문별 지표결과 비교 등 다양한 형태로 해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지역간 비교가 어려운 대신 대전시와 대전시 자치구별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대전시의 시민 행복증진 정책 실적의 평가나 매년 대전광역시 정책시행 계획에 시민 행복 증진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구 또한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책 보완 및 중점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행복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지역통계생산 기반 구축

지역통계의 빈약함은 비단 사회지표 관련 통계분야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인지는 지방자치단체 실시이후 지역경제의 기초자료로서 통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생산되는 통계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들어 지역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본격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이 통계청의 기술자문과 교육을 통해 지역의 사회지표를 개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점에 지역사회지표조사 결과를 활용한 행복지표 개발 및 활용이 적극 필요하다. 이미 생산된 통계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생산과정에 있는 통계에 대해 행복지수 생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통계들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비용이 저렴할 것이다.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타시도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 통계청이나 통계개발원이 대전에 입지해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대전시 자체의 통계생산 기반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렇게 생산된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좀더 효율적으로 행복지표나 지수 개발에 좀더 역점을 들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4. 행정통계의 이용 제도화

국가의 정책실행 수준이 높아질수록 행정통계가 많이 생겨나고, 정확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많은 행정통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이를 이용한 사회지표의 분석에는 아직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가장 커다란 제약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상 이용되는 행정통계는 사용자를 염두에 두고 생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산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통계자료가 만들어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통계의 배포도 제한적이다. 행정자료 중 가장 많이 사용이 어려운 형태는 최초의 통계입력이 통계자료 형식이 아닌 보고서 형식에 기입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경우 각 단계마다 재집계와 재보고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별로 분리되어 수집된 통계들이 종종 통합되어 지역별분리가 어려운 통계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향후 조사의 고비용을 감안할 때 행정통계의 이용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5. 지속적인 정기적 조사 실시 및 지표체계 개선

본 연구의 지표개발을 수행하면서 기본적인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계자료가 없어 생산이 불가능한 지표들이 다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속적인 변화 과정에 대한 시계열분석이나 지역간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위주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정기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를 통해 일회적인 지표의 생산이 아닌, 시계열적 변화와 향후 정책에 중요한 모티브를 형성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위상이 갖추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개선 및 개선 절차	연구내용과 방법
지표의 목적과 방향설정	대전시의 시민행복관련 주요 정책과 사회현상의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부문과 관심영역 / 세부관심영역의 분류, 세부개별지표 선정	기존의 국내외 행복 지표들에 대한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 델파이 조사
지표의 구체화	개별지표의 독립변인을 명시하고 개별 지표의 정의와 산식을 개발
지표의 집계방식 제시	개별 지표별로 통계표를 시험적으로 작성하여 제시
통계자료의 수집	개별지표를 이용한 통계자료의 선정과 제시
부족한 통계자료 명시	통계자료의 수집과 검색
통계자료의 생산	부족한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추가분석 실시
지표결과의 타당성 검토 / 지표의 활용	통계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와 기존의 통계자료를 기초로 지표체계 개선

[그림 5-1] 행복지표 개발 및 개선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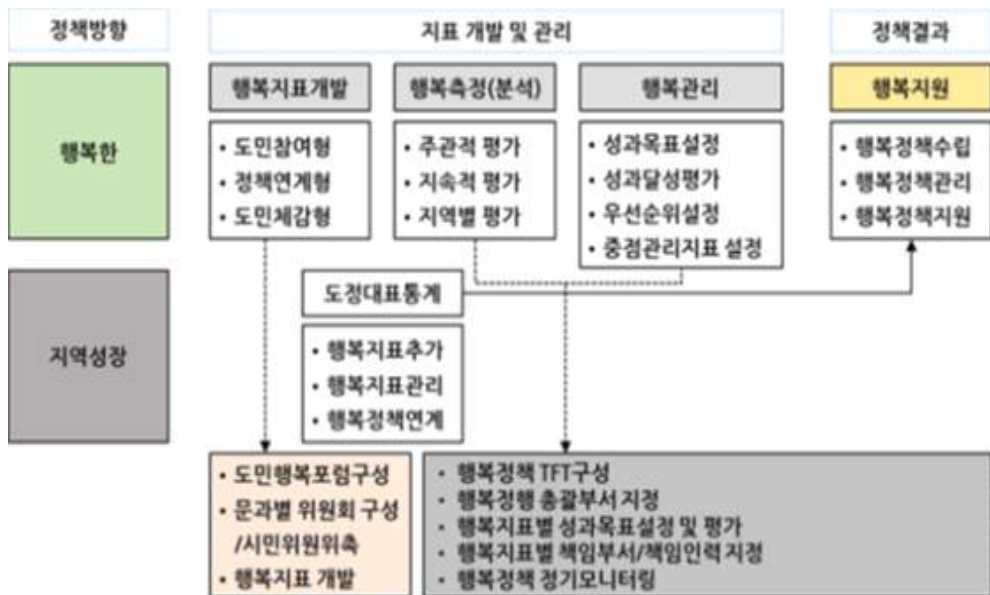
6. 행복지표 조사 분석 전담 부서 운영

본 연구에서는 지역 행복지표 구축을 위해 부문별 정책적 관심과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생산되어야 할 기초통계 및 핵심지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생산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기본자료가 되는 지역통계의 지역 행복지수로의 전환이 여타 통계들의 구축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정책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나, 이들 부서는 보통 조사통계에 한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대전시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대부분의 행정통계는 각 생산부서에 산재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전광역시에는 기존 행정통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지역통계의 효율적 활용과 행복지표의 체계적 생산을 위해서는 대전광역시 내에 지역통계를 통합 관리하는 부서를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사회지표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실 통계담당을 활용할 수도 있으나 사안의 특성상 대전시 행복지표 개발 및 관리 프로세스를 총괄하는 부서로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복지표 측정과 분석, 지표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행복위원회(시민 중심) 및 운영위원회(내부 조직)내에서 지표 관리 및 운영을 검토할 수도 있다.



7. 국제도시 간 지표 비교 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향후 지표체계가 어떻게 발전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대전시 행복지표는 대전시의 현황만을 측정,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전시의 삶의 질이나 행복 수준을 국제도시의 수준과 비교하여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교하여야 하는 외국 도시를 선정하고 그 각각의 도시들과 행복의 정도를 측정하고 비교분석하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이 먼저 합의되어야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국제적 수준에서 합의 가능한 의의와 목적, 성과를 수립하고 긴밀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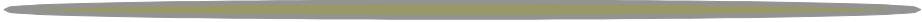
이렇게 지표의 국제적 적용에 대한 각 도시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제로 행복지표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각 지표의 개념과 정의, 그리고 산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전시 행복지표(안)이 비교측정을 위해 선정된 외국의 도시들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각 지표

에서 사용된 용어와 개념은 사용하는 언어마다 그리고 각 나라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비교 가능한 수준에서 개념을 맞추어 나가는 작업과 산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전광역시는 통계청이 입지해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개발원의 우수한 인적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계생산의 인프라가 타시도에 비하여 우수한 편이다. 따라서 앞서 제안한 국제도시와의 공동지표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체나 정기적인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도시 간 협약을 체결하고 지표에 대한 검토 및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국제회의가 불가피하다. 국제회의 내용은 대전시 행복지표의 의의와 목적 공유, 지표측정 결과에 대한 국제 도시 간 비교분석의 필요성 합의, 대전시 행복지표 개발 및 측정의 방법론 논의, 각 지표별 용어와 개념, 산식의 합의, 매년 말 각 도시별 지표 측정 및 결과에 대한 보고서 교환, 측정 결과에 대한 발표 방식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고승희(2012), 충남 논단: 선진사례를 통해 본 행복지수의 개발 방향, 열린충남, 58, 25-30
- 고승희 외(2012), 충남도민의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충남발전연구원
- 고승희 외(2013), 충남도민의 행복지표 측정과 정책 연계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국민대통합위원회(2014).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 3
- 기영화·김윤지·김남숙(2013). 커뮤니티웰빙 연구를 위한 국제지표 분석: 한국적 함의의 도출. 지역발전연구, 제22권 제1호: 1-35.
- 김경동 외(2007), 세계 주요도시 행복도 및 경쟁력 분석, 서울복지재단
- 김동영·이중섭·이지훈(2016), 전북도민 행복도와 정책 연계 방안,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148, 1-16
- 김미곤 외(2014),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08),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순(2010), 경남도민의 삶의 질 평가 지표 개발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 김영순(2010), 경남도민의 삶의 질 평가지표 개발 방안. 정책포커스 이슈분석, 1-42
- 김지경·하현주·김옥태(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지역사회 진단·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창연·조영미·이혜경·박진경(2012), 2012 서울여성행복지표 개발 및 측정, 서울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1-221
- 남주하 외(2013), 한국의 국민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국가미래연구원.
- 대전광역시(2013).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 대전광역시(2015), 2015
- 대전발전연구원(2015). 2030 대전글로벌플랜. 대전의 사회지표
- 박승규·김선기(2014), 도시 경쟁력과 행복 결정요인에 따른 지역 발전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회
- 박승규·박진경·조창덕(2015), 지역공동체 행복지표(특성) 개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승규·박진경·조창덕(2015),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학회 연구보고서
- 박승규 외(2015), 지역공동체 행복지표(특성) 개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회
- 박주언(2007), 행복: 과학적 개요, 스트레스연구, 15(3), 187-197
- 박주언·심수진·이희길(2012). 주관적 웰빙 측정방안. 통계개발원.
- 박형수·전병목(2012), 복지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배응규 외(2012). 하동 행복지수 개발방안 연구. 하동군.
- 변미리(2013), 도시발전의 질적성장 모니터링: 행복지수와 메가시티 인덱스 구축 연구 서울 연구원
- 변미리(2015), 서울시민의 행복체감도와 행복지표 활용방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2, 1-17
- 변미리(2015), 메가시티 삶의 질과 서울형 행복지표, 서울연구원
- 심수진·이희길(2016). 삶의 질 측정: 국제동향과 통계청의 대응. 조사연구, 17권 2호: 185-205.
- 심수진·이희길·박주언(2013), 지역사회 지표 개발 매뉴얼,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3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 심수진·박주언·이희길(2013), 사회조사 항목개발: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통계개발원
- 윤장재·김계연(2010),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산정 및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포럼, 1, 86-98
- 이내찬(2012),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32(2), 5-40
- 이동원(2007), 행복연구의 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 이상영 외(2015).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수철·고승희·최병학(2014), 충남의 지역공동체와 행복 : 충남의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충남발전연구원
- 이양호·지은주·권혁용(2013). 불평등과 행복. 한국정치학회보, 47(3), 25-43.
- 이은미·정진영(2010), 2010년 4/4분기 부가조사, : 가계의 경제행복도 조사, 삼성경제연구소.
- 임호(2013), 행복도시 부산, 현실과 과제, 부산발전연구원 정책포커스, 205, 1-12
- 임호 외(2015), 부산 도시관리 지표 개발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 이양호·지은주·권혁용(2013), 불평등과 행복, 한국정치학회보, 47(3), 25-43
- 이희길·심수진(2014), 국민 삶의 질 측정 2014 : 삶의 질 측정지표 개발결과 보고,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4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 이희길·심수진·김홍희(2015), 국민 삶의 질 측정 2015,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5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 정선기(2007), 2007 대전 시민의 삶의 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 정해식(2016), 행복도 추이와 설명요인 : UN 세계행복보고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 & FOCUS, 317
- 최말옥·문유석(2011), 부산지역 주민의 행복감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5(1), 277-297
- 최인철(2013), 국민행복시대, 행복한 삶의 조건,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프라이 브루노(Frey Bruno S, 2015). 행복, 경제학의 혁명 : 행복 연구가 21세기 경제학의 지평을바꾼다, 서울: 부키

통계청(2015), 2015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사회학회(2011), 국민 삶의 질 측정을 한 분석들.

한준 외(2011),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들 작성, 통계청 통계개발원

황명진·심수진(2008), 한국의 행복지수 개발. 한국조사연구학회 조사연구, 9(3), 93-117

황명진·심수진(2009), 행복지수 개발 : 지표체계 구성안. 통계개발원

현대경제연구원(2015),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경제적 행복감, 2013년 이래 최저. 현대경제연구원, 622. 1-14

현대경제연구원(2016),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경제적 행복의 장애물 ‘노후준비 부족’ -경제행복지수 상승 추세 지속, 현대경제연구원, 675, 1-17

국제연합개발계획(<http://hdr.undp.org/en/content/human-development-index-hdi>)

부탄연구센터(The Center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

유엔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http://worldhappiness.report>)

이코노미스트정보기관(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6), A Summary of the Liveability Ranking and Overview: August 2016

일본 웰빙측정위원회 The Commission on Measuring Well-being, Japan(2011),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Proposed Well-being Indicators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http://oecd.mofa.go.kr>), 2016년 OECD Better Life Index

OECD-OECD 대한민국 정책 센터(2016), How' s Life? 2015 웰빙의 측정

통계청 국가지표 체계(<http://www.index.go.kr>)

캐나다 웰빙지수(<https://uwaterloo.ca/canadian-index-wellbeing/what-we-do/framework>)

머서코리아(<http://www.mercer.co.kr>)

<https://www.authentic happiness.sas.upenn.edu/newsletters/authentic happiness/happin...> 2016-11-07)

Dolan, P., Tessa Peasgood and Mathew White(2008). “Do we really know what makes us happy? A review of the economic literature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 29(1): 94-122.

Helliwell, J., Layard, R., & Sachs, J.(2016), *World Happiness Report 2016, Update (Vol. I)*,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Michalos, A.C.(1985), *Multiple Discrepancies Theory(MDT)*,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16:347-413

Richard, L. (2005).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London: Allen Lane.

- Seligman, Martin(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Free Press.
- _____ (2011),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New York: Free Press
- Seligman, Martin and Ed Royzman.(2003). *Happiness: The Three Traditional Theories*, <https://www.authentic happiness.sas.upenn.edu/newsletters/authentic happiness/happin...2016-11-07>)
- Veenhoven, Ruut.(2006), *How Do We Assess How Happy We Are?: Tenet, Implications and Tenability of Three Theories*, Paper presented at conference on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Happiness: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 University of Notre Dame, USA, October 22-24
- Veenhoven, R.(2012). Happiness: Also known as ‘life-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 In: Kenneth C. Land, Alex C. Michalos, and M. Joseph Sirgy (Eds.) *Handbook of Social Indicators and Quality of Life Research*. Dordrecht, Netherlands: Springer Publishers: 63-77.

정책연구보고서 2016-40

대전형 행복지수 구축 방안

발행인 유 재 일

발행일 2016년 11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전화: 042-530-3523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청맥기획 TEL 042-487-2589 FAX 042-487-1887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